

#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김미숙 김승보 장수명

+

+

정책연구 2009-6

#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

김미숙 김승보 장수명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 머 리 말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인 인구의 평생 학습 참여를 촉진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식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기본 연구로서 평생학습이 사회경제적으로 개인과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평생학습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평생학습이 성인의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를 수행한 것은 평생학습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적 원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년 기본연구 2009-20번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미숙 박사가 연구책임자로서 김승보 박사, 장수명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성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결과를 도

출해 낸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9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 목 차

### 요 약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방법 · 7

### 제2장 평생학습과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 제1절 평생학습의 의미와 목적 · 9

1. 평생학습의 개념 · 9
2. 평생학습의 목적 · 16

#### 제2절 우리나라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 현황 · 21

1. 우리나라 평생학습 정책 및 참여 현황 · 23
2. 평생학습 정책 목표별 성과 지표 · 24
3. 중점 추진과제 및 재정투자 · 26

#### 제3절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조사 · 29

1. 국제 평생학습조사 관련 자료 · 29
2.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조사 관련 데이터 · 34

ii 목차

- 제4절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관련요소 · 37
  - 1.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 · 38
  - 2. 평생학습의 사회적 이익 · 43
  - 3.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 요소 · 53

**제3장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 분석**

- 제1절 평생학습과 경제적 성과 · 55
- 제2절 평생학습과 인적자본 규모 · 57
- 제3절 소득수준에 비추어 본 평생학습의 규모 국제 비교 · 61
- 제4절 평생학습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분석 · 74
- 제5절 소결 · 82

**제4장 평생학습과 사회통합**

- 제1절 사회자본과 사회통합 · 85
- 제2절 교육, 사회자본 및 사회통합 · 91
- 제3절 평생학습과 사회통합의 관계의 이론적 틀 · 96
- 제4절 자료 및 통계분석 방법 · 100
- 제5절 WVS 자료의 분석결과 · 110
  - 1. WVS 자체 자료 표본 · 110
  - 2. 세계가치조사와 국제 자료 통합 분석 · 128
  - 3. WVS, 국제 자료 및 EURO의 평생교육 참여율의 통합 자료 분석 결과 · 137

4. 소결 · 147

## 제5장 평생학습과 시민 의식

제1절 사회발전과 사회적 자본 · 149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 149
2. 사회적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 150

제2절 사회적 자본, 성인학습, 평생학습의 결합 · 152

1. 성인학습과 평생학습 · 152
2. 시민참여와 평생학습 · 157

제3절 시민의식과 평생학습 · 159

1.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 · 159
2. 적극적 시민의식과 평생학습 · 161
3.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의식 향상과 평생학습 · 164

제4절 평생학습과 시민의식 관계 분석 · 167

1. 자료와 관련 변수 · 167
2. 평생학습 참여율에 따른 시민의식 변화-중단적 분석 · 176
3. 평생학습의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력 분석-횡단적 분석 · 187

제5절 소결 · 205

##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 211

제2절 결론 및 제언 · 215

SUMMARY · 219

<부록>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관련 자료 · 223

1. 세계가치조사 데이터 · 225
2. IMD의 세계경쟁력조사 데이터 · 227
3. Penn World Tables(PWT) Ver.6.2 · 229
4. Barro-Lee Schooling Data set · 230
5. 기타 자료 · 238
6. 통합 데이터의 구성 · 240

참고문헌 · 245

## 〈표목차〉

- 〈표 2-1〉 평생학습의 3가지 목적과 정책영역 · 22
  - 〈표 2-2〉 창조적 학습자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 25
  - 〈표 2-3〉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 25
  - 〈표 2-4〉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와  
목표 · 26
  - 〈표 2-5〉 정책 영역별 주요 추진과제 · 27
  - 〈표 2-6〉 창조적 학습자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 · 28
  - 〈표 2-7〉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 관련 예산의 지속적 확대 계획 · 28
  - 〈표 2-8〉 2007년 유럽의 성인 교육훈련 참여율 · 30
  - 〈표 2-9〉 노동력 조사(LFS)-연도별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율 · 33
  - 〈표 2-10〉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 · 35
  - 〈표 2-11〉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율 비교 · 36
  - 〈표 2-12〉 국제 평생학습 참여율 자료 특성 · 37
  - 〈표 2-13〉 경제모형과 교육 효과 · 42
  - 〈표 2-14〉 평생학습의 성과 · 52
- 
- 〈표 3-1〉 성인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참여 · 58
  - 〈표 3-2〉 성인인구의 학력정도 국제 비교, 2000년 · 60
  - 〈표 3-3〉 평생학습 참여와 소득 증대 · 62
  - 〈표 3-4〉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 및 평생학습 참여율에 대한 1인당  
GDP의 회귀분석 · 63
  - 〈표 3-5〉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 실제 값과 잔차(연도별) · 65
  - 〈표 3-6〉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 실제 값과  
잔차(연도별) · 65

〈표 3-7〉	각국의 성인인구 평생학습 참여율 실제 값과 잔차(2000)	· 66
〈표 3-8〉	성인인구의 학력수준에 대한 1인당 GDP의 회귀분석	· 67
〈표 3-9〉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학력수준 실제 값과 잔차(연도별)	· 71
〈표 3-10〉	OECD 국가별 성인학력의 실제 값과 잔차(2000년)	· 72
〈표 3-11〉	경제성장 요인분석 변수의 기초통계치I (2000년, 성인학력비율)	· 77
〈표 3-12〉	경제성장 요인분석 변수의 기초통계치II (2000년, 평생학습 참여율)	· 78
〈표 3-13〉	성인학력의 경제성장 요인 회귀분석 결과(일반통합회귀모형)	· 79
〈표 3-14〉	성인학력의 경제성장 요인 회귀분석 결과(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 80
〈표 3-15〉	평생학습의 경제성장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POLS, FE, RE)	· 81
〈표 4-1〉	사회적, 문화적 포용과 배제	· 87
〈표 4-2〉	사회통합의 핵심적 구성요소의 요약	· 90
〈표 4-3〉	Campbell의 교육의 영향분석의 종속변수	· 94
〈표 4-4〉	Campbell의 교육특성의 영향분석의 결과	· 95
〈표 4-5〉	세계가치조사(WVS)의 사회통합변수	· 103
〈표 4-6〉	WVS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	· 111
〈표 4-7〉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참여	· 114
〈표 4-8〉	보수적 통합과 신뢰	· 118
〈표 4-9〉	통합가치와 정치참여	· 121
〈표 4-10〉	사회적 관용	· 123
〈표 4-11〉	공정성과 시장가치	· 126
〈표 4-12〉	세계가치조사 개인 자료 분석결과 종합	· 128

- 〈표 4-13〉 삶의 만족도와 보수적 통합가치 · 130
- 〈표 4-14〉 대인 신뢰와 대제도 신뢰 · 131
- 〈표 4-15〉 통합가치와 정치참여 · 133
- 〈표 4-16〉 관용의 수준 · 134
- 〈표 4-17〉 공정성, 자유선택, 반부패의식, 시장가치 · 136
- 〈표 4-18〉 삶의 만족도 및 결속 통합가치 · 139
- 〈표 4-19〉 대인 신뢰 및 제도 신뢰 · 140
- 〈표 4-20〉 민주적 가치와 정치·사회 참여 · 142
- 〈표 4-21〉 관용 · 144
- 〈표 4-22〉 공정성, 자유선택, 반부패의식, 시장가치 · 146
  
- 〈표 5-1〉 사회적 자본 유형과 평생학습에 대한 영향 · 156
- 〈표 5-2〉 시민의식을 위한 핵심능력 · 165
- 〈표 5-3〉 사회조사 변수(2008)-교육, 안전, 환경 부문 · 169
- 〈표 5-4〉 연도별 사회조사 부문 · 171
- 〈표 5-5〉 사회통계조사 중 관련 변수 · 171
- 〈표 5-6〉 평생학습과 시민의식 분석틀 · 172
- 〈표 5-7〉 변수 설명 · 173
- 〈표 5-8〉 변수의 평균 비교 · 174
- 〈표 5-9〉 평생학습참여에 따른 교육태도 차이 · 175
- 〈표 5-10〉 인적 속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96~'08) · 176
- 〈표 5-11〉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율 변화 · 181
- 〈표 5-12〉 성인의 희망 평생교육 순위('96~'08) · 183
- 〈표 5-13〉 시민의식 수준 변화('97~'08) · 184
- 〈표 5-14〉 평생학습참여와 시민의식 상관 관계 · 185
- 〈표 5-15〉 변수 특성 · 190
- 〈표 5-16〉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 · 192

- 〈표 5-17〉 평생학습 참여 기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 194
- 〈표 5-18〉 개인 속성과 교육태도, 평생학습, 시민의식과의 상관 · 196
- 〈표 5-19〉 교육태도와 시민의식과의 상관 관계 · 198
- 〈표 5-20〉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상관 관계 · 199
- 〈표 5-21〉 평생학습 참여 여부가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 회귀분석  
결과 · 201
- 〈표 5-22〉 평생학습 참여기간이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 회귀분석  
결과 · 203
- 〈표 5-23〉 평생학습 유형이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 회귀분석 결과 · 204
- 〈표 5-24〉 평생학습의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력 유무 · 209

## [그림목차]

- [그림 1-1] 평생학습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한 기본 구조(I) · 5
- [그림 1-2] 평생학습과 사회경제적 성과 관계 · 6
  
- [그림 2-1] 평생학습과 학습사회 · 22
- [그림 2-2] 평생학습의 참여 실태와 수요 분석 · 24
- [그림 2-3] 평생학습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한 기본 구조(II) · 54
  
- [그림 3-1]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학력구성 추이 · 59
- [그림 3-2] 성인의 평균교육년수와 1인당 GDP · 64
- [그림 3-3]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1인당 GDP, 2000년 · 64
- [그림 3-4] 성인의 대학학력 비중과 1인당 GDP, 2000년 · 68
- [그림 3-5] 성인의 중등학력 비중과 1인당 GDP, 2000년 · 68
- [그림 3-6] 성인의 초등학력 비중과 1인당 GDP, 2000년 · 69
- [그림 3-7] 성인의 무학력 비중과 1인당 GDP, 2000년 · 69
- [그림 3-8] 인구의 성인 비중 추이와 중등·고등 학력 성인 비중 추이  
비교 · 70
- [그림 3-9] 성인의 대학학력 잔차와 평균교육년수 잔차 · 73
- [그림 3-10] 성인의 대학학력비중 잔차와 평생학습 참여율 잔차 · 74
  
- [그림 4-1] 교육과 사회통합의 경로 · 99
  
- [그림 5-1] 사회적 자본과 평생학습사회 · 158
- [그림 5-2] 적극적 시민의식의 영역 · 163
- [그림 5-3]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96~'08) · 177

- [그림 5-4]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96~'08) · 177
- [그림 5-5]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96~'08) · 178
- [그림 5-6]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율('96~'08) · 179
- [그림 5-7]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96~'08) · 179
- [그림 5-8]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율 변화 · 181
- [그림 5-9]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 기간변화 · 182
- [그림 5-10]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시민의식 수준 추세선 · 186
- [그림 5-11]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관계분석 틀 · 188

## 【요약】

### 1.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평생학습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전반의 통합과 안정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사회 통합과 안정 차원에서 평생학습이 개인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시민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발전과 평생학습 참여와의 관계 등을 횡·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평생학습이 조사된 시점에서부터 종단적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고, 횡단적 분석을 통해 동일한 요인들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어떠한 평생학습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파악하였다.

둘째, 평생학습이 사회적 안정과 통합 등에 어떻게 관련되었는가를 횡·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관련된 대표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몇 가지 사회통합 관련 요소들이 평생학습 참여율의 변화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횡단적 측면에서는 선진외국에서 평생학습이 사회 안정 및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분석

하였다.

셋째, 평생학습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의 성숙한 발전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평생학습이 개인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평생학습 참여여부와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런 요소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인식, 즉 사회 안전, 준법정신 및 환경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계량 분석, 관련분야의 전문가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2. 평생학습과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 가. 평생학습의 의미와 목적

평생학습의 개념은 대상과 목적, 연구자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유럽연합에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하나는 학습이 인간 생애의 학령기 이전부터 정년퇴직 이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 생애적 관점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에 있어서 공식적, 비공식적, 그리고 무형식적 학습이라는 모든 학습의 범주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평생학습을 폭넓게 인식함으로써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첫째는 평생학습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의 고용가능성 및 직업경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평생학습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집단이 사회적으로

로 배제되거나 주변화 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평생학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 나. 우리나라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 현황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은 제2차 평생학습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산업 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의 패러다임은 창조적인 일터 안의 학습조직과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동향이다. 평생학습 종합계획에서는 평생학습사회의 3대 축으로 자아 실현, 개인의 평생고용가능성, 시민사회의 사회적 포용 증진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자아 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보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충족된 삶, 양질의 노동력 창출, 민주주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다.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이익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경제적 성과는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OECD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는 기간으로서 졸업 이후 은퇴에 이르기까지 대략 42년을 노동 인력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전체에 걸쳐 개인은 교육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다. McMahon(1998)은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학습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의 측정을 위한 기초로서 가계 생산(household produ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가계

생산에는 개인의 시간이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를 지닌 공식 교육을 포함하는 인적자본생산과 가족의 시간 활용과 여러 가지 시장형 상품(책이나 컴퓨터 등)을 포함하는 최종적 만족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 분석에 대한 연구논문은 2000년 이후 주로 직업훈련 부문에서 개인의 취업능력제고 등에 관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정택수 등(2000)의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분석, 이병희(2000)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와 정책과제, 김주섭(2004)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평가 분석, 그리고 나영선 외(2007)의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중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가 있다.

두 번째로 국가적 수준에서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는 주로 일반 교육에 있어서 중·고등 교육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박현정(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교육지표를 활용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교육과 경제성장 관점에서 연구한 장수명(2004)의 연구는 대표적인 국가 경쟁력 모형인 IMD 모형과 포터 모형을 분석하고 이 중 교육지표들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한편, 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연구는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닌 비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을 측정하고 가치화 하기도 한다. 개인의 비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인간의 삶의 질, 광범위한 경제 발전, 사회 복지의 중요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의 일부 비용은 공적인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더 나은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이익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수준에서 평생학습의 비경제적 이익은 민주시민으로서 의식 수준의 향상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평생학습의 비경제적 이익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가계 생산 함수를 사용하여 비경제적 결과(outcome)를 산출하는 것으로 교육 증가에 따른 한계 생산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의 비경제적 이익을 측정한 연구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 개인과 가족의 건강, 2) 가정 교육에 대한 효과, 3) 효율적 구매 활동, 4) 노동력 참여율에 관한 성과, 5) 평생학습의 지속적 참여, 6) 동기나 태도의 변화, 7) 직무 만족에 대한 효과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비경제적 이익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수준에서 평생학습의 비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다. 평생학습의 사회적 효과는 GDP나 사람들의 금전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경제적일 수도 있으며, 일상적인 사회적 삶에서 비경제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평생학습의 외부성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즉,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교육적 투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역사회의 평균 교육 수준은 순수한 이익을 가져오며, 심지어 미국인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평생학습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학습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 등이 적절한 평생학습 정책 수립을 도출하고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평생학습과 사회경제적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국 및 국내의 평생

학습 관련연구와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

평생학습에 관한 해외 선진국의 조사 자료로는 교육과 평생학습 활동 참여에 관한 것을 조사한 EU 통계의 일부분인 EUROSTAT의 AESAES(Adults Education Survey)와 1996년부터 현재까지 EURO 지역(33개국 대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조사한 LFS(Labour Force Survey)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 전체 표본 조사구에서 추출된 252개 조사구별로 할당된 가구(2249가구)를 개별방 문면접조사한 2007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국내의 사회통계조사 데이터, 세계가치조사 데이터, IMD의 세계경쟁력조사 데이터, Penn World Tables(PWT) Ver.6.2, Barro-Lee Schooling 데이터 세트 등을 사용하였다. 통합데이터는 위에서 살펴본 자료들을 사용하였으며, 총 210개 국가의 1950~2008년도 시계열로 구성되었다.

#### 4. 평생학습과 경제적 성과

이 장에서는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분석을 위하여 우선 교육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시각이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맥락에서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통하여 평생학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평생교육의 개념적 문제를 논의한 다음,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학력과 평생학습 참여율 등 인적자본 투자가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비단 학령기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계조사」에서 나타나는 평생

학습 참여 희망률은 58.7%에 이른다. 2005년도의 인구통계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성인인구가 약 3천백만 명이므로, 성인인구의 약 5% 이상이 학력인정과 관련된 정규기관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학력인정과 관련된 교육기관을 통한 연간 일수 등 참여의 질은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의 투자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성인인구의 높은 학력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앞선 규모이다.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는 111개국 중 8위이며 대학학력 비중은 6위, 중등학력 비중은 9위 등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과 더불어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는 경제개발초기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성인의 평생학습참여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수준 증가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인구의 학력수준 및 평생교육 참여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학력을 통한 형식교육 참여가 늘어남으로써 인적자본 저장의 축적이 빠르게 진행됨을 나타낸다.

##### 5. 평생학습과 사회통합의 관계

평생학습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단체 참여에 대한 회귀분석을 OLS, 국가별 표본 수를 고려하고 가중치를 더한 OLS, 그리고 가중치와 양측 한계를 가진 tob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삶의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인의 사회활동단체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개인이 기여하는 수준이 높았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평생 정규교육'(전문대학 이하 교육을 25세 이후 마친 사람)의 계수를 살펴보면, 양으로 유의하

여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다는 것이다.

평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활동이 적었으나 교육편차가 클수록 사회활동의 참여가 높았다. 평균교육년수의 효과는 개인적 차원의 변수를 통제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평균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편차의 계수가 부(-)로 유의한 것은 교육수준이 교육 불평등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의 참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자료를 통합한 경우에 매우 다르게 나타나 해석하기 쉽지 않다.

한편 '평생정규교육'의 계수는 양으로 유의할 뿐 아니라 계수의 크기가 모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평생교육 차원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역의 상관관계의 가능성, 즉 사회활동이 왕성한 사람이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교육이 정규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사회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가소속감과 전쟁참여의지를 나타내는 보수적 사회통합적 가치와 신뢰에 관한 probit 모형의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여기서의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고 교육관련 계수들만 보고하고 논의한다. 국가의 소속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교육관련 계수의 추정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아주 높을 경우 소속감이 다소 낮았다. 교육의 편차가 클수록 오히려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 소속감이 높게 나타나며 평생 정규교육의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가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소 낮으며 또한 평균교육년수가 높을수록 낮았다. 교육의 편차는 참여의사를

높고 있다. '평생 정규교육'의 계수의 절대값은 작지만 양(+)으로 유의하여 전쟁참여와 같은 애국적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상대적 교육년수 또한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많은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신뢰에 관한 것이다. 이는 나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제도적 신뢰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 교육수준은 일반적 신뢰와 상대적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제도적 신뢰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정규교육의 효과는 일반적 신뢰와 상대적 신뢰에 크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도적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체로 교육이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단선적이지 않고 무척 복잡한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평생학습과 시민의식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관계에 대하여 종단, 횡단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단 분석은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로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종단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성인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실태 분석과 위의 분석은 매우 일치하고 있다. 즉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성에 따른 불평등, 연령 불평등, 교육 불평등,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 즉 사회적 측면에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 분석에서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실은 시민의식으로서 사회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은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성인의 평생학습 중 교양 강좌나 TV 및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강좌에 참여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학습에 있어서 비경제적 측면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확보와 배분방식에 대한 체계적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은 단지 지난 12년간의 변화를 4회에 걸쳐 조사한 것에 기초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에 관한 횡단적 분석은 평생학습이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이것은 2008년도 사회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먼저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는 1을 만점으로 볼 때, 0.18 수준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기간은 평균 57.8일 정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 중에서 교양강좌와 학원 수강, 인터넷 강좌에 참여하는 기간이 직장연수나 직업교육 기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의식에 있어서 사회 안전에 관한 의식은 61.5%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준법 정신에 있어서 79.5%가 준법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 의식의 수준은 87.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환경의식 수준이 가장 높고 준법 정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안전 의식은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으로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 취업상태, 종사상 지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인 경우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평생학습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태도가 평생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높을 때 그리고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높을 때 평생학

습에 참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평생학습에 참여한 기간에서 개인적 특성이나 교육적 태도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속성보다 평생학습 기간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 참여여부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며 두 번째는 평생학습 참여 기간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학습 참여 유형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평생학습 참여여부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평생학습 참여 여부가 사회 안전 의식과 준법 의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환경의식에는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 참여기간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평생학습 참여 기간도 평생학습 참여 여부와 같이 환경 의식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 참여유형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평생학습 유형 중에서 직장연수 부문은 준법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수강과 TV 및 라디오 인터넷 강좌는 환경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경제발전과 평생학습 참여와의 관계 등을 횡·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평생학습이 조사된 시점에서부터 종단적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고, 횡단적 분석을 통해 동일한 요인들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비

교하여 우리나라가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어떠한 평생학습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파악하였다.

둘째, 평생학습이 사회적 안정과 통합 등에 어떻게 관련되었는가를 횡·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관련된 대표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몇 가지 사회통합 관련 요소들이 평생학습 참여율의 변화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횡단적 측면에서는 선진 외국에서 평생학습이 사회 안정 및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평생학습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의 성숙한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평생학습이 개인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환경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 여부와 참여기간, 그리고 참여 유형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행동에 설명력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에,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주며, 이런 영향력은 평생학습이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제1 장 서론

김미숙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아직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분석과 논의의 부족은 평생학습의 강조에 있어서 성과에 기반한다기보다는, 단순한 명제처럼 주장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17.2%(통계청, 2000)에서 21.6%(통계청, 2004), 그리고 29.8%(한국교육개발원, 200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학교나 일터, 지역사회에서의 교육훈련 등 다양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OECD 국가 평균 26%(OECD, 2005)보다 3.8%p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한국교육개발원, 2007)<sup>1)</sup>.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

1)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생애전반에 걸친 학습으로 광범위하게 논의하지 만, 주요 연구 대상은 성인(25세~64세) 학습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 2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평생 학습과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국가 정책 차원에서 관심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 개개인의 평생 학습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는 평생학습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의 평생학습 정책 수립에 있어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아울러 일반적인 교육 정책으로서 평생 학습을 다루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도 포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있어서 평생학습이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평생학습과 사회적 통합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라든지 국가의 성인교육의 참여 수준에 대한 평가, 성인교육의 참여에 대한 질과 사회적 통합의 이슈에 대한 고찰, 그리고 기존의 평생학습 체계가 미래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방법등에 대한 연구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각국 정부에서는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정책 강화에 따라 평생학습이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의 선으로서 모든 이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었던 평생학습에 대한 관점에서 평생학습 전반의 성과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평생 학습의 활성화가 국가적 수준에서의 경제성장이나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선진 외국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수준에서 평생학습과 사회적 이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는 조순옥(2003)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 특히, 개인의 평생학습 참여에 따른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노동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평생학습

으로서 실업자나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이나 직업훈련에 따른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분석하였다(정원오, 1997; 류재철 외, 1999; 이병희, 2000; 강순희 외 2000; 김주섭 외 2001; 김우영, 2002; 김안국, 2002; 이명재 외 2003; 이상준, 2003; KRIVET, 2007, 2008). 그러나 평생학습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개인의 경제적 성과 이외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하여 전국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경우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평생학습이 학습자의 심리적 만족이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제한적인 관점을 벗어나고자 한다. 특히 전체 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지원과 관심의 증가가 평생학습에 대한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일이다. 즉 평생학습에 대한 역할과 기대의 증가에 따라 평생학습이 전체 사회와 국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영향력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은 평생학습을 통해 경제적 이익 이외에 사회적 존재로서 얼마나 성숙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은 사회 전체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 개발에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평생학습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전반의 통합과 안정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

#### 4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사회 통합과 안정 차원에서 평생학습이 개인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시민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발전과 평생학습 참여와의 관계 등을 횡·종단적으로 분석한다. 평생학습이 조사된 시점에서부터 종단적으로 시계열적 분석을 할 것이며, 횡단적 분석은 동일한 요인들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어떠한 평생학습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파악할 것이다.

둘째, 평생학습이 사회적 안정과 통합 등에 어떻게 관련되었는가를 횡·종단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관련된 대표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몇 가지 사회통합 관련 요소들이 평생학습 참여율의 변화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횡단적 측면에서는 선진 외국에서 평생학습이 사회 안정 및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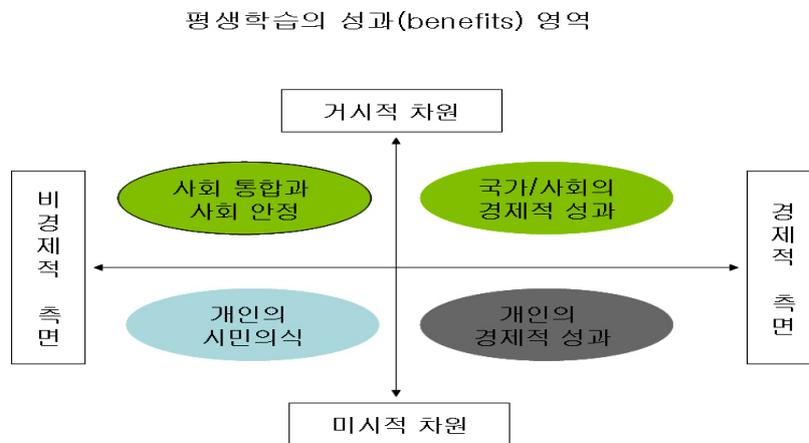
셋째, 평생학습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의 성숙·발전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평생학습이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의 의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즉, 평생학습이 개인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것은 평생학습 참여여부와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런 요소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사회적 인식, 즉 사회 안전, 준법정신 및 환경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는 평생학습은 개인적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수준에서 광범위한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국가적 수준의 성과는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적 수준의 성과는 경제적 측면으로서의 노동시장 성과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서의 시민의식과 관련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두 가지 축으로 하여 수준별로 도식화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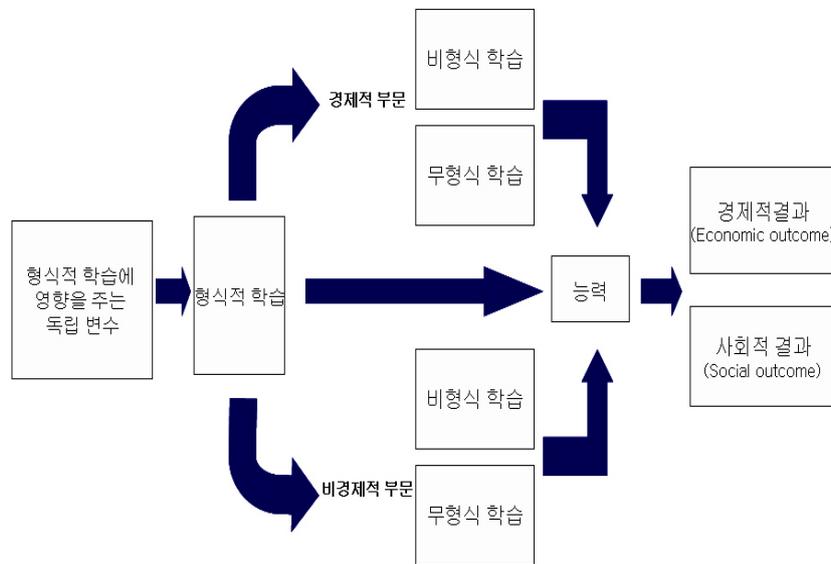
[그림 1-1] 평생학습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한 기본 구조(I)



위 그림에서의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경제적 성과를 분석할 것이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평생학습이 경제적 측면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분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지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평생학습과 경제지표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어떤 영향 혹은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며,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평생학습이 사회의 여러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분석한다.

[그림 1-2] 평생학습과 사회경제적 성과 관계



이를 위해 관련 지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평생학습이 사회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며,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셋째, 개인적 수준에서 평생학습이 개인의 사회적 인식 수준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한다. 다만, 평생학습의 성과 중에서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논의는 평생학습 유형 중 직업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직업훈련과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함의를 이용하되 연구범위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문헌분석을 실시한다. 기존의 선행연구 문헌들을 분석하여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지표를 무엇으로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하며, 평생학습과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의

2) 김안국 외(2004)에 의하면, 국내의 평생학습에 있어서 직업훈련 참여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연구제목	정책	연구결과
이명재, 이상준(2003)	Analysis of Job	실업자 훈련	여성, 고학력집단에 양적효과, 남성저학력집단에 부정적효과
KRIVET (2008)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직업능력 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8개에 대한 전반적 성과 평가
KRIVET (2007)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직업능력 개발사업	재직근로자훈련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 평가
KRIVET (200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실업자 훈련	재직자 향상 훈련이 교육비, 생산성, 직무만족도에 양의 효과, 훈련경험의 양의 임금효과
KRIVET (2002)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실업자 훈련	여성훈련참여 증가, 남성취업률 증가, 훈련수료율과 훈련성과 간 음의 관계
KRIVET (200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실업자 훈련	훈련이수자의 자발적 이직률 높음, 훈련이수 후 고용상 지위와 임금 저하
이병희(2000)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재취업 성과에 관한 준실험적 평가	실업자 훈련	훈련참여 재취업 확률에 양의 효과, 훈련특성 재취업확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 없음.
이상준(2003)	정책평가를 위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과 실증사례	실업자 훈련	훈련기간이 짧은 직종의 사람들에게 정의 훈련효과
강순희 외 (2000)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실업자훈련	고졸자 대상 직업훈련은 취업가능성을 높이지 못함, 직업훈련 경험자가 더 높은 임금수준
류기철, 류재술(1999)	정부의 실업대책과 실직자의 재취업	실업자훈련	정부실업 대책에 낮은 참여율 및 부정적 평가
강순희 외 (200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실업자훈련	선진 주요국 직업훈련 단기효과 미미, 훈련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훈련필요
김안국 (2002)	교육훈련의 경제적 성과	재직자훈련	교육훈련을 이미 이수한 경우는 양의 유의한 임금효과
정원오 (1999)	저소득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취약 계층	훈련내적요인의 자격증취득확률 및 취업확률에의 유의미한 영향, 소득크기에 영향 없음, 생산성증가에 중요 요인
정원오 (1997)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효과에 대한 연구	취약 계층	-
김주섭 외 (2001)	공공직업훈련투자효과 분석연구	청년층훈련	직업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업률과 투자수익률에 긍정적인 효과
이상은 (2003)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청년층훈련	대학재학 이상, 20~24세 청년에 양적 효과
김우영 (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효과	청년층교육	학력과 자격증의 취업확률에 양의 효과, 훈련경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의 음의 효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둘째, 국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OECD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IMD의 세계경쟁력 조사(World Competitiveness Survey), 그리고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를 국가별 수준에서 결합하며, 연도별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또한 국내 통계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데이터를 연도별로 수집하여 활용할 것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평생학습이 국내의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와 교육시장의 변화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한다. 특히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평생학습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기존의 통계자료를 재분석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와 평생학습 참여율을 분석한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나 여건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참여율과 관련된 자료들을 결합하여 시계열 분석 및 국제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전문가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평생학습 정책과 향후 방향을 확인하며, 평생학습 성과 분석의 의미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 방법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향후 연구 중요성을 공유할 것이다.

## 제 2 장 평생학습과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김미숙

### 제1절 평생학습의 의미와 목적

#### 1. 평생학습의 개념

##### 가. 평생학습의 정의

평생학습의 개념은 대상과 목적, 연구자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유럽연합에서는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하나는 학습이 인간 생애의 학령기 이전부터 정년퇴직 이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생애적 관점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에 있어서 공식적, 비공식적, 그리고 무형식적 학습이라는 모든 학습의 범주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평생학습을 폭넓게 인식함으로써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첫째는 평생학습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의 고용가능성 및 직업경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평생학습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집단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화 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평생학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2002년 의결에서 EU 위원회는 “교육과 훈련은 사회적 통합, 적극적 시민의식, 개인적 그리고 직업적 성취, 적응력과 고용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라고 평생학습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이해는 교육과 학습에 대한 책임이 공공부문인 국가로부터 개인뿐만 아니라 비정부 조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유럽 국가에서의 교육 정책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은퇴 후 교육에 이르기 까지 정책적 우선순위를 평생학습에 두고 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관련 통계 자료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오늘날 제도적 상황이나 이를 활용하는 개인, 지역, 사회, 국가의 특성이 서로 다르더라도, 세계 각국의 정부는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생학습과 교육훈련에 관한 용어와 개념은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국가 사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1). 2000년 이후 유럽연합과 OECD는 평생학습을 단일 정책 목표만이 아닌 모든 교육 정책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체계로서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chemmann, 2007, pp.77~78). 이러한 정책 변화는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학습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체 교육과 능력개발 체계를 중심으로 생애(lifelong)에 걸쳐 전사회적(lifewide)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기구에서 평생학습 혹은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여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온 평생학습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최상덕, 2007). 최상덕은 현재의 평생학습

은 1980년대까지 UNESCO와 일부 교육학자들 중심으로 논의되던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개념으로 형식(정규) 학습은 물론 직업세계와 생활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무형식 학습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평생학습사회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양한 학습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의 사용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승보·이주호(2007)는 통합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개념 상의 혼란들을 바로잡고 개념 정의부터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평생학습의 강화가 곧 고용과 복지 등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평생학습을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평생학습에 대한 이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은 연구하는 학자나 상황에 따라 특정한 분야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예컨대 개인의 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중에서도 직업능력개발이나 직무관련 교육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한다든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할 경우에는 성인교육이나 성인학습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 측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서 평생학습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생학습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적용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2007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에서는 평생학습실태 조사를 위한 평생학습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 조사에서

는 평생 학습의 범주를 Eurostat(2005<sup>3)</sup>)의 개념 및 정의를 따름으로써 OECD 회원국과의 평생학습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Eurostat에서는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을 무형식학습과 구분하는 기준을 '교수 과정에 의한 학습(taught-learning)'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직화된 교수활동 중에서 국가 학력체계(NFQ: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 안에 포함된 과정, 즉 '국가인정 체제'로서 모종의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는 것을 형식교육이라고 본다. 흔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교교육(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의미한다. 비형식교육이란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한다.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으로서, 사설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학력보충교육, 일터나 연수원에서의 직업교육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설 교육기관(학원), 평생교육시설, 문화센터 등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비형식교육' 범주로 축소되어 있다. 아울러, 무형식학습은 교수자에 의해 계획되거나 인도되지 않고 강의에 의존하지도 않는 자기학습(self-learning)을 말한다. 의도성은 있으나 조직화되지 않고, 구조를 갖추지 않는 형태의 학습으로, 가족, 직장, 그리고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또는 가족이나 사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한국의 성인 평생학습 실태 조사에서는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 영역을 평생학습으로 간주하였으나 평생학습 참여율에서는 유럽과 같이 무형식 학습 영역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평생학습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학습사회에 대한 다양성과 광범위성을 기반으로, 선진국에서의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의 연구 범위를 정의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의 일반적 개념하에서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평생학

3) Eurostat(2005), Task force report on adult education survey

습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적 혹은 국제적 조사에서 적용하였던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받아들여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기존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국가 혹은 국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조사는 평생학습이 가시적이며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대상과 조사 범위가 국가별 혹은 목적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평생학습 관련 자료들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일치시키는 점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서의 평생학습의 개념을 기존의 국제 조사 범위에 한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과 유럽통계기관,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조사에 기반하여 평생학습의 범위를 제한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조사는 유럽의 통계조사에서의 범위와 동일하며, 여기서의 평생학습 참여는 2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성인이 참여한 모든 교육으로서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매체를 통한 교육 등의 다양한 학습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 나.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 모형

OECD의 평생학습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평생학습이 정책적으로 중요해진 것은 교육과 훈련 정책이 형성되고 결정되는 경제, 사회적 상황의 급속한 변화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는 시장의 탈규제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금융시장의 세계화가 상호 연관되면서 박차가 가해졌다(OECD, 1996).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90년대 이후 평생학습이 세계적으로 주요 정책 이슈가 되어 왔는데, 그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 경쟁력의 강화와 사회복지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교육, 훈련이 국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지식기반경제, 정보사회의 도래에 부응하기 위

한 산업 및 고용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지속적인 재교육과 재취업 훈련이 요구되었다. 셋째, 세계화와 시장 경제의 확대에 의해 사회적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러한 평생학습은 궁극적으로 학습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erry Hyland, 1999). 학습사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국의 교육학자 Young은 학교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학습 모델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공교육 모델(The schooling model)이다. 이것은 가능한 교육의 최소 수준을 확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교육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공교육의 의무교육 연한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학교교육 중심의 모델은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기존의 개념화된 교육 목적에 의존하여 이를 이원화하는 교육적 결함을 갖고 있다. 또한 교육의 비용이 가난한 사람이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거나, 직장 연수나 무형식학습과 같은 다른 다양한 학습 유형과의 연계도 불완전한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모델은 자격중심 모델(The credentialist model)이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격조건이나 승인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들이 획득한 자격이 미래 고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법은 1980년대 새로운 직업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영국에 도입되었다. 이것의 단점은 실질적인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자격증(credential)과 증명서(certificates)가 더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모델은 접근성 모델(The access model)이다. 이 모델은 의무교육 단계 이후의 학습이 점차적으로 학교나 대학과 같이 특화된 교육 기관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의 학습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을 도모하며(Tooley, 1995) 신자유주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 접근법의 가장 큰 약점은 지식, 기술, 다양한 자

원 등에 대한 무한한 능력을 추구하는 것을 이와 관련된 개인의 학습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기동기화된 학습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다는 유토피아적 사상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위의 학습에 대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한 Young은 이 중에서 '접근성 모델'을 중심적 접근법으로 고려하였다. 그는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그리고 개인 즉, 근로자가 학점 이수를 통해 기업의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숙련된 기술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개인의 실제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볼 때, 평생학습은 학습을 위한 접근성 모델을 중심으로 공교육 모델과 자격 중심 모델이 통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령에 따라 의무교육 이후의 계속교육은 평생학습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백하게 대학의 평생학습 중심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즉,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서 평생학습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초등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교육에 대하여 현재 개발되고 있는 평생학습의 근거가 되고 있다(Hillman, 1997).

이와 같이 평생학습과 학습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정의는 이념적 지향성이나 이를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목적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평생학습은 기존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특징을 수용하게 되었다. 즉, 평생학습에서의 학습은 정규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개념으로 형식적 학습은 물론, 직업세계와 일상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무형식학습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

## 2. 평생학습의 목적

이론적 측면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의한 것과 아울러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Aspin & Chapman, 2001). 여기서는 평생학습의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 가. 고용능력과 경제성장

평생학습은 고용능력과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평생학습이 일상적 생활을 위한 일반 능력과 직업세계에서의 구체적 실행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지식과 기술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능력들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직업적 책임을 정확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과업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신기술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더 잘 교육받거나 더 높은 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더 우수하고 발전적이며, 따라서 경쟁적인 경제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이와 같은 개인의 경제적 필요성보다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국가들은 모두를 위한 학습이라는 관점에 따라 평생학습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그들의 미래의 시민들이 지식경제사회 속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OECD, 1992). 이것은 지적 혹은 인지적 능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컨대 의사소통능력이나 수리능력, 컴퓨터능력, 연구능력과 학습하기 위한 학습, 팀 구성과 상호협력, 인간관계, 판단과 분별력, 상상력과 창의력 등을 포함한다. 각 국가는 이런 기술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것의 목적은 일반 시민들이 전 생애를 통하여 학습 기회를 위한 통합적이고 다면적인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 삶의 모든 단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나. 개인의 성장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성장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도 포함한다. 평생학습을 위한 경제적 정당성은 두 가지 가정, 즉 '평생교육은 지속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이다', 그리고 '평생학습의 목적은 경제와 관련된다'는 것에 의해 정당화된다. 하지만 최근 이런 접근법은 재평가되고 있다. 개인의 성장을 경제적 목표 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협의로 본 개념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다른 접근법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으로 평생학습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것은 평생학습에 참여한 사람들을 어떤 곳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양한 다른 관점들을 경험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Peters, 1965). 이것은 평생학습을 통해 사람들이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더 향상된 관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평생학습에 의해 제공된 교육 경험이나 인지적 성취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계속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평생학습에 대한 다른 관점, 유형, 형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촉진하는 사회 집단에 의해 신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적 형태의 교육 기관이나 학교를 통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을 위해 지

역사회는 평생학습에 참여한 사람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평생학습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개인의 활동과 지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생학습은 경제적 향상을 위한 생산적 존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인지적 활동의 확대와 기술과 능력 향상을 위해 삶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활동인 것이다. 개인과 사회의 복지는 평생학습 참여와 그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보호되며 촉진되어진다.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Smethurst는 평생학습에 대해 교육은 공공의 선인가 사적인 선인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에 대해 둘 중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어떤 교육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어떤 교육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어떤 교육은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반면 어떤 교육은 개별 학습자의 이익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은 공급과 수요의 양과 유형에 영향을 받으면서 양 극단 사이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사회는 교육을 통해 최종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며, 또한 개인은 사회적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이다(Smethurst, 1995, pp.44). 이처럼 평생학습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공공의 선이라 할 수 있다.

#### 다.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

평생학습은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모든 사람의 삶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선행조건이다(Grace, 1994; McLaughlin, 1994; Smethurst, 1995). 교육과 더불어 복지, 법과 질서, 주거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화되고 실현 가능하며 실제 작동하는 하부 구조를 구성한다. 아울러 이러한 것들은 상호 협조적이고 통합적이고 정의로운 참여적 민주주의의 적극적인 삶을 위한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공공의 선으로서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사회 통합적 민주사회를 위한 교육자들은 평생학습을 공공의 선으로 주장한다(Riche sin the Grass · Nordic Council of Ministers, 1995).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보건이나 복지 서비스와는 다르게 교육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은 시민의 삶과 공유를 위한 민주사회의 본질이며 양질의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개인이 평생학습을 통해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준비가 된다면 민주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은 참여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를 위한 공공의 선으로서 교육의 개념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상호 이익 공유를 위한 책임은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위해 필요한 관점으로 기본이 된다. Tawney(1938)는 성인교육에의 참여는 민주주의 제도의 참여를 위한 선행조건이자 계속적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미래의 시민을 위해 양질의 지식, 이해, 의사소통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평생학습 과정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수단을 제공해 주며,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 라. 평생학습의 목적과 성과 분석 대상

위에서 언급한 평생학습의 세 가지 목적인 고용능력과 경제성장, 개인의

성장,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은 상호 교환적이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평생학습의 목적 달성은 이 세 가지 목적이 분리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들은 상호 교류하면서 교환적으로 촉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개인이 더 많은 교육을 받으면 높은 수준의 기술을 지니게 되고 이것은 국가의 인력 양성을 통한 경제발전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의 의미와 가치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과정으로 보여야 한다. 그것은 학교 이전에 시작하며,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이후의 형식교육과 훈련을 통해 진행되며, 그리고 삶을 통하여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더 일관성을 지닌 상태에서 결합하여야 하며, 보다 더 협력적으로 통합하여야 하고,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학습에 대한 접근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평생학습은 사회통합, 정의, 평등의 원칙과 이상을 추구하고, 강하고 적응력 있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가져오며, 그들이 제공하는 보상과 만족을 통해 개인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이 개인 삶의 질을 강조하는 평생학습,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평생학습,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평생학습을 지향한다. 이것은 UNESCO, OECD, EU에서 성인기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3대 정책이념인 자아실현(개인발달), 고용가능성, 사회적 포용(적극적 시민정신)과 일치한다. 즉 제2차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에서 언급하였듯이 영역의 구분보다는 평생학습사회를 지탱하는 3대 축으로서 '개인의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시민사회의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의 목적에 접근할 것이다.

## 제2절 우리나라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 현황<sup>4)</sup>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은 제2차 평생학습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의 패러다임은 창조적인 일터 안의 학습조직과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동향이다. 평생학습 종합계획에서는 평생학습사회의 3대 축으로 자아실현, 개인의 평생고용 가능성, 시민사회의 사회적 포용 증진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평생학습의 목적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적 지식 근로자의 육성이다. 즉 지식을 기반으로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가 바뀌어 가는 데 대응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창조적 지식 근로자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을 통한 관용 및 포용 사회의 실현이다. 사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위험뿐 아니라,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새로 대두되는 위험을 찾아내고 이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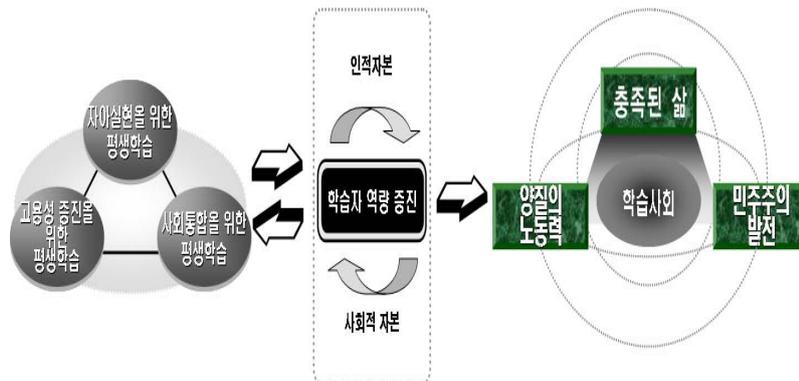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보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충족된 삶, 양질의 노동력 창출, 민주주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한국의 평생학습 관련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2007.12)의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8 - 2012)과 교육과학기술부(2008. 12)의 ‘2008 평생교육백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2-1> 평생학습의 3가지 목적과 정책영역

구분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사회통합 증진
필요성	개인의 성장, 인간의 잠재력 계발과 삶의 질 향상	경제적 경쟁력 확보가 개인 삶의 기회와 질을 결정하므로, 생애에 걸친 고용가능성 증진 필요	사회 결속, 시민성 증진을 통하여 '포용적 사회'(Inclusive Society), '시민 사회'(Civil Society) 형성에 기여
정책 영역	문해교육 등 성인기초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개발	시민교육 지역사회교육
세부 영역	생애설계 취업·진로교육, 제2인생설계 준비교육, 은퇴 후 생애설계교육, 생애정리교육, 기본생활 적응교육, 노후대비교육, 건강교육, 노후 건강관리교육	직무기초능력교육, 직업윤리교육, 직무능력 전문화교육, 제2직업준비교육, 창업·전직·전업준비교육,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노후 커리어 관리교육	부모역할교육, 자녀교육, 가족갈등해소교육, 세대 간 통합교육, 지역사회 참여교육, 사회봉사활동교육, 사회관계 개선교육

[그림 2-1] 평생학습과 학습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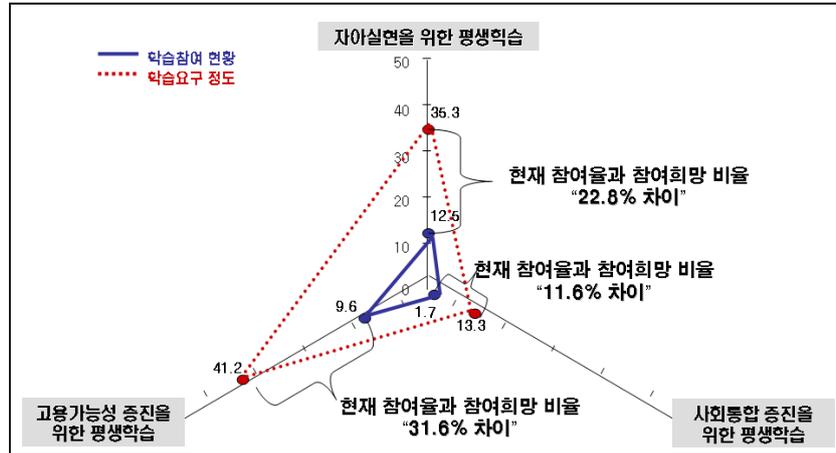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12),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19쪽.

## 1. 우리나라 평생학습 정책 및 참여 현황

우리나라 평생학습 정책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적 지식 근로자 육성이다. 이는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가 지식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창조적 지식 근로자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는 평생학습을 통한 관용 및 포용사회 실현이다. 평생학습을 통하여 지식경제의 그림자인 새로운 위험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으로 교육부장관 소속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 평생교육 전달체제 재편 및 학습결과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평생학습 정책의 참여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 영역별 참여 현황을 보면,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 중 자아실현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12.5%, 고용가능성 증진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9.6%,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율 1.7%이다. 둘째, 평생학습 영역별 참여 요구 현황을 보면, 참여요구는 고용가능성 증진 분야 41.2%, 자아실현 분야 35.3%, 사회통합 관련 분야 13.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 평생학습의 참여 실태와 수요 분석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8-2012).

- 1)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 교양 문화관련 학습, 여가선용 교육, 어학교육 등
- 2) 고용가능성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 취업,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훈련
- 3)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 시민교육, 사회참여교육

이러한 상황을 보면,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사회통합 증진’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 현황과 향후 참여 요구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평생학습 정책 목표별 성과 지표

정부는 평생학습에 있어서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목표별로 추진과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과지표에서 첫 번째 목적인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의 성과 지표와 목표는 다음과 같다.

&lt;표 2-2&gt; 창조적 학습자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추진 과제	성과지표	'06년	'12년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통한 성인전기·성인중기평생학습의 내실화 추진	권역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정 운영 수	2개 ('08년)	15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후기 학습의 구체화	성인후기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35개	200개
전문대학을 활용한 일터-학습 연계 강화	전문대학 재학 26세 이상 성인학습자 비율	12.3%	14.0%
재직자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계학원 활용 극대화	학점은행 평가인정 프로그램 수	769개	1,100개
지역사회 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초·중등)」 사업 추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참여 학교 수	100개 ('07년)	700개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활성화	군 학점은행 평가인정 프로그램 수	46개	110개

두 번째로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와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다.

&lt;표 2-3&gt;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추진 과제	성과지표	'06년	'12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3,399명	12,000명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신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안전망 구축·운영	신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6개	150개
문해교육 등 성인 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14,668명	50,000명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기관 수	123개	300개
중앙-지역 단위별 평생교육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도시 주민만족도	63.5% (33개 도시)	78.5%

셋째,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와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4>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와 목표

추진 과제	성과지표	'06년	'12년
평생학습 추진 체계 개편 및 정책 조정 역량 강화	중앙-지방 전담추진기구 (평생교육진흥원 등) 통합·개편	3개 기관 분산 운영	진흥원으로 통합 개편 운영 정착
평생교육 전담 인력의 직업적 전문성 확보 및 배치 실질화	평생교육시설 등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수	985명 ('07년)	1,500명
평생학습도시 확산 및 내실화 추진	평생학습도시 수	57개	110개
평생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가평생교육정보망으로서 「국가평생학습지도」 구축	평생교육정보망 (국가평생학습지도) 연간 이용자 수	313,000명	1,100,000명
국가자격체제와 학습계좌제의 연계로 교육훈련-자격-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능력사회 구현	국가자격의 학점은행제 인정 수	567개	650개
국제 파트너십 구축과 평생학습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	평생학습 관련 국제회의 참여 및 개최	3회	15회
즐거운 학습문화 확산을 통한 평생학습의 내재화 및 생활화	광역 및 기초단위 평생학습축제 개최 실적	25개 ('05년)	50개

### 3. 중점 추진과제 및 재정투자

평생학습 정책별로 추진과제를 보면 2008년 현재 약 18여 개의 주요 추진과제가 목표별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이 수립되었다.

## 가. 정책영역별 주요 추진과제

&lt;표 2-5&gt; 정책 영역별 주요 추진과제

정책 영역	주요 추진 과제
I. 창조적 학습자 육성을 위한 평생 학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통한 성인전기·성인중기 평생학습의 내실화 추진</li> <li>2.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후기 평생학습의 구체화</li> <li>3. 전문대학을 활용한 일터-학습 연계 강화</li> <li>4. 재직자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계학원 활용 극대화</li> <li>5. 지역사회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초·중등)」 사업 추진</li> <li>6.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활성화</li> </ol>
II.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li> <li>2.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신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안전망 구축 운영</li> <li>3. 문해교육 등 성인 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li> <li>4.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li> <li>5. 중앙-지역 단위별 평생교육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li> </ol>
III.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학습 추진 체제 개편 및 정책 조정 역량 강화</li> <li>2. 평생교육 전담 인력의 직업적 전문성 확보 및 배치 실질화</li> <li>3. 평생학습도시 확산 및 내실화 추진</li> <li>4. 평생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가평생교육정보망으로서 「국가평생학습지도」 구축</li> <li>5. 국가자격체제와 학습계좌제의 연계로 교육훈련-자격-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능력사회 구현</li> <li>6. 국제 파트너십 구축과 평생학습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li> <li>7. 즐거운 학습문화 확산을 통한 평생학습의 내재화 및 생활화</li> </ol>

## 나. 재정투자 계획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3,359억 원 소요(기존 사업의 확충 및 신규 사업 개발 등)될 예정이다. 이 중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 1,479억,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 659억, 그리고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1,221억이 예상된다.

&lt;표 2-6&gt; 창조적 학습자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

(단위: 백만 원, %)

영역	'07년	계 ( '08~'12)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I. 창조적 학습자 육성	6,827 (35.3%)	147,986 (44.1%)	9,681	20,707	30,466	38,766	48,366
II. 사회 통합 지원 확대	3,300 (17.1%)	65,880 (19.6%)	3,630	7,850	14,000	18,800	21,600
III.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9,220 (47.7%)	122,080 (36.3%)	15,230	20,700	24,850	28,000	33,300
총계	19,347	335,946	28,541	49,257	69,316	85,566	103,266

주요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국비와 지방비,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투자로서 소요 재정 분담으로 국비(일반회계), 지방비(특별교부금 등), 민간 등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재정 투자이다. 다음은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연차별로 지속적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lt;표 2-7&gt;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 관련 예산의 지속적 확대 계획

(단위: 억 원, %)

구분	연도별 투자규모						비고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 교육부 예산(A)	305,947	354,866	376,950	403,030	439,323	481,058	(A)는 중기재정 계획에 따른 추정치임
○ 평생교육 관련(B) (B/A=%)	193 (0.06)	285 (0.08)	492 (0.13)	693 (0.17)	855 (0.19)	1,032 (0.21)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평생학습 관련 정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고용능력과 개인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사회의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창조적 학습자의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3절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조사

#### 1. 국제 평생학습조사 관련 자료

선진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에 대한 조사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EUROSTAT의 AES(Adults Education Survey)는 평생학습에 대한 EU 통계의 일부분이다. 이 조사는 EU 국가에 대해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실시되었다. EU AES는 시범 실시된 것이며, 참여 국가의 절반 정도로부터 획득된 AES 자료는 2008년에 배포되었고, 나머지는 2009년 중간에 배포되었다. 이 조사는 교육과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에 관한 것으로 직무관련 활동, 학습 활동의 특성, 사회문화적 참여에 대한 모듈뿐만 아니라 자기보고식 기술, 외국어 기술, IT 기술, 그리고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배경 등을 포함한다. 주요 변수는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에서의 참여,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점, 교육학습의 영역에서 형식, 비형식, 무형식학습 활동의 참여, 직무관련 비형식 학습의 공유,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시간, 학습 비용과 사업주 지원, 언어 및 정보통신 기술 모듈, 사회문화적 참여 모듈에 관한 것이다. 통계의 단위는 개인과 학습활동이며, 참여 국가별로 몇 가지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상 집단은 가구원인 모든 개인이며, 목표 집단은 25~64세 사이의 성인이다. 샘플 규모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최소 2,287명(라트비아)에서 최대 2,7848(이탈리아)명에 이른다. 기준 연도는 2007년을 중심으로 18개의 국

가마다 다양하다.

<표 2-8> 2007년 유럽의 성인 교육훈련 참여율

구분	전체	형식적 교육훈련	비형식적 교육훈련
Bulgaria	36.4	2.7	35.2
Germany	45.4	5.2	43.1
Estonia	42.1	5.0	40.2
Greece	14.5	2.3	12.7
Spain	30.9	6.0	27.2
France	35.1	1.7	34.1
Italy	22.2	4.4	20.2
Cyprus	40.6	2.9	39.5
Latvia	32.7	5.4	30.7
Lithuania	33.9	6.3	30.9
Hungary	9.0	2.5	6.8
Austria	41.9	4.2	39.8
Poland	21.8	5.5	18.6
Slovakia	44	6.1	41.2
Finland	55	10.2	51.2
Sweden	73.4	12.7	69.4
UK	49.3	15.1	40.3
Norway	54.6	9.9	50.6

자료: EUROSTAT(2008), AES(Adults Education Survey).

주: 독일은 1991년부터 동독을 포함.

EUROSTAT의 Lifelong Learning(LL) database의 대상 집단은 25~64세의 모든 가구원이 대상이다. 이 모듈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평생학습의 참여와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EU Labour Force Survey(LFS)에 대한 부가조사(ad hoc module)로서 2003년에 수행되었다. EU LFS에서의 한계는 부가조사에서의 평생학습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포함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LLL ad hoc module 통계는 유럽의 통계 체계의 통합적 부분이다. 따라서 LLL통계에 적절한 분류는 유럽통계체계 영역에서 사용된 다른 분류와 완전하게 유사하다. 경제활동 분류는 NACE Rev

1.1에 따르며 교육의 수준과 영역은 ISCED와 ISCO에 따른 직업에 의해 분류된다. 통계적 개념과 정의는 EU 정의에 따른다. 여기서 평생학습은 지식과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는 형식적이거나 비형식적인 모든 의도적 학습 활동을 포함한다. 학습의 의도와 목적은 학습 활동을 학습 활동이 아닌 것(문화 및 스포츠 여가 활동)과 구분하는 중요한 관점이다. 특히 비형식학습을 논의할 때 중요하다. 부가 조사에서 사용된 개념은 2001년 평생학습 측정을 위해 구성된 Eurostat Task Force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과 정의에 대한 논의를 채택한다. 부가조사 모듈에서 사용된 핵심 개념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형식적 교육과 학습(지표에는 형식교육으로 언급)은 학교, 대학, 전문대학의 정규 체계에서 행해진 교육과 훈련에 대응한다. 무형식적 교육과 훈련(지표에서는 무형식교육으로 언급)은 형식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모든 형태의 학습을 포함한다. 비형식학습은 형식교육훈련과 무형식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은 자기 학습에 대응되는 것으로 인쇄매체를 사용하든지 학습과 훈련을 위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든지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방문하거나 오디오나 비디오, 교육방송 등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참여 정도는 학습 활동에서 교육 받은 시간이나 기간에 대응한다. 교육적 성취는 성공적으로 이수한 수준으로 자격증이나 졸업증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다. 어떤 인정서도 없는 경우에 성공적인 이수는 출석률과 관련된다. 가장 높은 수준을 결정할 때 일반교육훈련이나 직업교육훈련이 고려된다. 교육성취의 3가지 수준은 상중하로 구분된다. 부가조사 대상인 집단도 LFS에 의해 포함된 전체 대상과 같다. 그러나 결과는 이 영역에만 표시된다. LLL은 EU 25개 국가 및 몇 개의 북유럽 국가와 동유럽 국가를 포함한다. LLL에 대한 부가조사는 2002년에 위원회 규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2003년 평생학습에 대한 부가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때의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질문은 15세 이상의 모든 연령 해당자에게 행해졌으며, 그 질문은 “Did you attend any courses, seminars, conferences or

receive private lessons or instructions outside the regular education system within the last 12months?”이다. 아울러 참여한 목적은 ‘1. 주로 직무관련 이유’, ‘2. 주로 개인적/사회적 이유’, 그리고 ‘9. 해당 없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LLL 부가조사는 2003년도에만 해당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시계열 분석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년도의 평생학습 실태와 성과를 국제 비교차원에서 분석할 경우, 이 자료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LFS(Labour Force Survey)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EURO지역(33개국 대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조사하였다. EU LFS는 개별 가구원 모두를 포함한다. 인구학적 자료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조사되는 반면, 노동시장 상태에 관한 사항은 15세 이상으로 응답자를 제한하였다. 평생학습 참여와 관련된 LFS의 핵심 변수는 교육과 훈련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지난 4주간 정규 교육을 받은 경험여부(형식교육)와 교육훈련 수준, 그리고 지난 4주간 학습활동(비형식교육) 참여여부와 모든 학습활동에 사용된 시간이 포함되며, 가장 최근의 학습활동의 목적, 영역, 근로시간에 참여한 학습활동 여부 등은 선택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에 관한 사항은 “During the past 12 months, have you participated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with the intention improving your knowledge or skills in any area(including hobbies)? 1. Lesson or course either practical and theoretical including classroom?, 2 Courses conducted through open and distance education? 3. Seminars or workshops?, 4. Guided on the job training? 5. None of these?”와 같이 질문되었다.

&lt;표 2-9&gt; 노동력 조사(LFS)-연도별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율

geo\time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U(27개국)	:	:	:	:	<u>7.1</u>	<u>7.1</u>	7.2	<b>8.5</b>	9.3	9.8	9.7	9.5
EU(25개국)	:	:	:	:	<u>7.5</u>	<u>7.5</u>	7.6	<b>9.0</b>	9.8	10.3	10.2	10.0
EU(15개국)	:	:	:	<u>8.2</u>	<u>8.0</u>	<u>8.0</u>	8.1	<b>9.8</b>	10.7	11.3	11.2	10.9
Euro area	5.1	5.1	:	<u>5.6</u>	<u>5.4</u>	<u>5.2</u>	5.3	<b>6.5</b>	7.3	8.2	8.2	8.4
Belgium	2.9	3.0	4.4	<b>6.9</b>	<i>6.2</i>	6.4	6.0	7.0	<b>8.6</b>	8.3	<b>7.5</b>	7.2
Bulgaria	:	:	:	:	:	1.4	1.2	1.3	1.3	1.3	1.3	1.3
Czech	:	:	:	:	:	:	5.6	<i>5.1</i>	5.8	5.6	5.6	5.7
Denmark	18.0	18.9	19.8	19.8	<b>19.4</b>	18.4	18.0	<b>24.2</b>	25.6	27.4	29.2	29.2
Germany	5.7	5.4	5.3	5.5	5.2	5.2	5.8	<i>6.0</i>	<i>7.4</i>	7.7	7.5	7.8
Estonia	:	4.3	6.3	6.5	<b>6.5</b>	5.4	5.4	6.7	6.4	5.9	6.5	7.0
Ireland	4.8	5.2	:	:	:	:	5.5	<b>5.9</b>	6.1	7.4	7.3	7.6
Greece	0.9	0.9	1.0	1.3	1.0	1.2	1.1	<b>2.6</b>	1.8	1.9	1.9	2.1
Spain	4.4	4.4	4.2	5.0	<b>4.1</b>	4.4	4.4	4.7	4.7	<b>10.5</b>	10.4	10.4
France	2.7	2.9	2.7	2.6	2.8	2.7	2.7	<b>7.1</b>	7.1	7.1	7.6	7.4
Italy	4.1	4.6	4.8	5.5	<b>4.8</b>	4.5	4.4	4.5	<b>6.3</b>	5.8	6.1	6.2
Cyprus	:	:	:	2.6	3.1	3.4	3.7	<b>7.9</b>	9.3	<b>5.9</b>	7.1	8.4
Latvia	:	:	:	:	:	:	7.3	7.8	8.4	7.9	6.9	7.1
Lithuania	:	:	:	3.9	2.8	3.5	<b>3.0</b>	3.8	<b>5.9</b>	6.0	4.9	5.3
Luxembourg	2.9	2.8	<b>5.1</b>	5.3	4.8	5.3	7.7	<b>6.5</b>	9.8	8.5	8.2	7.0
Hungary	:	2.9	3.3	2.9	2.9	2.7	2.9	<b>4.5</b>	4.0	3.9	3.8	3.6
Malta	:	:	:	:	4.5	4.6	4.4	4.2	<b>4.3</b>	5.3	5.4	6.0
Netherlands	12.5	12.6	12.9	13.6	15.5	15.9	15.8	<b>16.4</b>	16.4	15.9	15.6	16.6
Austria	7.9	7.8	:	9.1	8.3	8.2	7.5	<b>8.6</b>	<i>11.6</i>	12.9	13.1	12.8
Poland	:	:	:	:	:	4.3	4.2	4.4	<b>5.0</b>	4.9	4.7	5.1
Portugal	3.4	3.5	<b>3.1</b>	3.4	3.4	3.3	2.9	3.2	<b>4.3</b>	4.1	<b>4.2</b>	<b>4.4</b>
Romania	:	0.9	1.0	0.8	0.9	1.0	1.0	1.1	<b>1.4</b>	1.6	1.3	1.3
Slovenia	:	:	:	:	:	7.3	8.4	<b>13.3</b>	16.2	15.3	15.0	14.8
Slovakia	:	:	:	:	:	:	8.5	<b>3.7</b>	4.3	4.6	4.1	3.9
Finland	16.3	15.8	16.1	17.6	<b>17.5</b>	17.2	17.3	<b>22.4</b>	22.8	22.5	23.1	23.4
Sweden	26.5	25.0	:	25.8	21.6	<b>17.5</b>	18.4	<b>31.8</b>	32.1	<u>33.4</u>	<u>32.0</u>	<u>32.4</u>
UK	:	:	:	19.2	<b>20.5</b>	20.9	21.3	<b>27.2</b>	29.0	27.6	26.7	<b>20.0</b>
Croatia	:	:	:	:	:	:	1.9	1.8	1.9	2.1	2.9	2.4
Turkey	:	:	:	:	1	1	1	1.2	1.1	1.9	1.8	1.5
Iceland	15.7	16.5	19.3	20.2	23.5	23.5	24.0	<b>29.5</b>	24.2	25.7	27.9	27.0
Norway	16.5	16.4	:	:	13.3	14.2	13.3	<b>17.1</b>	17.4	17.8	18.7	18.0
Switzerland	29.5	29.8	33.3	31.1	34.7	37.3	35.8	<b>24.7</b>	28.6	27.0	22.5	26.8

주: =Not available  
e=Estimated value  
b=Break in series  
i=See explanatory text  
p=Provisional value  
u=Unreliable or uncertain data

## 2.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조사 관련 데이터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7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의 전체 표본 조사구에서 252개 조사구를 추출하여 각 조사구별로 할당된 가구(2,249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 틀로는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조사구 명부를 활용하여, 만 25세 이상 64세 이하 가구원 3,618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 면접하는 개별방문면접조사를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치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가구 구성원 전수 조사를 위해 2~3회 가구 방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추출된 조사구 내의 전 가구에 대해 contact history를 기록하도록 하여 분석단계에서 가구 추출률 및 유효가구 수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표본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중치임). 조사는 2007년 8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한국의 25~64세 성인의 형식/비형식 평생학습 참여율은 29.8%였다. 조사 대상 참여 프로그램은 목적별로 취업직무능력, 교양문화, 시민교육 사회참여, 취미/여가, 어학/정보화, 성인기초 문해교육, 기타로 구분하였다. 성인의 학습 참여에 대한 사항은 “○○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학교나 대학의 학위과정을 제외한 여타 교육기관(직업훈련이나 학원, 문화센터,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습, 강좌, 연수, 워크숍 등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이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직업관련 훈련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인의 직업관련 훈련 참여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lt;표 2-10&gt;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

구 분		1996	2000	2004	2007	2008
평생학습 참여율	전체참여율(%)	17.4	17.2	21.6	29.8	26.4
직장연수	참여율(%)	9.1	7.8	10.8		43.3
	평균 교육일수		11.9	9.9		7.70
학원수강	참여율(%)	3.5	3.6	4.1		16.0
	평균 교육일수		74.3	73.5		15.42
교양강좌	참여율(%)	3.1	3.3	4.6		28.8
	평균 교육일수		24.3	27.9		18.85
직업훈련	참여율(%)	2.2	2.1	2.1		14.1
	평균 교육일수		20.9	19.5		3.92
TV 및 라디오 인터넷 강좌	참여율(%)	3.8	3.7	4.6		16.4
	평균 교육일수		25.9	37.7		11.65
기타	참여율(%)	0.4	0.4	0.3		2.0
	평균 교육일수		21.5	16.6		1.24

자료: (1) 1996년 참여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에서 재인용.

(2) 2000, 2004년, 2008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3)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주: 1) 평생학습 참여율은 만 15~64세 성인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비율이며, 2007년의 경우에만 25~64세 연령에 해당함.

2) 통계청은 2008년 평생학습관련 항목을 공개하지 않으며, 2007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하는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통계청이 승인하여 국가 평생학습 관련 통계로 활용함.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하는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평생학습 관련 항목은 기존의 통계청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2-11&gt;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율 비교

구분	2007	2008
전체참여율	29.8	26.4
형식교육	5.7	4.1
비형식교육	26.4	23.9
취업/직업능력	9.2	11.7
교양문화관련	5	3.6
시민교육	0.7	1.2
취미/여가/스포츠	12.9	11.2
성인기초	0.2	0
기타	0.4	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각 연도.

주: (1) 만 15~64세 성인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비율

(2) 전체 참여율 : 형식교육 참여율과 비형식교육 참여율을 포함(관련자료 참고)

(3) 비형식교육 : 취업/직업능력, 교양문화관련, 시민참여, 취미/여가/스포츠, 성인기초, 기타

(4) 업데이트 시기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조사 실시(2009년 12월 업데이트 예정)

이상에서 평생학습 참여율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구성을 고려하여,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와 유럽의 LFS를 주요 핵심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 자료로 활용하며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것이다.

&lt;표 2-12&gt; 국제 평생학습 참여율 자료 특성

Eurostat	AES (Adults Education Survey)	EURO	2007	Formal/non-for mal education and training	25~64	Participation r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by age groups
		EURO	2007	Formal/non-for mal education and training	level 0~6	Participation r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EURO	2007	Formal/non-for mal education and training	employment/ unemp/ inactive population	Participation r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by labour status
		EURO	2005	Formal/non-for mal education and training	25~64	Participation in any learning activities by age and sex
	LFS (Labour Force Survey)	EURO	1996 ~2007		25~64세	the four weeks prior to the survey
교육 과학 기술부	평생학습 참여율	Korea	2007, 2008	형식/비형식	25~64세	* 만 15~64세 성인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비율
통계청	사회통계조 사보고서	Korea	2000, 2004		연간 평생학습 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 제4절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관련요소

평생학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추진과제를 구체화하며, 현실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평생학습 지원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는 성과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성과 분석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평생학습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1.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

### 가. 개인적 수준에서의 경제적 성과

일반적으로 평생학습의 성과분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론적 틀은 생애주 기이다. OECD 회원국에서 개인의 전형적인 생애 주기는 졸업 이후 은퇴에 이르기까지 대략 42년을 노동 인력으로 산정한다. 이 기간 전체에 걸쳐 개인은 교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건강과 사회 참여, 그리고 장기근속을 포함하여 은퇴 후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과 같은 비경제적 이익도 있을 수 있다. Haveman & Wolfe(1984)의 논문에서는 외부성(externality)<sup>5)</sup>을 포함한 비경제적 이익을 수입의 증가분의 가치와 동등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Wolfe & Zuvekas(1997)의 논문에서도 이러한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하였다. 즉 개인의 생애 단계에서 공식적 교육을 확장한 형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성과로서 직접적 이익과 구조적·간접적 이익, 그리

5) 외부성(externality): 시장이 언제나 혼자서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 보통 시장실패는 넓은 범주에서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이다. 시장에서의 활동이 시장 밖의 주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효과를 외부성이라고 한다. 예컨대, 강 상류에서 공장이 폐수를 유출시키면 강 하류에 있는 과수원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때 공장의 활동이 제3자인 과수원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이걸 외부성의 문제이다. 이렇게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을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라고 한다. 반대로 시장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있다. 만약 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예쁜 정원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집을 지나가는 모두가 꽃 향기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다른 예로 기술 개발을 하면 모두가 그 기술을 이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외부성을 외부경제(positive externality)라고 한다.

고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성과와 관련된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 McMahon(1998)은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학습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의 측정을 위한 기초로서 가계 생산(household production)<sup>6)</sup>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가계 생산에는 인적 자본생산과 최종적 만족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가계 생산의 첫 번째 형태는 인적 자본이다. 이것은 Ben Porath(1967)에 의해 처음 개발된 것으로 개인의 시간이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를 지닌 공식 교육을 포함한다. 개인의 시간은 가족 구성원의 인적 자본에 의해 가중치가 부여되며, 시장 가치를 지닌 공식 교육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 핵심적 투입 요소이다. 두 번째 가계 생산 유형은 최종적인 만족이다. 최종적 만족 요소로 가족의 시간 활용과 여러 가지 시장형 상품(책이나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가족의 시간은 구성원 중의 중요 인적 자본에 의해 가중치가 부여되며, 대개 비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시간이다. 여러 가지 시장형 상품은 최종 만족을 위한 투입 요소이다. 결국 인적 자본은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여가시간과 은퇴 이후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최종 만족은 평생학습의 비경제적 이익을 확인하여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베커(Becker, 1965)는 이 두 개의 가계 생산을 합해서 '총수입(full income)'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재무 자산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여야 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교육을 더 받을수록 더 높은 수입을 올리고, 이를 통해 더 좋은 건강관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의 경제적 이익의 부분일 뿐이다. 비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의 비경제적 산

6) 가정생산(household production):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에 가족원의 시간을 합하여 가족원의 만족을 직접 충족시켜 주는 생산 활동. 가족원이 가족원을 위해 무보수로 수행하는 활동.

출몰을 측정하기 위한 미시적 또는 통합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소득 수준별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각 소득 수준별로 회귀분석 방법 등을 통하여 분석한다. 여기서 하나의 설명 변수로서 소득을 포함함으로써 통제할 수도 있다(McMahon, 1998).

Ashenfelter & Rouse(1998)는 편차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교육과 같은 가계 생산의 인적자본은 세대 간의 교육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수한 형태의 학교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이익을 측정할 때 가정적 요인들이 통제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교육이나 평생학습에 대한 이익의 측정이 객관적일 경우, 그것의 일부를 세대 간 기여 부분으로 고려한다면 이를 통제할 필요는 없다(Haveman & Wolfe, 1984; Greenwood, 1997)는 것이다. 측정 오차에 의한 능력 일관성 유지는 평생학습의 비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이익에도 적용된다. (Jenkins & Vignoles, and et al(2003))은 평생학습의 결정요인과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개인의 경제적 결과로 고용가능성과 임금 수준을 보았으며, 평생학습 참여와 개인의 능력(자격)의 수준 파악과 아울러 지속적 평생학습 참여 가능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 분석에 대한 연구논문은 2000년 이후 주로 직업훈련 부문에서 개인의 취업능력제고 등에 관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정택수 외(2000)의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분석, 이병희(2000)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와 정책과제, 김주섭(2004)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평가 분석, 그리고 나영선 외(2007)의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중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가 있다. 평생학습과 노동시장을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이병희 외(2006)가 실시한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계조사(통계청, 2004)』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연도)』조사를 개인별로 연결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함으로써 실직, 직장이동, 자영업으로의 이동, 종사상 지위 간 이동 등 노동시장 성과경험별로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서 평생

학습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집단별로 분석한 것으로 평생학습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이처럼 평생학습과 관련된 성과분석은 개인의 경제적 차원에서 성과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 이슈이며, 따라서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평생학습의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나. 국가적 수준에서의 경제적 성과

일반 교육에 있어서 중·고등교육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박현정(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교육지표를 활용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지표로는 성인인구의 평균 학력수준, 기본적 학력 수준(PISA 읽기소양점수 등)과 1인당 교육비, 학위취득, 노동생산성을 보았으며, 공평성 분석은 공교육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GDP 대비 1인당 교육비 비율, 1인당 가계부담, 교육에 배정되는 정부예산 등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효율성과 공평성을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교육과 경제성장 관점에서 연구한 장수명(2004)의 연구는 대표적인 국가 경쟁력 모형인 IMD 모형과 포터 모형을 분석하고 이 중 교육지표들과 관련하여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분석한다. 특히 교육에서 경제성장 혹은 인적자본에서의 경제성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lt;표 2-13&gt; 경제모형과 교육 효과

구분		내용
교육 과 경제 성장	인적자본론	- 교육은 개인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높은 임금수준을 보장 -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제 성장 속도가 빠름.
	Catch-up 모형	- 선진국의 기술지식을 전수 받은 후진국은 선진국보다 빠른 생산성 증가 필요 - 분계효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모방과 체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수준 필요
	Learning by doing 모형	- R&D와 교육수준의 교차효과 존재 -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동력이 혁신기술을 쉽게 적용하여 효율성 증진함.

자료: 장수명(2004), 국가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60쪽.

Cohn & Addison(1998)은 OECD 국가에서의 평생학습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투자에 대한 short-cut, Mincer-type, internal rate와 공식적 훈련과 비공식적 훈련 투자에 대한 수익 추정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투자회수율을 보인 나라로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영국, 미국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이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는 국가 간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며, 학교 취학률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장수명(2004)의 연구를 활용하여 평생학습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일지는 모르겠으나 학령기 교육투자의 집중에 의한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여성이나 고령자가 선진국의 경제적 GDP수준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일 때를 가정해서 그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보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 2. 평생학습의 사회적 이익

성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익과 관련된 교육의 수익(returns)에 대해 정의하고 측정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새로운 내생적 성장모델과 실증검증을 결합한 확장된 Solow 모델이 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미시적 자료와 통합적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닌 비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익(benefit)을 측정하고 가치화하기도 한다. 개인의 비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인간의 삶의 질, 광범위한 경제 발전, 사회 복지의 중요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의 일부 비용은 공적인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더 나은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이익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이론적 구조와 이익에 대한 측정 및 평가에 관련된 실증연구를 다루고 있다.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 Behrman & Stacey(1997)와는 반대로 다양한 유형의 비경제적 이익과 모든 이에 대한 교육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이익에 대해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는 객관적인 측정과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된 결과를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의 경제적 이익과 중복되는 비경제적 이익에 대해 중복 계산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찰되지 않은 변수들로부터의 편의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에 있어서 개인의 다양한 비경제적 이익에 대한 정의와 측정, 평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McMahan(1998)은 사회적 발전을 위한 지식과 관련하여 비경제적 이익과 아울러 직·간접적인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측정 방법을 개발했다(World Bank, 1998). 이것은 Wolfe & Zuvekas(1997)의 최근 연구에 의한 것과 더불어 Haveman & Wolfe(1982)의 연구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 가. 개인적 수준에서의 비경제적 이익

평생학습의 비경제적 이익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가계 생산 함수를 사용하여 비경제적 결과(outcome)를 산출하는 것으로 교육 증가에 따른 한계 생산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평생학습의 비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분이다. 비록 개인이 교육에 대한 비경제적 이익이 무엇인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산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할지라도 산출물의 각각에 기여하는 한계 생산이나 전체 범주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평생학습의 비경제적 이익에 대한 측정, 가치 평가, 그리고 정보의 배포를 통해 평생학습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개입(intervention)은 효율성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몇 가지 효과는 평생학습을 위해 행해지고 있는 특화된 강좌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경제적인 효과일 수 있다. 첫째, 건강에 대한 효과로 영유아 사망률 감소, 낮은 질병 발생률, 평균 수명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정 내 인적 자본으로 자녀의 교육 향상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효율적 가정 관리로 재무 자산의 이익률 향상이나 효율적 소비 활동 등을 포함한다. 네 번째는 노동력 참여율과 관련된다. 여성 노동력 참여율 증가, 실업률 감소, 은퇴 후 시간제 고용 증가 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는 평생 학습의 증가로 가정 내 신기술 활용(인터넷) 증가와 교육적 독서 증가, 교육용 TV 시청, 성인교육 프로그램 활용 등이다. 여섯 번째는 개인의 동기 강화로 비인지적 기술의 향상, 이혼과 재혼(부정적)을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직장에서의 비경제적 직무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학습 경험의 즐거움, 여가시간의 즐거움,

부모의 아동 보호, 지역사회 학교 활동 등의 증가 등이 평생학습의 비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교육에 기인하는 개인의 취향과 태도의 변화는 비경제적 이익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비경제적 이익을 측정한 연구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연구이다. Grossman & Kaestner(1997)는 건강의 교육 효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소득, IQ, 건강 초기 상태를 통제한 후에 생애 주기에 걸쳐 교육의 비경제적인 효과로서 더 나은 자기 건강(own-health), 배우자의 건강 그리고 자녀의 건강을 가져왔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거기에 소득에서의 교육효과가 40% 정도 있음을 추가하였다. 이 추정치에 따라 건강은 평생학습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이익이 소득에 기초한 기존 추정치보다 4~5%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가정 교육에 대한 효과이다. Leibowitz(1974)는 학령 전 아동에 대한 가정의 투자로 사용된 어머니의 교육이 자녀의 IQ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enson(1982)은 상류층 가정에서는 학기 중에 자녀의 TV 시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녀의 과제물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가 학업 성취와 관련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셋째, 효율적 구매 활동에 관한 것이다. Hettich(1972)는 더 교육 받은 여성이 시장 탐색에 더 유능하다는 것을 측정하였다. 더 효율적인 구매의 결과로서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은 절약을 통하여 1.5%만큼의 금전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ichael(1972, 1982)은 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소비자들은 소비 품목에 대한 소비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실제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비경제적 산출물로서 만족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0.5의 탄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소득 중에서 약 60%가 교육 효과임을 주장하였다. McMahon(1984a)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 사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라고 한 결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가중치의 50%를 비경제적 이익

의 가중치로 두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음악과 같은 분야의 학생들은 경제적 이익 이상으로 비경제적 이익에 가치를 두는 반면, 약학이나 경영 분야의 학생들은 경제적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노동력 참여율에 관한 성과이다. 시간의 생산적인 활용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참여율 변화로 확인 가능하다. 노동참여율의 첫 번째 요인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에 대한 성과이다. 교육을 받은 여성이 프랑스, 스웨덴, 영국, 남미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1996년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의 이익률은 증가(Arias & McMahon, 1997)해 왔으며, 다른 OECD국가들에서도 대학수준의 여성 노동력 참여가 증가하는 비슷한 추세(Sullivan & Smeeding, 1997; Cohn & Addison, 1998)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실업률의 감소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은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준다. 빈곤국에서 무료 고등교육의 과잉 확대와 같은 잘못된 교육정책은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대학 실업자를 양산하기도 하지만 불완전 고용과 실업률은 이러한 공식 학교교육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 더 높은 경향이 있다. Boediono et al(1992)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도시 지역은 47%, 시골지역은 61%이다. 셋째, 은퇴 후 시간제 고용의 증가이다. 조기 퇴직자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제2의 경력을 갖게 되었다. 교육은 퇴직 이후의 비경제적 이익에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는 평생학습의 지속적 참여이다. 중고령층의 학령기 시기의 공식 교육을 받은 기간과 은퇴 이후에 발생한 학습의 양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Mincer(1974, 1984, 1993)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직무와 교육의 관계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기술을 비경제적 가계 생산과 여가 시간에 활용하는 데서도 확실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나이 든 사람들을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으로 인한 퇴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평생학습은 중고령층에게는 필

수적인 내생적 성장 과정이 될 것이다.

여섯째는 동기나 태도의 변화이다. 교육효과에 의한 비인지적 속성이, 소득과 승진으로 측정됨으로써 이후의 직무 생산성에 약 40%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인지적 속성은 논리적으로 비경제적 만족의 가계 생산에 기여한다. 교육 받은 배우자와의 결혼은 더 나은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주고(Sweet & Bumpas, 1987; Cherlin, 1992) 더 나은 삶의 표준과 결부된다. Benham(1974)와 Welch(1974)는 부인의 교육 수준이 남편의 연간 수입을 3.5%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일곱째는 직무 만족에 대한 효과이다. Ducan(1976)은 직장에서의 비경제적 혜택을 측정하였고, Chambers(1995)는 교사 직업시장에서 만족에 대해 교사의 교육 수준과 관련하여 지역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처럼 평생학습과 교육은 비경제적인 이익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경제적 이익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비경제적 이익을 살펴볼 것이다.

#### 나. 국가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이익

Schuller et al.(2001)은 평생 학습의 “포괄적 이익(wider benefits)”을 두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첫 번째는 비경제적 이익으로 수입 증가나 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개인적 수준의 이익으로 가족이나 지역사회부터 전 사회적으로 관련된 이익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학습과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시민 참여와 가치, 이행을 관리하는 것에서 학습과 부모교육, 그리고 가족 학습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또한 Plewis & Preston (2001)은 영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들은 평생학습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는 어려움과 평생학습 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어떻게 프로젝트 평가와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그들의 평가를 위해 적절한 목

표 집단을 분명하게 설정하였으며,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와 같이 다차원적 수준에서의 광범위한 결과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Feinstein(2002)은 건강에 관한 학습의 사회적 이익을 양적으로 추정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전국 통계치를 활용하여 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비만)과 경제적 환경(경기 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비만에 대한 학습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영국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추정 방법의 편이라든지 코호트 효과, 비용 추정 등에 대한 가정의 한계, 그리고 광범위한 경제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형평성 문제를 간과한 점이 있어서 추정이 정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일반적인 학습의 회귀에 대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결국 평생학습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거시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라고 하면 평생학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의 사회적 효과는 GDP나 사람들의 금전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경제적일 수도 있으며, 일상적인 사회적 삶에서 비경제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평생학습의 외부성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즉,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교육적 투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역사회의 평균 교육 수준은 순수한 이익을 가져오며, 심지어 미국인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Jefferson은 교육이 빈곤이나 낮은 범죄율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익의 외부성은 교육 기금 지원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비경제적인 개인적 이익과는 매우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에 대한 공적인 보조금 지원이나 자선적 기부자의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과소 투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파레토 효과<sup>7)</sup>에 기초한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교육에 대해 과

7) 파레토효과(Pareto Effect): 상품관리 방식의 지침을 제공하는 법칙으로 한 기업이 상품 회전을 높이고 판매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상품을 일률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주요 상품의 판매를 위한 촉진품을 상품관리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데 사용되는 원리이다. 이 법칙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적은 비율의 고객이 사업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증가를 통해 복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낮추며, 빈곤층의 범죄율을 낮추는 것과 같은 분명한 사회적 효과의 외부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회적 이익의 외부성과 관련하여 Lucas(1998)는 평생학습의 사회적 이익을 구체화하였다. 평생학습은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다. 평생학습은 경제적 산출과 성장효과, 비경제적 사회적 효과, 그리고 소득 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장과 비경제적인 복지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적 이익의 외부성이며 이것은 공적인 제공에 달려 있다. 평생학습의 구조적 또는 간접효과는 직접효과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빈곤에 따른 범죄율 감소는 중등교육 진학률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효과는 주로 지역사회 환경 요인과 같은 매개 변수가 회귀분석에서 생략되었는지에 따라 교육의 효과로 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회 발전의 비경제적 측면 또는 교육을 포함한 복지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공의 선으로서의 평생학습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과 건강에 대한 효과이다. 비록 전형적으로 평균보다 더 큰 가족규모가 있는 빈곤국 또는 빈곤지역에서는 낮은 출산율이 가정 안에서 개인적 이익일 수도 있지만, 교육의 결과로서 낮은 출산율은 주요한 사회적 혜택 외부성으로 다루어진다. 자본 심화와 빠른 단위 자본 성장에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낮은 출산율은 결과적으로 낮은 인구 성장률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대체로 외적 사회적 혜택이다. 소득을 통제하였을 때 여성의 높은 교육과 낮은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많은 증거가 미시적 수

---

것이다. 흔히 80/20 규칙으로 불리는데, 고객이나 상품의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중요 고객 또는 중요 상품 20%를 제시하는 데 있지, 나머지 80%의 고객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간접비에 공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고객 20%에도 다시 80/20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일 곳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 분석은 정태 분석이므로 최선의 잠재 고객이 80%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준에서 연구되었다.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자녀 수가 적을수록 더 유리하며(Becker, 1981, pp.93~112), 둘째, 피임법의 경우, 다양한 기술의 활용이 있고, 셋째, 여성이 학교에 오래 있을수록, 자녀 출산 기간(child-bearing years)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낮은 인구 성장률을 가져온다. 여성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연간 인구 증가율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은 국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소득을 통제했을 때, 부모의 평생 학습은 개인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 전염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 효과는 민주화(Democratization)이다. 소득을 통제하고 1.8%의 중등교육 등록률의 한계생산에 대한 회귀 관계를 검증한 후에 민주화에 대한 교육의 순 효과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한 가지 요소는 인권에 대한 것이다. 인권은 민주화와 함께 개선되어 왔으며, 이것은 또 다른 교육의 구조적 효과이다. 다음은 정치적 안정성이다. 정치적 안정성은 초등학교 수준 향상과 마찬가지로 단위 자본 소득을 통제한 후에 장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였다(McMahon, 1998).

세 번째 효과는 빈곤과 범죄의 감소에 대한 것이다. 빈곤 감소에 대한 성인 교육과 평생학습의 역할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높게 인식되었다. 기회의 불평등은 낮은 단계의 교육 수준과 관련 있으며,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Gottschalk & Smeeding, 1997; Sullivan & Smeeding, 1997). 자본 소득을 통제한 결과 교육의 총 등록률이 높은 곳에서 빈곤율의 순 감소가 있었다. 최근의 회귀 분석에서 McMahon(1998)은 소득을 통제한 후 중고등학교 등록률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범죄율이 낮아지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불평등과 빈곤율의 감소가 교육의 구조적 효과에 의한 것임을 보여 주었다(McMahon, 1998).

네 번째는 환경에 대한 효과이다. 소득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직접 효과), 인구 증가율과 빈곤 모두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저개발 국가

에서 인구증가와 빈곤은 산림훼손과 관련이 높았으며, 높은 수질 오염과도 관련 있다고 알려졌다. 두 가지 모두 구조적 또는 간접적 효과이다. 공기오염과 지구온난화 외부성은 다소 다르게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적 혹은 구조적인 효과는 추정된 수식에서 교육의 총 한계 생산으로서 나타났다(McMahon, 1998). 이것은 환경의 질(quality)에 대한 교육의 직접적, 간접적 혹은 구조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섯째는 가족 구조와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영향력이다. 이것을 분석하는 한 요소로 이혼율을 들 수 있다. 이혼율의 증가는 불완전한 정보와 같은 다수의 요인에 의한 것이나(Becker, 1981),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퇴연령도 연장되고 있다. 기업 정책이 현재 조기 퇴직을 장려하고 있다 할지라도, 평생학습은 퇴직 연령을 늦출 수 있도록 해 준다. 평생학습은 또한 퇴직 후 비정규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이익은 사회 안전(social-security) 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그러나 사회 안전에 대한 교육의 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로부터 교육의 효과를 추출하여야 한다.

여섯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향상이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소득의 3%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두 배 이상의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고소득 그룹에서 대졸자가 19.1%인 반면, 고졸자는 7.5%, 저소득 그룹에서 대졸자는 24.7%, 고졸자는 12.5%가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Bowen, 1977). 교육 서비스 향상을 요소로 지식의 전파율을 들 수 있다. 평생학습의 가장 중요한 외부성은 신문이나 책,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교육, 건강관련 백과사전,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식이 확산되고, 획득되는 것이다. 생애주기의 후반에 학습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능력은 사회적 이익의 외부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효과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평생학습에 대한 공공 자금의 비용을 늘릴 필

요성을 정당화해 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평생학습에 대한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평생학습의 성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학습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평생학습 정책과 추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위의 McMahan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의 사회적인 이익으로서 개인의 비경제적 이익과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적 효과를 들 수 있다.

<표 2-14> 평생학습의 성과

개인 차원의 비경제적 이익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과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사망률 감소</li> <li>- 질병 발생률 감소</li> <li>- 평균 수명 증가</li> </ul> </li> <li>○ 가정 내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교육 향상</li> </ul> </li> <li>○ 효율적 가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 자산의 이익률 향상</li> <li>- 효율적 소비 활동</li> </ul> </li> <li>○ 노동력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노동력 참여율 증가</li> <li>- 실업률 감소</li> <li>- 은퇴 후 시간제 고용 증가</li> </ul> </li> <li>○ 평생계속학습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내 신기술 활용(인터넷) 증가</li> <li>- 독서 증가</li> <li>- 교육용 TV 시청</li> <li>- 성인교육 프로그램 활용</li> </ul> </li> <li>○ 동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인지적 기술의 향상</li> <li>- 이혼과 재혼(부정적)을 변화</li> </ul> </li> <li>○ 직장에서의 직무 만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경험의 즐거움</li> <li>- 여가시간의 즐거움</li> <li>- 부모의 아동 보호 질 향상</li> <li>- 지역사회 학교 활동 등의 증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와 건강에 대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율 감소</li> <li>- 낮은 인구 성장률</li> <li>- 공공 위생</li> </ul> </li> <li>○ 민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화</li> <li>- 인권</li> <li>- 정치적 안정성</li> </ul> </li> <li>○ 빈곤율 및 범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빈곤율</li> <li>- 범죄율 저하</li> <li>- 빈곤층의 범죄율</li> </ul> </li> <li>○ 환경 오염 방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림 보호</li> <li>- 수질 오염</li> <li>- 공기 오염</li> </ul> </li> <li>○ 가족 구조와 은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율의 증가</li> <li>- 은퇴 시기 연기</li> <li>- 은퇴 후 고용률 증가</li> </ul> </li> <li>○ 지역사회 교육서비스 효과</li> </ul>

### 3.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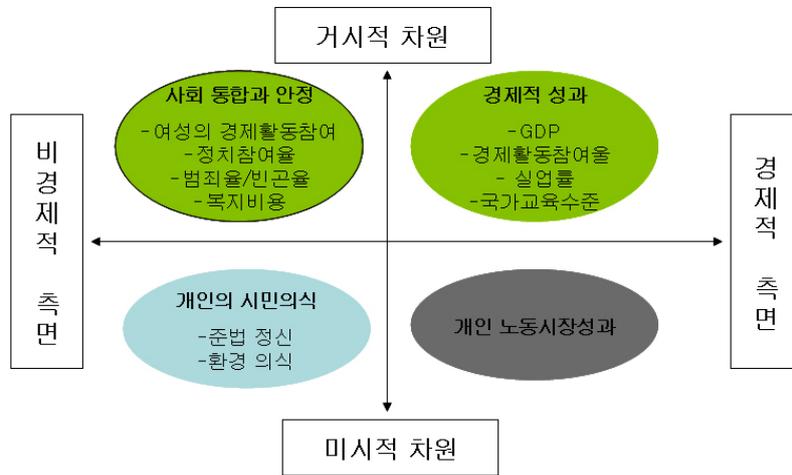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과 Schollie와 Buan의 연구, 그리고 Plewis 등의 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다. Schollie와 Buan의 연구에 의하면, 평생학습의 성과는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Buan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효과를 단일 기관에서의 경제적 투입과 산출을 계산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Schollie와 Buan은 학교교육 특히 대학교육은 사회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다양한 통계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평생학습의 사회적 비용 절감은 다른 공적 자원과 다르게 회피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의 사회적 효과는 공공의 건강 증진과 범죄예방, 복지비용이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다. 나아가 졸업자의 수입 증가는 조세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여가 선용이나 문화 예술에의 참여 등과 같은 사회적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결국 평생학습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가 줄어들고, 자기존중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수립하며,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이익으로 지역사회의 지속적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는 교육기회의 확대로 인한 양질의 교육 제공, 증가된 대학 등록률, 향상된 여가건강 프로그램 참여, 기술의 활용 능력 증가, 사회의 교육수준 증가와 교육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결국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생학습은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져온다. 다양한 교육 기회의 창출로 인하여 개인의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시장성이 높아지고 운영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며, 기타 교육에 대한 직간접적 지출과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의 파트너십이 향상될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가 수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는 크게 거시적 측면에서의 전

체 사회적인 성과와 미시적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성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성과는 경제적인 면과 비경제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의 성과들은 거시적-경제적 성과와 거시적-사회적 성과, 그리고 미시적-노동시장성과와 미시적-시민의식 변화에 초점을 둘 것이다. 특히 국가적 수준에서의 경제적 성과지표는 GDP,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국가 교육수준 등이며, 사회적 성과는 사회 통합과 안정에 대한 지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정치 참여율, 범죄율, 빈곤율, 복지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며 여기에서의 지표는 취업효과와 임금, 그리고 시민의식에 있어서는 준법 및 환경 의식 관련 요소를 지표에 포함하였다.

[그림 2-3] 평생학습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한 기본 구조(III)

평생학습의 성과 관련 지표



## 제 3 장

###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 분석

김승보

#### 제1절 평생학습과 경제적 성과

평생학습 참여는 인적자본 획득을 위한 투자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소득증대를,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이때 평생학습 참여 과정은 평생교육 범주를 Eurostat가 제시하고 있는 '교수과정에 의한 학습(learned-learning)'으로 규정하여 형식교육(formal education), 비형식교육 및 무형식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제공되는 학교교육과 단기간에 걸쳐서 피교육자의 필요나 흥미를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는 교육과정으로서 학교 외 교육, 그리고 환경에 의한 우발적 학습(incidental learning)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무형식(informal learning)교육 모두가 평생교육의 영역인 것이다.

평생학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의한 자본축적의 양을 측정하여 수치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형식교육에 있어서 자본의 양을 수치화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형식교육은 대체로 의무교육이나 고등교육 등 학교의 형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에 의해 학력을 인정받는 방식이라서 통계적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

다. 또한 학력이나 학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각종 기관 혹은 시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형식학습은 대체로 공급자(기관 혹은 교수자)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계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형식교육에 비해서는 자료가 빈약하지만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나 OECD, IALS 등 세계기구를 통해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자료도 부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무형식학습의 경우 통계적으로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조사가 설문 구성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응답자의 주관적 반응에 대한 해석상의 난점과 특히 국제적인 비교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각 나라별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관적 응답을 통하여 무형식학습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 혹은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뒤따른다. 이 글에서는 평생학습의 범주를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으로 국한하여 평생학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가 가져오는 성과는 광범위하다. 대표적으로는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 및 국가의 미래 소득을 신장시키는 점이지만, 이외에도 개인의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제고하고 보람 있는 삶을 가져오는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경제적 성과의 범위를 개인 및 국가의 소득수준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 및 분석의 편의를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살펴보는 성과는 평생학습 투자가 가져다주는 광범위한 성과 중에서 최소한의 것임은 물론이다.

이 연구는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분석을 위하여 우선 교육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시각이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맥락에서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통하여 평생학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평생교육의 개념적 문제를 논의한 다음,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학력과 평생학습 참여율 등 인적자본의 규모를 먼저 측정하며, 끝으로 인적자본 투자가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제2절 평생학습과 인적자본 규모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흔히 학령기의 정규교육 투자에 치중한 나머지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이병희 외(2005)는 이의 근거로서 우리나라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참여율 21.6%나 국제성인문해력조사(IALS)에서 밝히고 있는 23.4%가 다른 주요 국가들의 평균 참여율 44.0%에 크게 못 미치며, 특히 근로자의 숙련과 직결되는 직무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14.1%로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OECD의 평생학습 참여율(Education at a Glance, 2002)과 비교 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 학습 참여율을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과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참여율의 높 낮이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소득수준을 고려한 참여율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인 학력구성 및 평생학습 참여를 소득수준에 비추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편,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흔히 채용하는 평생 학습 참여율 등 성인의 비형식 및 무형식교육 참가 여부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론에서 암묵지 등 비형식 및 무형식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고는 있으나, 학교 정규교육에 대한 성인 참여 및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배출 인원과 같은 영역을 평생학습 규모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교육과정의 학력은 평생학습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평생학습 및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의 넓은 개념에서 저량(stock)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통계조사」는 조사항목 안에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 강좌, 직업훈련, 방송청취 등만을 묻고 있고, 국가의 학력인정체계 안에 포

함되어 있는 성인의 형식교육 참여부분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사회통계조사』와 같은 평생학습 참여율은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규모를 매우 협소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비단 학령기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병희 외(2005)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 의지는 낮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 나타나는 평생학습 참여 희망률은 58.7%에 이르고 있다. 성인시기의 교육열은 다음의 <표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력인정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인 참여로 표출되고 있다. 2005년도의 인구통계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성인인구가 약 3천백만 명이므로, 거칠게 계산하더라도 성인인구의 약 2~3% 이상이 학력인정과 관련된 정규기관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학력인정과 관련된 교육기관을 통한 연간 일수 등 참여의 질은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고 또 질적으로도 높은 투자라 할 수 있다.

<표 3-1> 성인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참여

(단위: 천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방송통신고*	14	15	14	13	13	13	13	14	11
전문대학*	89	89	90	97	105	113	121	126	124
방송통신대·사이버대	319	327	337	262	306	294	320	345	354
대학(학부)*	246	239	252	257	249	246	264	225	229
학점은행***	12	19	21	25	28	42	52	69	70
특수대학원**	64.7	67.9	77.8	81.0	82.9	85.5	85.8	87.9****	90.0
합계	744.7	756.9	791.8	735.0	783.9	793.5	855.8	866.9	8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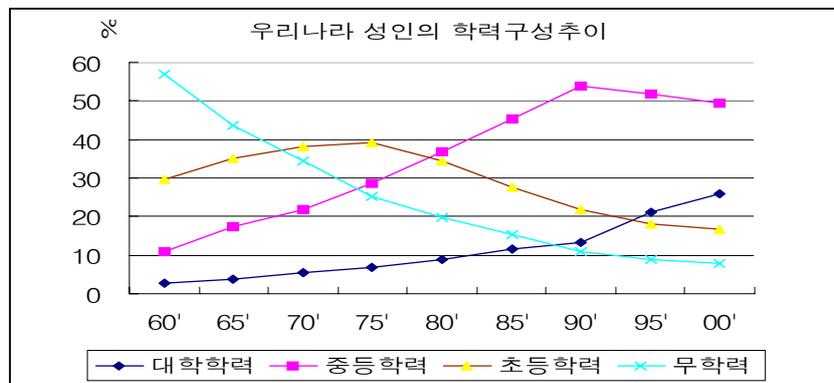
자료: 김승보(2007),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고등교육 혁신, 한국교육개발원, 박세일·김승보·박정수(2007), 평생학습사회 만들기, 평생교육백서(2007, 2008),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주: 1) \*25세 이상 성인 대상, \*\* 31세 이상 성인 대상, \*\*\*학습자 등록 현황, \*\*\*\*추정치(2006년과 2008년 참여 성인 합의 1/2)

2) 전문대학에는 기술대학 포함

지속적인 고학력 인구의 유입과 성인들의 학력 향상 노력이 더해져서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학력증가는 다음의 [그림 3-1]에서 보여 주고 있듯이 매우 경이적이다. 1960년대에 25세 이상 성인인구의 2.6%에 불과하던 대학 학력 인구가 2000년대에는 25.8%로 증가하고 있고 중등학력 인구는 10.9%에서 49.5%로 높아지고 있다. 이제 성인인구의 75.3%가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3-1]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학력구성 추이



이와 같은 성인인구의 높은 학력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앞선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2>에서 나타나듯이,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는 111개국 중 8위이며 대학학력 비중은 6위, 중등학력 비중은 9위 등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과 더불어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성인인구의 초등학력자 비중은 111개국 중 104위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lt;표 3-2&gt; 성인인구의 학력 정도 국제 비교, 2000년

순위	국가명	평균 교육 연수	국가명	대학 학력 비중	국가명	중등 학력 비중	순위	국가명	초등 학력 비중
1	United States	12.25	Canada	53.0	Romania	64.0	103	Nepal	17.3
2	Norway	11.86	United States	50.1	Norway	62.5	104	Korea	16.7
3	New Zealand	11.52	New Zealand	41.6	Sweden	57.2	105	Jordan	16.3
4	Canada	11.43	Australia	29.8	Czech Republic	55.2	106	Pakistan	13.1
5	Sweden	11.36	Israel	28.6	Austria	55.0	107	Kuwait	12.1
6	Australia	10.57	Korea	25.8	Switzerland	55.0	108	Norway	11.5
7	Russia	10.49	Norway	24.8	Germany	52.3	109	Mali	10.0
8	Korea	10.46	Japan	24.0	Poland	49.5	110	United States	9.3
9	Switzerland	10.39	Finland	23.2	Korea	49.5	111	Afghanistan	9.1

자료: Barro&amp;Lee Data

주: 전체 111개 국가 중 순위를 나타냄.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학력취득은 곧바로 성인인구의 인적자본 축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평생학습 규모 추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 분석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한 성인 인구의 학력 총합 역시 한 사회의 평생교육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평생학습 논의가 비형식 및 무형식교육의 강조로 인해 형식교육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학교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저량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제3절 소득수준에 비추어 본 평생학습의 규모 국제 비교

평생학습 참여는 미시적으로 개인의 소득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의 <표 3-3>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평생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던 응답자의 18.5%만이 약간 도움이 되었거나(15.9%) 매우 도움이 되었다(2.6%)고 답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업훈련 참여자의 경우 다른 평생학습에는 참여했지만 직업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생학습이 소득 증대를 가져왔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25.4% 대 11.2%).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생학습이 소득 증대를 가져왔다는 응답이 많아진다(21.3% 대 14.6%). 채창균(2007)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이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평생학습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Barro&Lee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국제적 비교를 시도하였다. 거시적 차원의 평생학습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문제의 연장선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미래의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하여 행하는 투자로 이해하는 인적자본론의 입장에서 볼 때, 평생학습 역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비교를 통하여 평생학습 규모와 경제성장 등 거시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lt;표 3-3&gt; 평생학습 참여와 소득 증대

(단위: 명(%))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보통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지난 1년간 평생학습 참여자		420 (23.8)	458 (25.9)	562 (31.8)	281 (15.9)	46 (2.6)	1,767 (100.0)
직업훈련 참여 여부	참여	148 (16.3)	197 (21.7)	333 (36.6)	204 (22.4)	27 (3.0)	1,767 (100.0)
	미참여	272 (31.7)	261 (30.4)	229 (26.7)	77 (9.0)	19 (2.2)	1,767 (100.0)
평생학습에 대한 만족도	만족	231 (25.4)	243 (26.8)	301 (33.2)	122 (13.4)	11 (1.2)	1,767 (100.0)
		172 (22.5)	196 (25.6)	235 (30.7)	134 (17.5)	29 (3.8)	1,767 (100.0)
	보통 또는 불만족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조사'.

우선 우리나라 성인의 학력에 대한 지표를 이용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한 국가의 평균교육년수 및 평생학습 참여율 등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된 지표들은 해당 국가의 소득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득수준과 인적자본 지표들과의 양의 상관은 이들 변수 간의 내생적 관계 즉, 양방향의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인적자본 축적이 증가하고 인적자본 축적이 커짐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어 소득이 높아지는 쌍방향의 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와 평생학습 참여율을 통하여 소득수준별 인적자본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Barro & Lee 자료 및 PWT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1인당 실질 GDP(독립변수)를 성인의 평균교육년수 및 평생학습 참여율(종속변수)로 회귀분석 하였다. 회귀분석에는 연도별로 발생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별 더미를 포함하였다. 1인당 실질 GDP와

성인의 학력수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비선형(nonlinear)으로 나타나므로 1인당 실질 GDP의 제곱값을 회귀식의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평생학습 참여율에는 제외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3-4>에 나타내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 및 평생학습 참여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는 체증하는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평생학습 참여율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1인당 GDP 증가와 성인의 형식, 비형식교육 참여에 의한 인적자본 저장의 축적은 양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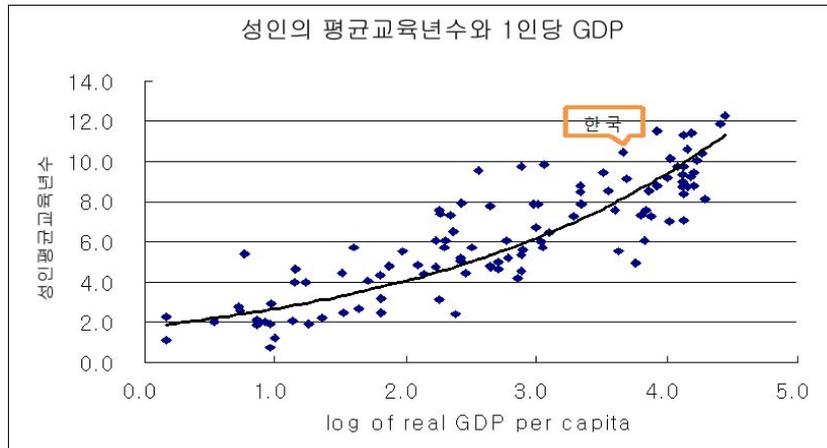
<표 3-4>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 및 평생학습 참여율에 대한 1인당 GDP의 회귀분석

구분	성인 평균교육년수	평생학습 참여율
1인당 GDP의 로그값	-0.12 (0.83)	9.63* (1.12)
1인당 GDP의 로그값의 제곱	0.14* (0.05)	- -
constant	5.37 (20.12)	62.22 (426.38)
Observations	539	223
R-squared	0.715	0.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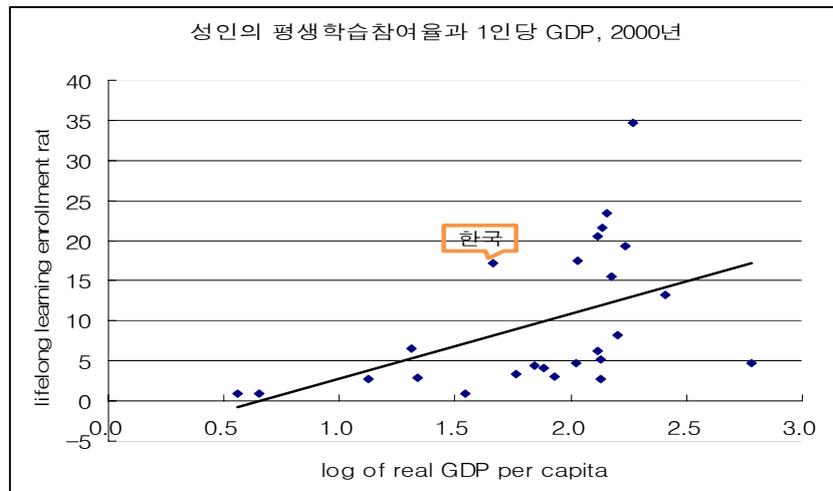
주: 연도터미는 보고에서 생략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들은 다음의 [그림 3-2], [그림 3-3]에서 보다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선으로 제시되고 있는 추정 값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정 값이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기대되는 평균교육년수와 평생학습 참여율을 나타낸다면 실제 값과 추정 값의 차이가 클수록 평생학습에 의한 인적자본 축적이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림 3-2] 성인의 평균교육년수와 1인당 GDP



[그림 3-3]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1인당 GDP, 2000년



위의 [그림 3-2], [그림 3-3]에서 보고한 성인의 평균교육년수와 평생학습 참여율의 간차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다음의 <표 3-5>에서 평균교육년수의 실제 값은 기간에 따라 높아지고 있으나 간차는 약간의 격차로 줄

어 들고 있다. 정규교육에 대한 교육투자가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근래의 일이 아니며 오히려 1980년대의 경제개발기에 더욱 활발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5>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 실제 값과 잔차(연도별)

연도	실제 값	잔차
1980	6.8	2.5
1985	8.0	2.5
1990	9.3	2.3
1995	10.1	2.0
2000	10.5	2.1

반면, 다음의 <표 3-6>에서 평생학습 참여율의 경우는 기간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평생학습 참여율의 실제 값도 높아지면서 동시에 잔차도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상 1980년대 경제개발기의 양상과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성인의 평생학습참여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수준 증가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 실제 값과 잔차(연도별)

연도	실제 값	잔차
1996	17.4	9.6
2000	17.2	8.7
2004	21.6	11.5

<표 3-7>는 세계 각국의 성인인구 평생학습 참여율의 실제 값과 잔차를 잔차의 순서로 정렬하여 보고하고 있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나라들의 잔차값이 크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평생학습 참여율 잔차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lt;표 3-7&gt; 각국의 성인인구 평생학습 참여율 실제 값과 잔차(2000)

country	실제 값	잔차	country	실제 값	잔차
Switzerland	34.7	20.5	Norway	13.3	-1.9
Iceland	23.5	10.2	Malta	4.5	-4.9
Sweden	21.6	9.3	Austria	8.3	-5.0
Korea, Republic of	17.2	8.7	Greece	1.0	-5.5
United Kingdom	20.5	8.2	Portugal	3.4	-6.0
Finland	17.5	6.2	Belgium	6.2	-6.1
Denmark	19.4	6.1	Spain	4.1	-6.3
Romania	0.9	3.0	Italy	4.8	-6.5
Netherlands	15.5	2.2	Germany	5.2	-7.1
Turkey	1.0	2.2	Cyprus	3.1	-7.3
Estonia	6.5	1.9	France	2.8	-9.5
Lithuania	2.8	0.1	Luxembourg	4.8	-14.2
Hungary	2.9	-1.7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성인의 학력에 대한 지표를 이용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Barro & Lee 자료 및 PWT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1인당 실질 GDP(독립변수)를 성인의 학력수준(종속변수)으로 회귀분석하였다(〈표 3-8〉 참조). 1인당 실질 GDP와 성인의 학력수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비선형(nonlinear)으로 나타나므로 1인당 실질 GDP의 제곱 값을 회귀식의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lt;표 3-8&gt; 성인인구의 학력수준에 대한 1인당 GDP의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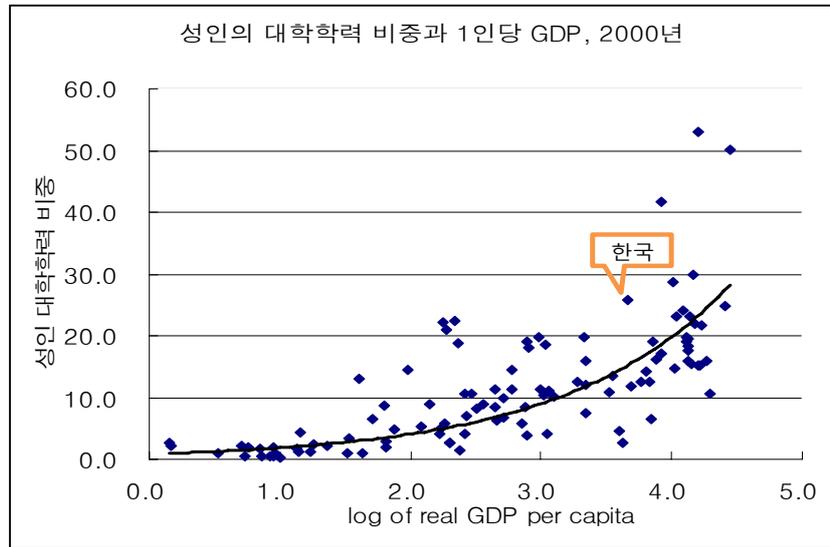
구분	대학학력의 성인 비중	중등학력의 성인 비중	초등학력의 성인 비중	무학력의 성인 비중
1인당 GDP의 로그값	-10.62* (3.21)	-12.70** (5.40)	83.27* (7.85)	-59.61* (8.86)
1인당 GDP의 로그값의 제곱	0.95* (0.19)	1.43* (0.33)	-4.87* (0.48)	2.47* (0.54)
constant	-119.13 (78.29)	76.23 (131.59)	45.73 (191.26)	94.49 (215.94)
Observations	539	539	539	539
R-squared	0.503	0.597	0.204	0.620

주: 연도터미는 보고에서 생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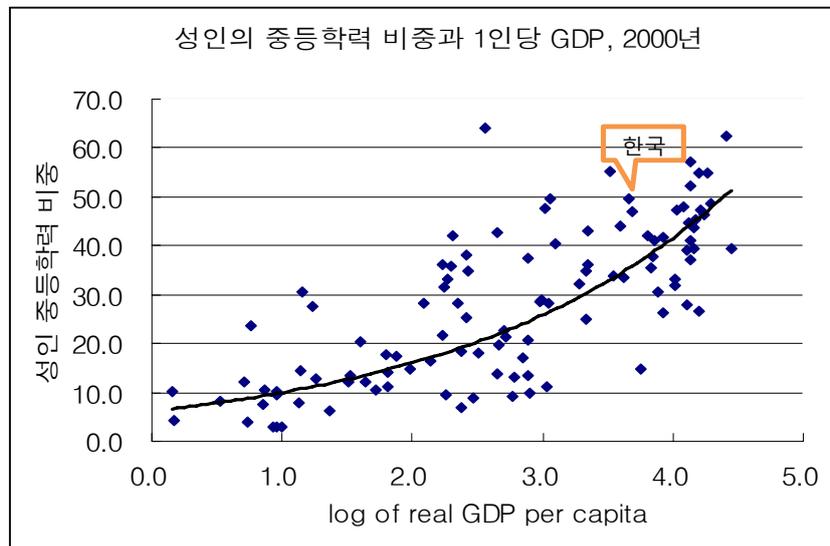
위의 회귀분석 결과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인구의 학력수준 및 평생교육 참여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학력 및 중등학력을 가진 성인비중은 체증하는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력 및 무학력의 성인인구는 체감하는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 성인인구의 직무연수 등 평생교육 참여율은 일직선으로 증가하고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학력을 통한 형식교육 참여가 늘어남으로써 인적자본 저량의 축적이 빠르게 진행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음의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및 [그림 3-7]에서 보다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추정치가 선으로 표현되고 있는 바, 각각의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성인의 학력수준에 있어서 실제 값이 추정 값보다 대학 및 중등학력에서는 높게 나타나며 초등 및 무학력의 경우에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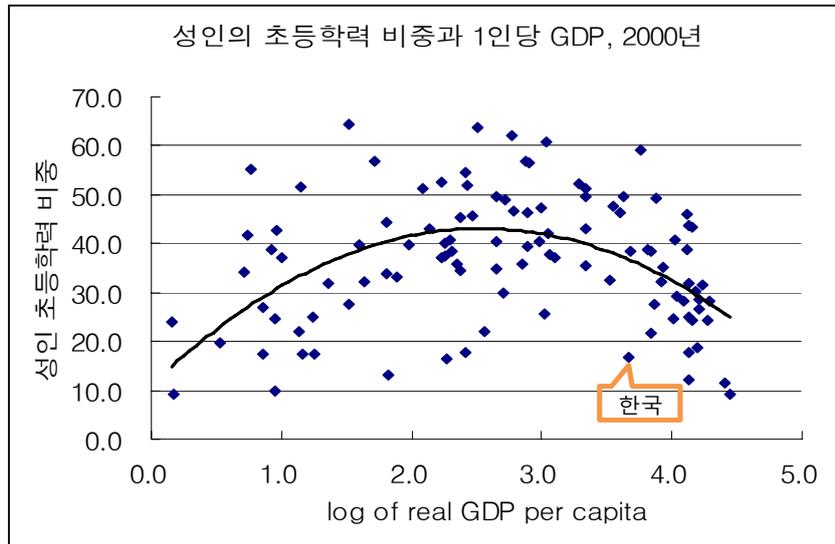
[그림 3-4] 성인의 대학학력 비중과 1인당 GDP,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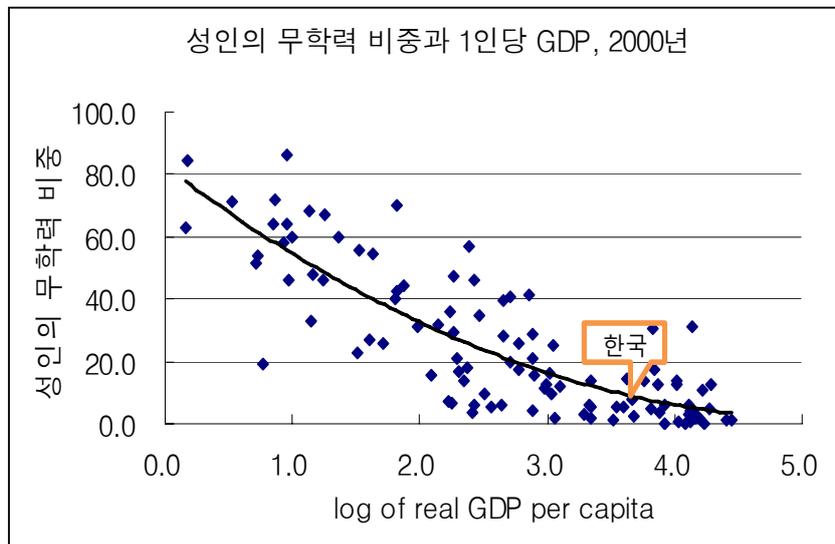
[그림 3-5] 성인의 중등학력 비중과 1인당 GDP, 2000년



[그림 3-6] 성인의 초등학력 비중과 1인당 GDP,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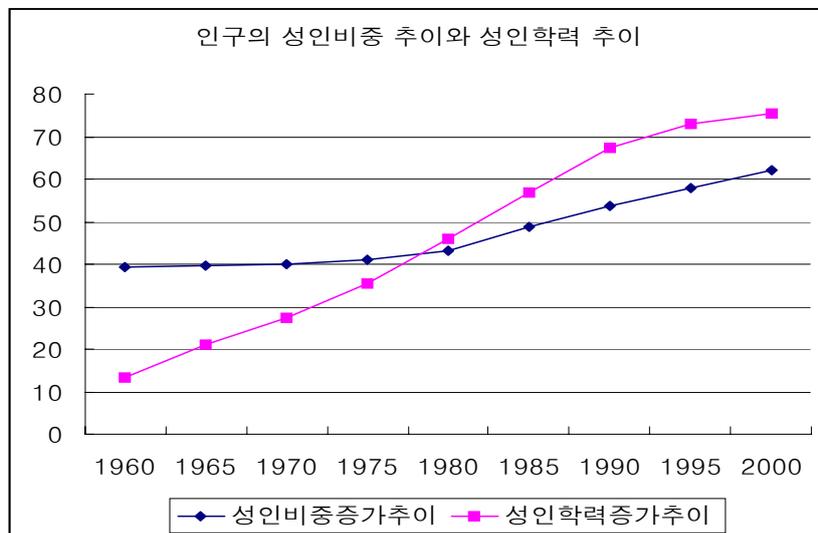
[그림 3-7] 성인의 무학력 비중과 1인당 GDP, 2000년



이처럼 실제 값과 추정 값 간의 격차는 학력에 의한 성인들의 인적자본 저장 격차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실제 값이 추정 값보다 높을 경우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생산요소보다 인적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이고, 실제 값이 추정 값보다 낮을 경우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자본 요소보다 인적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학 및 중등학력에서 실제 값이 추정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며, 초등학력 및 무학력의 경우에는 실제 값이 추정 값보다 적어, 전반적으로 성인들의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 저량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8]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비중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인의 학력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현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림 3-8] 인구의 성인 비중 추이와 중등·고등 학력 성인 비중 추이 비교



〈표 3-9〉는 성인들의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 저장 축적이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하여 연도별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저량이 1980년대에는 중등학력 위주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학학력 위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학력수준 실제 값과 잔차(연도별)

연도	대학학력		중등학력		초등학력		무학력	
	실제 값	잔차	실제 값	잔차	실제 값	잔차	실제 값	잔차
1980	8.9	4.4	36.9	19.0	34.5	-6.0	19.7	-17.4
1985	11.7	4.0	45.3	21.4	27.6	-15.2	15.4	-10.3
1990	13.4	2.2	53.9	23.2	21.7	-24.4	11.0	-1.0
1995	21.1	5.9	51.9	14.6	18.2	-19.8	8.7	-0.6
2000	25.8	9.6	49.5	10.7	16.7	-23.0	8.0	2.8

성인들의 학력에 의한 인적자본 저장의 축적이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 3-10〉를 제시할 수 있다. 소득수준 대비 성인인구의 학력비중에서 우리나라 외에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일본, 핀란드 등은 대학학력에 의한 인적자본 저장 축적이 높게 나타나며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터키 등은 대학학력에 의한 인적자본 저장 축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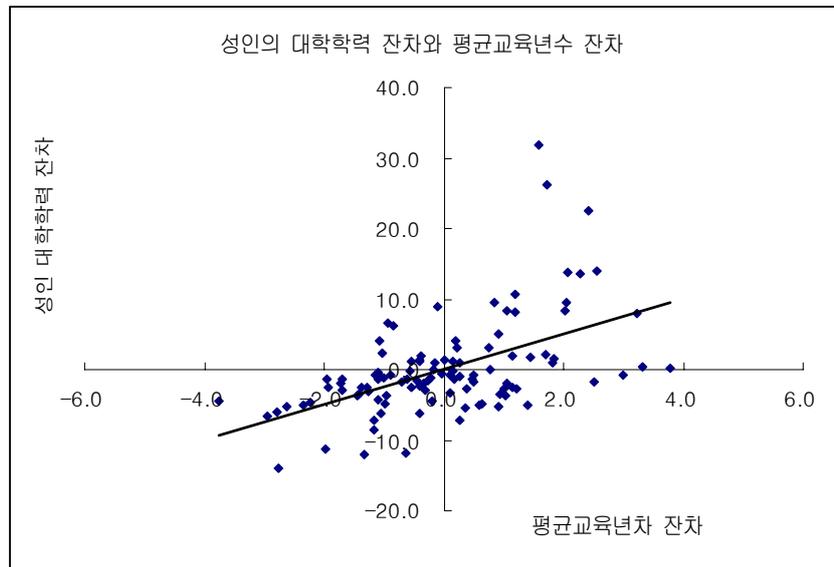
&lt;표 3-10&gt; OECD 국가별 성인학력의 실제 값과 잔차(2000년)

국가명	대학학력		중등학력	
	실제 값	잔차	실제 값	잔차
Canada	53.0	31.9	26.6	-21.1
United States	50.1	26.2	39.6	-12.9
New Zealand	41.6	22.5	26.3	-17.4
Korea	25.8	9.6	49.5	10.7
Australia	29.8	9.4	43.6	-3.0
Japan	24.0	4.0	47.9	2.2
Finland	23.2	3.2	47.3	1.9
Sweden	23.1	2.1	57.2	10.1
Norway	24.8	1.7	62.5	11.2
Netherlands	22.0	1.2	45.4	-1.8
Denmark	21.6	-0.2	46.5	-2.2
Mexico	11.3	-0.7	29.0	-1.1
Turkey	8.5	-0.7	13.8	-11.3
Poland	11.1	-0.8	49.5	19.1
Belgium	19.7	-0.9	28.0	-18.6
Ireland	19.4	-1.4	44.7	-2.2
United Kingdom	19.1	-1.5	39.1	-7.5
Spain	16.2	-2.0	30.7	-11.7
France	18.4	-2.5	37.3	-9.7
Greece	13.6	-2.7	33.8	-4.4
Hungary	12.0	-2.7	34.7	-0.5
Germany	17.5	-3.4	52.3	5.3
Iceland	15.5	-4.9	39.3	-7.3
Italy	14.7	-5.1	32.0	-13.1
Switzerland	16.0	-5.5	55.0	6.4
Austria	15.1	-6.1	55.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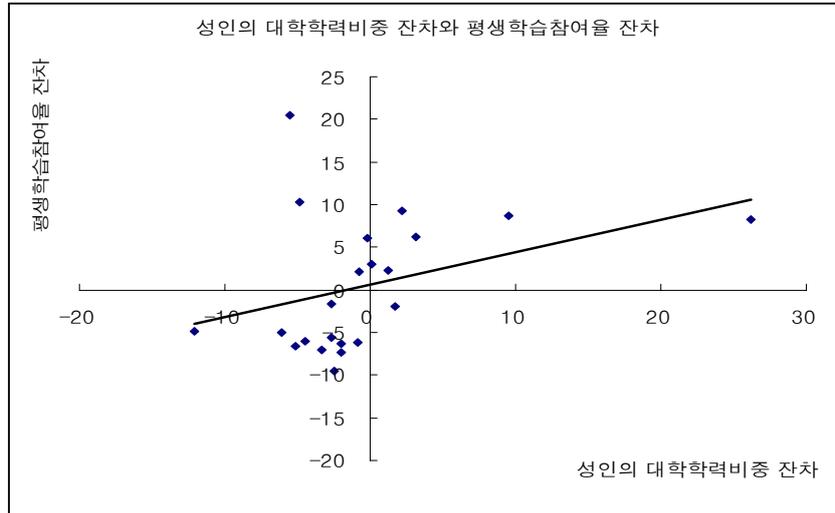
지금까지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와 평생학습 참여율, 그리고 학력수준 등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크기를 비교하였다. 이들 지표들을 이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저량 및 유량(flow)은 모두 국제적으로 상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 지표들 간의 분석결과가 상반되는지 혹은 일관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9]와 [그림 3-10]은 성인인구의 대학학력 잔차와 평균교육년수 잔차 그리고 평생학습 참여율 잔차의 쌍을 각각 나라별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잔차값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 지표들 간에 일관성이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3-9] 성인의 대학학력 잔차와 평균교육년수 잔차



[그림 3-10] 성인의 대학학력비중 증가와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



#### 제4절 평생학습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분석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가 가져오는 성과는 광범위하다. 대표적으로는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 및 국가의 미래 소득을 신장시키는 점이지만, 이외에도 개인의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제고하고 보람 있는 삶을 가져오는 등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제적 성과의 범위를 개인 및 국가의 소득수준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시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문제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학의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경제학적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경제의 장기성장을 설명하는 대표적 성장모형으로는 솔로우 모형, AK모형, 조건부 수렴 모형 등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세 모형은 개별국가의 성장 패턴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바, 먼저 솔로우 모형은 성장모형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으로서 초기에 가난한 나라는 자본축적의 수준이 낮아 수익률이 높으므로 부유한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시각이다. 가난한 나라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자본이 축적되면 성장률도 점차 떨어지게 되어 각 나라의 소득수준은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convergent)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에 비해 AK 모형은 자본이 축적되어도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시각으로서, 이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성장률로 성장해 가므로 각국의 소득수준 수렴현상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수렴 모형은 각 나라가 나라별 초기 교육수준, 대외 개방도, 제도의 질 등 차이로 인해 각기 나뉠대로의 균형소득수준을 가진다는 시각으로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각 나라별 균형소득수준에 수렴해 간다는 것이다.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자본축적이 진행되고 성장률은 점차 떨어진다고 파악한다.

위의 세 가지 모형은 나뉠대로 이론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솔로우 모형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나라의 저개발 문제가 주목되고 또한 선진국의 성장률이 저개발국에 비해 결코 낮지도 않은 현실에서, 그리고 AK모형은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저개발국가의 고속 성장이 중국, 인도 등으로 확산되어 가는 사례 등에서 모형의 설명력에 대한 의문이 증대되었다. 반면, 조건부 수렴 모형은 각 지역의 경제성장 현실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태중, 2007).

경제성장의 실증분석(성장회귀)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text{GDPit} = \beta_0 + \beta_1\ln\text{GDPit-1} + \beta_2\text{Xit} + \varepsilon_{it} \quad (1)$$

위 식에서 좌변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로그값이며 우변의  $\ln\text{GDPit-1}$ 는 전년도의 일인당 국민소득의 로그값을 나타낸다.  $\text{Xit}$ 는 해당국가의 균형소득을 결정한다고 생각되는 교육투자, 저축률, 제도의 질 등을 표현하는 변수의 벡터이다. 즉, 경제성장의 요인으로는 평생교육 이외에도, 경제개방도, 제도의 발달 정도, 거시경제안정지표 등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성인인구의 학력수준과 평생교육 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펜실바니아 대학의 PWT(Penn World Tables) Ver.6.2와 Barro-Lee의 학력 데이터셋으로부터 성인의 학력 등 자료를, 그리고 EUROSTAT의 AES(Adults Education Survey) 및 우리나라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보고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성인의 평생교육 참가율 자료를 도출하였다. 그 밖에 이들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무역개방도, 정부지출비중, 민주화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변수들도 도출하였다.

먼저, 성인학력이 포함된 Barro-Lee 데이터의 기간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2000년의 기초 통계치를 살펴보면, 1인당 실질 GDP는 107개국의 평균이 1만 6백 불 정도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472불(리베리아), 가장 높은 국가는 3만 4천 불(미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만 5천 7백 불 정도이다. 성인의 대학학력 비중은 111개국의 평균이 11.5%이며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로 53%이며 미국은 50.1%, 우리나라는 25.8%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의 중등학력 비중은 평균이 28.1%이며 성인의 평균교육년수는 111개국의 평균이 6.7년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각각 49.5%, 10.5년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GDP 대비 무역총액을 무역개방의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무역개방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로서 107개국의 평균이 84.4인 데 비해 무려 377.7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78.3을 나타내어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거시경제의 안정도를 표현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제도적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정부부문의 지출 비중 및 정치적 민주화지수 등이 <표 3-11>에 나타나고 있다. 정부부문의 지출비중이 낮을 수록 시장경제가 발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치적 민주화지수는 1-7의 척도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민주화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 경제성장 요인분석 변수의 기초통계치(2000년, 성인학력비율)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GDP	107	10575.93	9585.484	472.437	34364.5
대학학력비율	111	11.4964	9.792065	0.2	53
중등학력비율	111	28.12973	15.68911	2.8	64
평균교육년수	111	6.279099	2.882452	0.76	12.25
무역개방도	107	84.39237	55.62741	20.17672	377.6847
정부지출비중	108	19.79416	8.60152	2.967668	53.81416
정치적민주화	102	3.507843	2.085627	1	7
소비자물가	104	6.577587	11.6843	-6.468	91.005

한편, 자료의 한계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EUROSTAT의 통계와 우리나라의 통계를 통합한 데이터셋으로 별도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 데이터의 기초통계는 유럽 국가 중심이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나 정치적 민주화지표 등이 상당히 앞선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의 표와 마찬가지로 2000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표 3-12>의 기초 통계치를 보면, 1인당 실질 GDP는 25개국의 평균이 2만 1천 불 정도로 나타나 앞의 107개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있다. GDP 대비 무역총액으로 표현한 무역개방의 정도 역시 101.3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부문 지출비중의 평균은 19.2로 앞의 19.8과 유사하나 정치적 민주화 정도가 앞의 3.5보다 매우 낮은 1.4를 보이고 있다.

&lt;표 3-12&gt; 경제성장 요인분석 변수의 기초통계치(2000년, 평생학습 참여율)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GDP	25	21,414.54	9,292.278	5,211.11	48,217.27
평생학습 참여율	25	9.82	8.980906	0.9	34.7
opnessk	25	101.264	55.41213	54.16	282.89
cg	25	19.1806	6.174686	8.208305	32.22522
pright	22	1.418182	0.950006	1	4.8
inflation2	20	6.304	11.52809	0.86	40.71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3-13>, <표 3-14>, <표 3-15>에 보고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성인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을수록, 경제가 개방될수록, 거시경제가 안정될수록,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가 진척될수록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률 요인을 포괄하는 회귀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결과와 유사하다(김태종 2007).

우선 <표 3-13>은 전년도 GDP의 로그값을 포함한 일반통합회귀모형(Pooled OLS)을 사용한 결과이다. 조정된 회귀계수는 모두 0.8을 넘고 있는 가운데, 성인의 대학학력 비중과 중등학력 비중 그리고 성인의 평균교육년수 세 가지 변수 모두 p 값이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성인의 대학학력 비중이 1% 높아지면 경제성장은 0.025%p, 중등학력 비중은 0.02%p 가량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평균교육년수가 1년 늘어나면 경제성장은 0.15%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3-13&gt; 성인학력의 경제성장 요인 회귀분석 결과(일반통합회귀모형)

구 분	(1)	(2)	(3)
대학학력비중	0.025* (0.003)	- -	- -
중등학력비중	- -	0.020* (0.002)	- -
평균교육년수	- -	- -	0.153* (0.011)
전년도GDP 로그값	0.612* (0.029)	0.538* (0.030)	0.470* (0.029)
무역개방도	0.003* (0.000)	0.002* (0.000)	0.002* (0.000)
정부지출비중	-0.011* (0.003)	-0.010* (0.002)	-0.010* (0.002)
민주화지수	-0.084* (0.015)	-0.093* (0.014)	-0.060* (0.013)
소비자물가	-0.000 (0.001)	-0.000 (0.001)	-0.001 (0.001)
상수항	3.465* (0.260)	3.877* (0.256)	3.977* (0.233)
관측치	405	405	405
R-squared	0.8303	0.8457	0.8679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significant at 10%;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다음의 <표 3-14>는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을 통한 회귀분석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두 모형 모두 결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모형은 성인의 대학학력 비중과 중등학력 비중 그리고 성인의 평균교육년수 세 가지 변수에서 p값이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학력변수의 계수가 앞의 모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성인의 대학학력 비중 계수는 0.071, 중등학력 비중은 0.027, 평균교육년수는 0.289로 POLS에 의한 결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인의 학력수준은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할 것이다.

<표 3-14> 성인학력의 경제성장 요인 회귀분석 결과(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구 분	(1)	(2)	(3)	(4)	(5)	(6)
대학학력비중	0.071* (0.005)	0.068* (0.004)	- -	- -	- -	- -
중등학력비중	- -	- -	0.027* (0.003)	0.033* (0.003)	- -	- -
평균교육년수	- -	- -	- -	- -	0.289* (0.018)	0.282* (0.014)
무역개방도	0.004* (0.001)	0.004* (0.001)	0.005* (0.001)	0.004* (0.001)	0.003* (0.001)	0.003* (0.001)
정부지출비중	-0.004 (0.004)	-0.008** (0.003)	-0.011** (0.004)	-0.015* (0.003)	-0.007+ (0.004)	-0.011* (0.003)
민주화지수	-0.092* (0.033)	-0.141* (0.024)	-0.149* (0.039)	-0.198* (0.024)	-0.093* (0.033)	-0.103* (0.022)
소비자물가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상수항	7.926* -(0.153)	8.150* (0.143)	8.175* (0.186)	8.339* (0.149)	7.060* (0.180)	7.224* (0.151)
관측치	410	410	410	410	410	410
관측국가	102	102	102	102	102	102
R-squared	-	0.6217	-	0.4500	-	0.6212

주 :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significant at 10%;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3) (1), (3), (5) 칼럼은 고정효과모형, (2), (4), (6)은 확률효과모형임.

다음의 <표 3-15>는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성장 요인으로서 전년도 GDP의 로그값을 포함한 일반통합회귀모형(Pooled OLS)과 고정효과모형(FE) 및 확률효과모형

(RE) 세 가지를 통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통합회귀 모형은 조정된 회귀계수가 0.9를 넘고 있으며,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역시 세 모형 모두에서 p 값이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1% 높아지면 경제성장을 0.006%p 가량 끌어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일반의 평생학습참여 수준은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할 것이다.

<표 3-15> 평생학습의 경제성장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POLS, FE, RE)

구분	(1)	(2)	(3)
llrate	0.006* (0.001)	0.011* (0.002)	0.016* (0.002)
opnessk	0.001* (0.000)	0.008* (0.001)	0.005* (0.000)
cg	-0.002 (0.002)	0.003 (0.008)	-0.006 (0.005)
pright	-0.089* (0.011)	0.000 (0.000)	-0.209* (0.029)
inflation2	-0.011* (0.002)	0.001 (0.001)	-0.003 (0.002)
laglngdp	0.501* (0.032)	- -	- -
Constant	5.021* (0.329)	9.067* (0.123)	9.736* (0.123)
Observations	164	178	178
R-squared	0.9265	-	0.6472
Number of newid	25	-	25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significant at 10%;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 제5절 소결

이 연구는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분석을 위하여 우선 교육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시각이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맥락에서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통하여 평생학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평생교육의 개념적 문제를 논의한 다음,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학력과 평생학습 참여율 등 인적자본 투자가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비단 학령기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계조사』에서 나타나는 평생학습 참여 희망률은 58.7%에 이른다. 2005년도의 인구통계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성인인구가 약 3천백만 명이므로, 성인인구의 약 5% 이상이 학력인정과 관련된 정규기관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학력인정과 관련된 교육기관을 통한 연간 일수 등 참여의 질은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의 투자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성인인구의 높은 학력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앞선 규모이다.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는 111개국 중 8위이며 대학학력 비중은 6위, 중등학력 비중은 9위 등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과 더불어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는 경제개발초기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성인의 평생학습참여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수준 증가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인구의 학력수준 및 평생교육 참여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학력을 통한 형식교육 참여가 늘어남으로써 인적자본 저량의 축적이 빠르게 진행됨을 나타낸다.

한편, 성인 일반의 평생학습참여 수준은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통합회귀모형(Pooled OLS)과 고정효과모형(FE) 그리고 확률효과모형(RE) 등 모든 모형에 공통적이고 일관되게 성인의 학력수준 및 평생학습 참여율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예컨대, 성인의 대학학력 비중이 1% 높아지면 경제성장은 0.025%p, 중등학력 비중은 0.02%p의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평균 교육년수가 1년 늘어나면 경제성장은 0.15%p 높아진다. 또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1% 높아지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0.006%p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 제 4 장 평생학습과 사회통합

장수명

### 제1절 사회자본과 사회통합

본 장에서는 평생학습이 사회통합(social cohes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사회통합이라는 아주 미묘하고 적절히 짚어내기 힘든 개념을 설정하고 그 지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통합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목표이면서도 매우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한 예로 Mouelis는 사회통합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질적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개발자와 집합행위자의 상호의존관계를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변종임 외 2007). 이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편 Green Preston & Sabates(2003b)는 사회통합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며 동시에 정치적 비중이 높은 개념으로 각기 다른 맥락에서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포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통합의 요소들로

첫째, 공통의 규범과 가치, 둘째, 공유된 정체성 또는 공동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셋째, 계속성과 안정성, 넷째, 평등한 권리, 기회, 부와 소득의 분배, 다섯째, 강력한 시민사회와 활발한 시민참여를 포함시킴으로 다소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시대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 사회통합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은 자유주의적 전통과 사민주의적 전통이라는 두 가지 갈래에서 나왔다. 역사적으로 보수적(또는 자유주의적) 관점의 사회통합은 '사회질서'를 나타내며 따라서 갈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보수적 의미에서 이는 통일된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관료주의와 결합되기도 하여 통일된 국가 건설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한편 사민주의에서 진보적 사회통합의 의미는 노동운동의 영향을 받아 계급의식의 형성과 정치적 연대를 통하여 집합적 사회 개선을 나타낸다(Green & Preston 2001). 진보적 의미에서 사회통합이란 소득분배의 개선, 계층 간의 차이와 차별의 철폐, 민주적 권리의 확대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통합은 관련된 이론과 유사한 개념들의 발전으로 풍성하고 현대적인 내용을 담아 왔다. 새로운 이론과 개념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적 포용과 사회자본이다. 우선 사회적 포용의 개념을 활용한 더 좁은 의미의 사회통합이란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고 이와 대비되는 사회적 포용(inclusion)을 최대한 포괄하는 사회의 질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표 4-1] 참조). 한 사회의 사회적 통합이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포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포용은 숙련형성을 통한 노동시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 개념을 활용한 사회통합은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고 신뢰나 적극적 사회참여 등을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정의는 다소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lt;표 4-1&gt; 사회적, 문화적 포용과 배제

구분	포용	배제
사회적	완전한 정치적 참여 노동시장에서의 동등한 기회 사회적 혜택과 권리 공유 민족 간 문화 간 사회적 상호작용 강화 계층, 성, 인종, 민족에 의한 차별 없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정치적 권리 부정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신분에 따라 사회적 혜택 차별 민족 간, 문화 간, 사회적 상호작용 방해 계층, 성, 인종, 민족에 의한 차별 학교에서의 적합한 공급부족
문화적	소수집단의 언어와 문화 존중 차이인정 소수집단 문화상품소비(음식, 전통건물 등) 종교적 차이 존중 문화 간 역량과 이해를 발전시킴 학교에서 교육과정 인정	소수집단의 권리부정 문화적 차이 부정 소수집단의 생산물 소비 회피와 거부 소수집단의 종교의식 무시와 거부 문화 간 역량과 이해 무시 교육적 집단 중심주의

자료: 1) Gajendra K. Verma, Migrants and Social Exclusion: A European Perspective, pp. 12, 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long Learning May 13-15, 2002, Asia-Europe Institute University of Malaya.

2) 변중임 외(2007, 17쪽)에서 재인용

사회자본론의 발달은 사회통합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고 사회통합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으나, 한편으로 사회통합의 논의를 제한하였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제도가 뿌리내린 미·영 위주의 사회자본이론의 발전은 사회통합 논의에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과 국가 수준 이하의 소지역 단위에서의 사회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그 논의를 제한시켰다. 사회자본론에 의하면 지역이나 국가 사회의 사회자본은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 정치활동 등에 대한 시민참여, 일반적 신뢰, 규범준수, 연계망 등을 나타낸다(Putnam 1993). Putnam 등 사회자본 주창자들은 사회자본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사회의 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때 사회자본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들인 신뢰, 규범, 정치활동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풍성한 사회에서 사회통합이 일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Green & Preston(2001)은 지역단위의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자본과 통합의 관계는 다르다고 판단한다. 사회자본론자들은 결사체나 협회 등 서클의 참여가 사회자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역단위에서 협회나 서클에 참여하여 사람들이 서로 친숙해짐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회원 상호 간의 신뢰가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높여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협회나 클럽활동이 높은 수준의 나라들이 반드시 높은 사회통합이나 국가수준의 사회자본을 나타내는 보편적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규범준수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Newton & Norris, 2000; Green & Preston, 2001). 이는 왜 사람들이 협회나 조직에 참여하고 또 왜 이런 행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가를 Putnam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연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회자본과 사회통합의 관계는 무엇인가? 조직화 또는 자발적 협회를 통한 사회자본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사회의 통합에 반하고 협회 내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Mark Granovetter(1973)은 약하지만 광범위한 연계가 친밀하고 강하나 닫힌 네트워크보다 사회적 혜택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전반에 형성된 약하지만 광범위한 열린 네트워크형 사회자본은 사회통합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전통과 진보주의적 전통의 사회통합 논의와 사회적 포용과 사회자본론의 이론을 포괄적으로 다룬 사회통합 논의는 이 두 전통을 폭넓게 가진 유럽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이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실행이라는 맥락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세계화와 불안정과 불평등이 강화되는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의미를 새롭고 '과학적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적절한 사회통합 지표를 산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Council of Europe(2005)는 현대 사회의 사회통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장기적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의 능력으로 자원에 대한 균등한 접근과, 다양성을 온당하게 배려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개인적 집단적 자율성 그리고 책임 있는 참여를 포함해야 하는 것(society's ability to secure the long term well-being of all its members, including equitable access to available resources, respect for human dignity with due regard for diversity, personal and collective autonomy and responsible participation)”으로 정의했다. 이 개념은 사회통합의 4가지 구성요소를 균등과 무차별, 존엄성 인식, 자율성과 개인적 발달, 참여헌신 등으로 본 것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합의 요소를 제시했다.

a) 모두의 복지라는 공유된 목표의 표명으로서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manifestations of the shared objective of the well-being of all)

b) 공유된 책임감의 표명으로 시민권과 결사체를 대하는 자세(citizenship and the associations approaches as a manifestation of shared responsibility)

c) 함께 반성하고, 각 사람의 책임을 규명하고, 공동결정에 참여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경험을 활용하는 역량의 증거로서의 민주적 숙련(democratic skills as evidence of the capacity to reflect together, define each person's responsibility, take joint decisions, and learn from and capitalise on experience)

이를 삶의 질의 영역, 삶의 영역, 기본적 요소로 나누어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를 요약했다.

<표 4-2> 사회통합의 핵심적 구성요소의 요약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목적)		핵심적 구성요소
삶의 질 (모든 사람의 복지)	공동체	갈등에 대한 비폭력적 해결, 평화
	개인과 개인들 상호관계 수준	시민복지 -권리행사의 평등성/차별 없음 -존엄성/인정 -자율성과 개인의 발전 -참여/사회적 헌신
삶의 영역 (모든 당사자의 공유된 책임)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한 당사자의 책임 공유를 위한 조건	복지목적의 공유: 인권의 보편적이고 개인적 특성, 지속적 발전 공유된 책임의 방법: 시민성, 결사체 접근, 민주적 기술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경제(경제의 목적과 제약이 시민의 복지와 통합의 목적과 제약에 동반함)
기본적 구성요소 (통일성)	결속	전통, 경제 및 제도에 뿌리를 둔 결속을 넘어서는 결속
	신뢰	신뢰의 3차원 -자신과 인간관계의 확신 -제도, NGOs, 기업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믿음
	집단적 지식과 소속감	공유된 지식(상황과 모두의 역할 등) 집단적 시민의식 등 상호의존성과 책임
	가치	시민가치 -정의와 공공선에 대한 감각 -연대와 사회적 책임감 -관용과 다른 이들에 대한 관용
	감정	자율적이고 존중 받는 삶을 영위하고 공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서 오는 만족감

자료: Council of Europe 2005, pp.57

이 통합의 요소들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선순환의 관계에 진입하는데, 그 조건은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한 공유된 책임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모든 사람의 복지라는 목표의 공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모

두와 공동체를 위한 경제-자원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만족되면 선순환의 과정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럽의회의 사회통합 정의는 전통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고 또 사회자본론이나 사회포용(배제)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포괄적 사회통합을 염두에 두되 성인의 평생학습이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제2절 교육, 사회자본 및 사회통합

교육과 사회통합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19세기 이후 대중교육 옹호자들은 교육을 국가형성의 기초로 보았다. 이들은 문자해독 등과 같은 교육의 성과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교육이 공화정 국가의 진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는 교육이 국민적 일치라는 보수적 관점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Dubin은 역시 교육이 국민성의 핵심적인 요소를 개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Fuller & Robinson, 1992). 한편 Andrew Lunt는 교육을 미국 민주주의의 기둥으로 바라보았다(Kaestle, 1983). 교육의 사회 통합적 역할을 함께 강조한 Durkheim은 “사회는 그 구성원 사이에 충분한 수준의 동질성이 존재할 때만이 존재할 수 있다. 교육은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집합 생활에 요구되는 본질적 유사성을 유념하게 하여 이 동질성을 영속화시키고 강화한다(Durkheim, 1977).”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보수주의적 전통은 안정된 사회의 위계, 좁은 의미의 국민가치를 가진 ‘유기적 공동체’ 형성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 민주주의적 전통은 학교를 사회적 연대와 민주적 시민형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또 다른 차원의 교육의 사회 통합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논의는 교육의 역할을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형성, 시장경제의 숙련의 형성, 국가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전통을 수렴하여 왔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교육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강조하는 논리는 사회적 통합과 연대보다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쇄신과 교육훈련을 통한 개인의 노동시장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사회통합의 개념도 사회자본의 개념으로 대체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자본론은 토크빌의 'Democracy in America'의 전통에서 출발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그리고 지역주의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초기에는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한 쌍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Putnam의 정치적 학술연구를 거치면서 지역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게 되었다.

사회 자본은 대인 신뢰로부터 제도에 대한 신뢰, 협회(associations)참여를 포함한 network, 정치사회적 참여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이 사회 자본은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교육과 사회자본의 관계는 매우 강한 것이며 교육이 사회 자본을 창출하는 주요한 통로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이 자발적인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와 정치행동에 적극적이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개인과 사회제도에 관한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높아 소득, 부, 나이와 성을 통제하더라도 교육은 사회자본의 제 요소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하여 교육이 사회자본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Colman의 경우 교육이 사회자본의 원인이라기보다 사회자본을 교육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부의 사회심리학자와 정치학자들이 교육과 사회자본의 상호관계의 인과성을 추측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 그러한 분석은 대체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Putnam은 교육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기본적인 통로는 사회의 각 결사체에 가입(joining)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입은 내부를 결속하는(bonding) 것과 사회적으로 다른 그룹과 연계를 다리 놓는(bridging)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참여의 확대와 신뢰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결속만 하고 연계하지 않는 자발적 조직체는 내부의 이익을 위한 결속만 강조하여 사회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교육이 시민참여(civic engagement)나 사회적 참여(social engagement)에 주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Campbell은 교육이 시민의 사회적 참여 CSE(civic and social engagement)에 미치는 영향을 3개의 교육모형을 통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조명하였다. Campbell(2006)은 절대적 교육모형(absolute education model), 분류모형(sorting education model), 누적모형(cumulative model)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절대적 교육모형은 주변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개인의 교육수준이 자신의 CSE를 높여 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개인일수록 사회적 참여도가 높다는 것이다.

분류모형은, 참여는 개인의 교육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데 참여가 개인의 공식 교육의 수준에 영향을 받기보다 교육이 사회적 위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높인다는 것이다. Nie, Junn & Barry(1996)는 교육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네트워크의 중심에 도달하게 하거나, 인지적 자원을 형성하여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하며 동시에 공적 참여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사회에 포용됨으로써 사회적 통합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사회적 지위가 개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은 그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교육수준과 상대의 교육수준의 차이가 사회적 참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누적모형은 개인의 교육수준보다 동료의 교육수준, 즉 교육적인 환경이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분류모형의 경우 개인의 교육수준과 주변의 교육수준의 상대적 차이가 클수록 사회 참여가 높은 것인데 반해 여기서는 주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높다고 본 것이다.

Campbell은 이 세 가지 모형을 European Social Survey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종속변수로서 정치적 참여(경쟁적 정치참여와 의사표현적 정치참여),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s), 투표(voting), 신뢰(대인과 제도에 관한)에 대한 개인의 교육수준, 개인과 주변의 상대적 교육수준, 주변의 교육수준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절대적 교육모형은 표현적 정치활동, 선거, 자발조직체의 참여, 제도적 신뢰를 설명하고, 분류모형은 정치갈등 중심 정치참여를 설명하고, 누적모형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자료의 분석은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나 제도적 신뢰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거시차원의 분석이 따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3> Campbell의 교육의 영향분석 종속변수

정치참여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
시민활동 참여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것이 아닌 공공성을 지닌 활동
선거 참여	공공선거에서 투표참여
대인 신뢰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제도 신뢰	정부와 정당과 같은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
관용	비대중적인 그룹에 대한 시민적 자유를 확대하려는 자발적 의지
정치적 지식	민주적 제도와 과정에 대한 지식

자료: Campbell(2006), pp.31

또 이 연구는 교육수준이 사회참여나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교육의 어떤 특성이나 과정이 사회참여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Campbell은 왜 학교교육이 이들 요소에 중요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는 학교교육의 내용을 학습자가 형성하는 역량(여기서 학습자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얻는 역량은 관료적 역량, civic skills 및 인지역량으로 나누었다),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pedagogical method: 교실분위기 등), 학생회 자치활동, 교과 이외 과외활동, 지역자원봉사학습, 규범 등으로 나누어 보고 이들 교육의 내용이 정치적 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1999년의 IEA의 civic education study를 활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표 4-4> Campbell의 교육특성의 영향분석 결과

	지식	숙련(역량) : 민주적 지식 측정	투표 (예상)	시민참여 (예상)	정치참여 (예상)	제도적 신뢰	관용
수업분위기 (총합-개방성)	+	+	+	+	+	+	+
학교참여의 확신	+	+	+	-	-	*	+
전통적 시민적 규범	-	-	+	+	+	+	-
회원권의 수	-	-	*	+	+	*	*
회의의 수	+	+	+	+	+	+	*

자료: Campbell(2006), pp.94

주: +: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양의 관계

-: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부의 관계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

학교의 분위기(ethos) 중 특히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이 허용되는 수업분위기가 정치 시민 사회참여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주의를 대처하는 능력, 일반적 지식, 학생의 자치활동, 교과 외 활동 등도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평생학습으로서의 성인교육은 정치적 사회적 참여와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Campbell은 중등교육과 중등 이후 교육이 CSE에 미치는 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보았다.

### 제3절 평생학습과 사회통합의 관계의 이론적 틀

평생학습과 사회통합의 관계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의 평생학습은 학령기가 아닌 성인 시기에 경험한 정규교육과 학령기에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끝맺고 난 이후 성인시기에 경험한 무형식·비형식 교육을 포함하는 성인의 교육과 훈련을 뜻한다. 적절한 나이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학력을 취득하는 것을 평생교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다른 한편 정규교육 이외의 평생학습은 현직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훈련이나 또는 새로운 일자리 탐색을 목적으로 숙련과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재교육이나 또는 교양이나 인문학 교양을 얻기 위한 시민강좌일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러한 평생학습은 사회통합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앞서 Campbell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의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수업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면 평생학습을 하는 수업 분위기는 대체로 더 개방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으로서의 개인의 경험에 기초함으로써 사회문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평생학습이 성인들이 학습하는 공간이므로 교사에 의한 학생 통제가 이루어지기보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성인들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할 수 있다면 평생학습은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직업훈련이 아닌 인문학 등의 교양강좌에서 이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고병현, 2005).

Milner(2002)는 성인학습의 시민적 함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성인학습이 '시민 문해력(civic literacy)'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암시적인 증거를 스웨덴의 경우를 들어 제공하고 있다. Sweden의 study circle이 시민의 사회 및 공공 문제 참여를 자극함으로써 정치적 지식과 관심을 높이고 정치적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Feinstein & hammond(2004)는 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학습의 건강 및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인학습은 투표참가, 자발적 조직체의 회원가입, 인종적 관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학습의 참여는 권위주의와 정치적 냉소주의를 줄이기도 했다. 그러나 직업관련 학점인정 과목들은 정치적 사회적 참여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이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풍부하지 않다.

그러나 성인학습의 형태이든지 초·중등 고등교육과 같이 공식학교 교육이든지, 교육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Campbell이나 Green, Preston, Sabates(2003b)은 교육과 사회통합이 한 국가 내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지만 국가를 비교할 때 이 상관관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Putnam은 미국의 경우를 들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들보다 많이 참여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참여도 높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자본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들 사이의 통합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World Value Survey(WVS)의 17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한 Newton과 Norris(2000)는 개인의 수준에서는 교육과 사회자본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수준에서는 교육과 사회자본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한 국가 내에서 교육수준과 사회자본이나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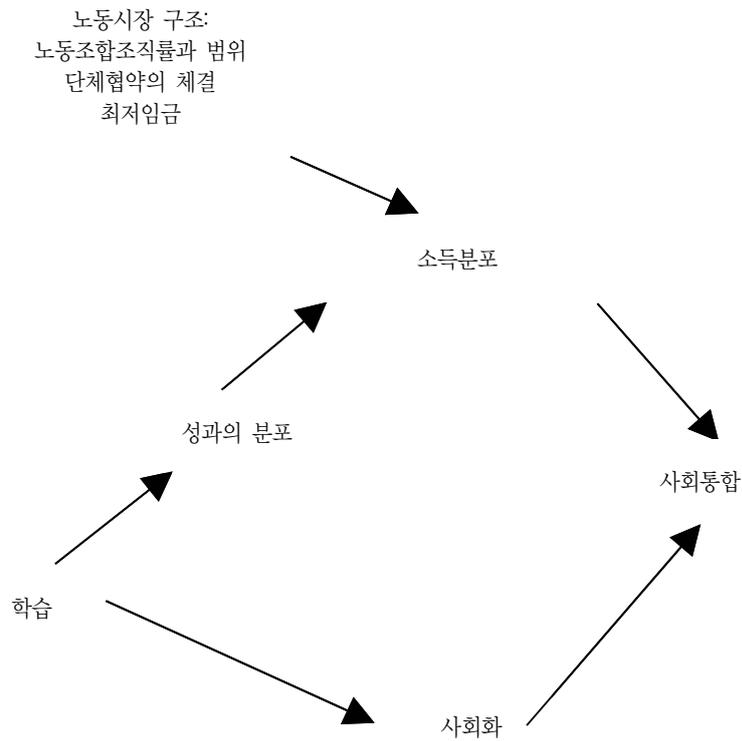
사회적 참여의 높은 상관관계가 국가단위 수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하고 WVS의 개인자료를 분석하되 국가 수준의 변수를 만들거나 다양한 국가 단위 자료를 통합하여 성인의 평생학습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인 틀은 Green et al.(2003a)의 교육의 배분모형을(distributional model) 활용하되 이를 변경한다. 이들은 학습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했다. 학습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첫 번째 경로는 학습결과(학업성취 등)의 분포가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개인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소득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학습성과의 분포가 확산되어 있을 경우 교육은 소득의 불평등을 높일 것이며 분포가 줄어들 경우 소득의 불평등을 줄일 것이다. 따라서 학습성과 분포는 임금분포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득분포의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구조(노동조합 조직률과 조직의 범위, 단체협약체결, 최저임금)적 특징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 결과 학습의 분포가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은 정규학교교육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데(장수명, 2005) 이 경우 평생학습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두 번째 경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화 과정은 개인 상호 간의 보편적 신뢰와 제도의 신뢰를 높이거나 범죄율을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로를 통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통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평생교육의 학력 간 참여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는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학력 간 불평등을 통제한 후 평생교육의 참여율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평생학습은 일반적으로 사회화 과정을 통한 경우에

는 사회통합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 사회통합의 제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림 4-1] 교육과 사회통합의 경로



자료: Green et al.(2003b), pp.461.

교육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Green et al.(2003b)은 WVS와 Interpol의 사회적 제도의 신뢰, 시민협력(세금과 대중교통 요금에서의 부정 정도), 그리고 폭력적 범죄에 관한 국가별 총합 수준의 자료를 통하여 복합적 지표를 만들어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주요한 관심 대상 독립변수로 IALS(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자료를 이용

하여 성인의 문해력에 관한 자료로 교육불평등 지표를 산출하였고, 교육불평등이 사회통합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교육불평등(성인문해력의 불평등)이 사회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성인문해력과 그 불평등이 성인의 평생학습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면 이는 곧 평생학습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된다. 개인이나 국가의 평균적인 교육의 수준이 아니라 학습성과의 분포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제4절 자료 및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학습의 일부로서 성인학습이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예, Plewis & John Preston(2001), Evaluating the Benefits of Lifelong Learning)에서 '평생학습'은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과 학습을 의미한다. 이때의 평생학습은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의 효과도 일부 분석하지만 특히 성인으로 경험한 정규교육이나 정규교육을 마친 이후에 성인으로서 경험한 평생학습의 효과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우선 대인 신뢰와 제도 신뢰나 사회적 참여나 정치적 참여 또는 사회 통합적 가치를 개인 차원에서 국가별로 조사한 세계가치조사(WVS: World Value Survey)를 활용할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교육과 평생학습의 변수들을 활용하거나 변형하여 교육과 평생교육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동시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다양한 국가별 자료를 통합하여 사회통합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제하고 일반적 교육변수를 포함하여 평생학습의 효과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수준의 자료를 이에 통합하여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차원의 자료는 국제기구

나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성인의 평생학습의 통계들이다. EU는 LFS (Labour Force Survey)를 실시하여 1996년부터 현재까지 EURO지역(33개국 대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였다. 또 OECD는 Education at a Glance(2003)에 성인의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의 참여율과 비형식 일자리 관련 계속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공표하고 있다. 2004년부터 OECD는 성인의 일자리 관련 계속교육 참여율을 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평생교육 참여율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의 평균 교육수준 등 다양한 국가차원의 변수를 통제한 후 성인의 평생학습이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정규학교교육을 통제하는 가운데 정규교육의 효과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sup>8)</sup> 다음은 자료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방법들이다.

#### 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와 국제자료의 결합 자료 분석

사회통합을 분석하는 데 종속변수로 몇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WVS(세계가치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자본 또는 CSE(civic and social engagement)의 지표를 이용할 것이다. 이 분석은 개인 차원의 사회 시민적 참여 변수들과 국가의 변수들을 결합하여 개인 수준의 정규교육과 평생교육이 이들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ampbell은 CSE에 대한 지표로 정치참여, 시민활동참여, 투표참여,

8) 국제성인문해력 조사(IALS: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에서 현재는 성인의 문해 및 생애능력조사(All: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로 변경된 조사가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나 활용 가능하지 않았다. 이 성인문해력은 이들의 학교교육과 성인학습의 복합적 산물일 것이다. 각 국가의 평균적인 성인문해력과 성인문해력의 불평등 지수를 만들어 이들이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각 국가별로 개인의 성인문해력과 이들이 받은 공식적인 교육수준과 관계를 회귀분석의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여 학교교육이 문해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이후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경우 정규교육의 평균수준과 성인문해력을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성인문해력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문해력 조사는 1994년 7개국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후 23개국의 참가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4년에 5,006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임연 외, 2005).

대인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 관용과 정치적 지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정치적 참여 활동, 시민활동참여와 제도적 신뢰 등을 사회통합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EU Council의 사회통합 지표에도 이들 변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참여의 수준은 소외현상의 반대로서 사회적 통합의 지표로 타당하며, 개인 상호 간의 신뢰 이외에 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지표로 타당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세계가치조사는 제5회 조사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54개 국가에서 77,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이다. 한국의 경우 2005년에 조사되었고 20세 이상 1,200명이 조사되었다. 세계가치조사에서 본 연구가 관심을 두는 종속변수는 다음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전쟁에 참여할 의지를 보인 것을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 국가 통합가치로 간주하였다. 이는 자신의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그만큼 자기 사회와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수적 또는 통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요소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에 따른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사회에 대한 동질성이 높을 때 이를 가진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통합적 가치에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가에 대한 소속감은 자신을 자기 나라의 일부라고 동의하는 경우(전적으로 찬성하거나 찬성하는 경우)를 1로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0으로 하는 가변수를 한 것으로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96%)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을 싫어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참여하겠다는 것 또한 국가적 결속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참여 의지도 매우 높다. 대상자 중에 상당수가 여성과 고령임을 고려할 때 73%에 이르는 수치는 매우 높은 것이다. 대개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4-5&gt; 세계가치조사(WVS)의 사회통합변수

변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수
국가소속감	0.956 (0.20)	0	1	48,086
전쟁참여의지	0.728 (0.45)	0	1	46,653
일반적 신뢰	0.262 (0.44)	0	1	50,221
상대적 신뢰	69.123 (19.55)	25	300	45,807
제도신뢰1	39.607 (7.87)	18	61	20,714
제도신뢰2	12.364 (2.28)	6	17	26,420
민주적 가치	0.331 (0.47)	0	1	51,053
사회통합가치	0.245 (0.43)	0	1	51,185
정치행동참여	0.377 (0.48)	0	1	41,702
선거참여	0.754 (0.43)	0	1	45,851
사회활동단체참여	2.648 (3.32)	0	18	49,566
이웃관용	12.364 (1.81)	7	14	46,538
소수자 고용관용	10.777 (2.57)	4	16	46,292
인종 다양성	6.622 (2.68)	1	10	45,011
공정성	5.768 (2.66)	1	10	49,851
선택자유	7.140 (2.21)	1	10	51,104
반부패	17.85 (3.61)	2	20	49,527
시장가치	14.796 (4.99)	3	10	49,579
삶의 만족도	6.798 (2.24)	1	1	51,519

그러나 사회통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뢰,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참여로 볼 수 있다. WVS는 개인의 신뢰를 몇 가지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있는데 이를 변형하여 본 연구의 신뢰분석에 활용하였다. 첫째, WVS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 믿을 수 있다’와 ‘조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응답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대부분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기타를 0 값으로 하는

가변수를 만들었다. 둘째, WVS는 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등에 대한 신뢰를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질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VS 설문지와 다르게 신뢰의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을 4점을 주고 가장 낮은 신뢰수준을 1점으로 하여 각각의 신뢰수준을 측정하고 후 처음 만난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의 합을 가족, 이웃 및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의 합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다음 이를 상대 신뢰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이웃 또는 아는 사람에 대해 신뢰하기는 쉬어도 낯선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이를 신뢰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지를 신뢰하기는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나라별로 신뢰를 표현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비교하는 것이 개인의 신뢰를 바르게 측정하는 것일 수 있다. 셋째, WVS는 제도에 관한 신뢰로 교회, 군대, 신문, 텔레비전, 노동조합, 경찰, 사법부, 행정부, 정당, 의회, 시민단체, 대기업, 환경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인권/자선단체 등에 대한 신뢰를 4개의 수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조직과 단체에 대한 신뢰수준을 합하여 계산하고 이를 제도신뢰1로 규정하여 측정하였고, 제도신뢰2는 신문, 경찰, 법원, 정부의 4가지 항목에 대한 신뢰수준만을 합하여 만들었다. 이는 경찰, 법원, 정부가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신문은 이 기관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므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다 잘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나 민주적 정치 의사표시 등을 적극적 사회통합의 통로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가치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우선 국가가 향후 10년간 이루어야 할 국가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나 언론자유 확대를 선택한 경우를 사회질서 유지와 물가 상승 억제로 본 견해와 대비하여 민주주의적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간적 사회와

돈보다 아이디어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경제안정과 범죄소탕을 선택한 경우와 대비하여 사회통합가치를 선택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탄원 혹은 진정, 보이콧, 시위 등의 정치적 행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한 것으로 정치적 행동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통로로 이를 고려하였다. 셋째로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의 참여여부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종교단체, 스포츠, 레크레이션, 예술 문화교육단체, 노동단체, 정당, 환경보호단체, 전문가협회, 인권 혹은 사회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등 결사체의 참여를 점수화하여 사회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의 한 변수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관용의 정도를 통합의 한 변수로 활용하였는데 WVS의 조사 항목 중 다양한 사람들(다른 인종, 에이즈 환자, 외국인 노동자/이민자, 동성연애자, 종교가 다른 사람, 결혼하지 않고 같이 동거하는 사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여성과 외국인을 남성과 내국인과 비교해서 고용 평등권을 주어야 한다는 소수자 고용에 대한 태도, 인종적 다양성이 국가통합을 해친다는 입장과 대비하여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를 인종다양성이란 관용지수로 만들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공평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정하게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종속변수로 만들었다. 공정한 대우는 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1에서 10 규모로 측정되고 있다. 또 생활이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력과 자유선택이 많다고 믿는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회에 통합된 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선택자유가 이를 나타내는 변수인데 1에서 10까지 지수로 측정되고 있다. 각각 7점과 6.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는 탈세와 뇌물수수에 대해 '항상 정당화된다'에 1점을 부여하고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응답에 10점을 부여한 것을 합한 것으로 상한 20점, 하한 2점이 되도록 한 것이다. 시장가치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개인의 생각을 점수화하여 합한 것이다. 우선 소득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1점부터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있다' 10점까지의 점수,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한다' 1점부터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10점까지의 점수, 그리고 '경쟁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창조성을 높인다' 1점에서부터 '경쟁은 인간의 사악함을 조장한다' 10점까지의 점수를 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통합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 사회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또한 하나의 결과변수로 포함하였다.

WVS에 나타난 이들 변수에 미치는 평생교육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표본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1) WVS 가치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효과를 회귀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제변수는 나이, 남성여부, 혼인상태, 소득층위 등이었다. 관심대상이 되는 종속변수로는 개인의 교육수준, 상대적 소득수준, 각 나라 표본의 평균교육수준, 교육수준의 편차 등을 계산하여 포함시켰다. WVS의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대학교로 나눈 범주변수로 되어 있다. 평균교육수준은 이들 수준의 가치를 평균으로 한 것이고 표준편차는 표본 내의 표준편차를 계산한 것이다. 상대적 교육수준은 자신의 교육수준을 평균교육수준으로 나눈 값이다.

성인의 평생학습을 측정하기 위해 편의 상의 변수를 만들었는데, 전문대 이하 교육수준을 최종적으로 마친 사람이 25세 이후에 최종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평생교육을 받았다고 간주하였다. 물론 대학졸업자의 경우도 25세 이후에 교육에 참여하여 평생교육을 통하여 대학졸업을 하였을 가능성도 높지만, 초등학교에서 전문대학을 25세 이상에서 마감했을 경우에 이를 평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다. 이 표본에서는 이들 교육변수의 효과를 검토하였다.<sup>9)</sup>

$$Y_i = X\Gamma + \beta_1 Edu + \beta_2 Edu25 + \beta_3 Redu + \gamma_1 Medu + \gamma_2 Vedu + \epsilon_i \quad (1)$$

(1)의 OLS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것이다. 여기서  $X$ 는 통제변수이고,  $Edu$ 는 교육수준,  $Edu25$ 는 본 연구가 가장 관심을 갖는 평생학습을 통한 정규교육 경험을 나타내는 가변수이고,  $Redu$ 는 표본 내의 평균교육수준과 비교하여 나타낸 상대적 교육수준이고,  $Medu$ 는 국가의 평균교육수준을,  $Vedu$ 는 교육수준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추정 회귀 방정식은 몇 가지 문제를 갖는다. 우선 WVS의 경우 각 나라의 표본 수가 인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효과가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모든 표본 수의 1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인구가 많은 나라의 표본이 추정효과를 압도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신뢰지수, 통합지수, 참여지수 등 다양한 종속변수들이 1에서 10까지의 수 등으로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값(또는 수치)이 상한과 하한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삶의 불만족 수준이 매우 높아 부(-)의 값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도 1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개인적으로 삶의 만족 수준이 매우 높아 10의 값을 넘어서는 값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에도 10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종속변수의 값이 양측에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한 상한 값을 가지는 양극 tobit 모형(tobit with two limits)을 추정하였다.

양극 tobit 모형은 Maddala(1983)가 설명하고 있는데 보다 쉽게 만족도라는 종속변수를 가지고 설명하자. 이 경우 이 만족도를 진정으로 나타내는 잠재변수( $y_i^*$ )의 함수를  $y_i^* = \theta' x_i + u_i$  라면, 관측되는 변수의 값은 1,

9) 여기 보고하지 않았지만 전문대학 미만은 25세 이상, 대학은 30세 이상에서 끝마친 경우를 평생교육으로 정의해도 분석결과는 거의 동일하였다.

2, 3, 4, 5, 6, 7, 8, 9, 10의 값이 된다. 이때 삶의 불만족이 매우 높아 부(-)의 값을 가진 사람도 1 이하로 자신의 불만족을 나타낼 수 없으며 또 삶에 대해 극단적으로 만족하는 경우에도 10 이상의 수치를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양 극단을 고려할 때 관측되는 값은 다음과 같다.<sup>10)</sup>

$$\begin{aligned} y_i &= 1 \quad \text{if } y_i^* \leq 1 \\ &= y_i^* \quad \text{if } 1 \leq y_i^* \leq 10 \\ &= 10 \quad \text{if } y_i^* \geq 10 \end{aligned} \quad (2)$$

여기서 1과 10은 하한과 상한이다. 이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OLS 회귀분석은 계수추정에서 편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고려한 양극 tobit 모형을 활용하여 이를 분석하며, OLS와 양극 tobit 모형의 차이를 일부 보고자 한다.

또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에는 가중치를 둔 probit 모형을 분석하여 교육관련 변수, 특히 평생교육 지표 변수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둘째 표본은 WVS의 자료와 Barro-Lee 등의 자료에 모두 있는 WVS의 관측치로 이 두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각 나라의 1인당 소득, 인구수, 정치적 불안정 지수, 시민의 자유지수 등을 통제하고 개인의 평생교육 경험여부와 더불어 각국의 평균교육수준, 교육 불평등이 개인의 통합적 가치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Y_i = X_i\Gamma + \beta_1 Edu + \beta_2 Edu25 + Z\lambda + \epsilon_i \quad (3)$$

여기서 Z는 국가단위 변수를 의미하고 국가수준의 교육에 관한 모든 변수도 포함된다.

셋째 표본은 이들 자료와 더불어 고용현장에서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10) 만족도가 각 정수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 이를 무시한다.

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EU국가들로 WVS의 표본을 제한한 것이다. 이 표본 분석에서는 정규교육을 통제하고 각국의 평생학습이 개인의 통합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Y_i = X_i\Gamma + \beta_1 Edu + \beta_2 Edu25 + Z\lambda + \theta nledu + \epsilon_i \quad (4)$$

여기서  $nledu$ 은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참여율을 나타낸다. 이 변수의 값은 국가의 평생교육수준이 개인이 가진 통합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1), (3)과 (4)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Edu25$ 로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전문대학교 이하의 정규교육을 25세 이상에서 마친 사람들을 대표한다. 대부분의 초중등 교육이 20세 이하에서 끝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교육을 이후에 받았다는 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규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초중등 교육이 보편화된 시기는 근래의 일이고 특히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한 경우에 더욱 그렇다. 많은 나라들은 적령기에 초중등 정규교육을 놓친 성인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정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정규학교에서 성인들이 필요한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된다. 많은 나라의 경우 전문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성인들의 재교육 및 정규교육을 담당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community college이다. 여기서 적령기 정규교육을 놓친 성인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사회통합의 의미를 지니지만, 사회경험이 풍부한 성인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경험과 결합하여 또 다른 사회통합적 가치를 형성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제5절 WVS 자료의 분석결과

### 1. WVS 자체 자료 표본

이 표본은 WVS의 3차 자료의 표본 77,000명 중에서 나이, 혼인여부, 학력과 소득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관측치이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평균나이는 41세이고 남성이 49%를 차지하고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사람이 11%, 미혼이 26%, 63%가 결혼한 상태이다. 소득은 1에서 10 수준으로 나누어 2에서 10 수준까지의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중간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다. 교육수준은 초등졸업자가 16%, 중학교 졸업자 20%, 고등학교 졸업자 18%, 대학졸업자 16%가 되고 나머지는 무학이거나 각급 학교 중퇴나 재학 중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을 고등학교 이하 정규교육을 25세 이상에서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20세 이하에서 종결되는 것을 고려하면, 25세 이후에 학교수준에 진학하거나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람들은 평생학습으로 이를 경험했다고 보면 된다. 각국 표본의 평균교육 수준을 계산하여 각국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을 나타내도록 하였는데 5.32로 매우 낮다. 이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적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를 만들었는데 자신의 교육수준을 표본의 평균교육수준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였다.

이로써 Campbell(2006)의 3개의 교육모형의 효과를 모두 검증할 수 있는 변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Campbell은 개인의 절대적 교육 수준이 시민적 사회적 참여를 확대한다고 보는 것을 절대적 교육모형으로 보았고, 분류모형은 주변 사람들의 교육수준과 자신의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위계가

높은 사람이 보다 많은 참여를 하는 모형이라고 보았다. 한편 누적 모형은 개인의 교육수준보다 동료의 교육수준, 즉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를 한다는 가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내의 교육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추가하였다. 분류모형에 의하면 평균교육수준이 동일한 나라 사이에 교육표준편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사회참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류모형에 따르면 상대적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의 참여율이 높을 것이다.

<표 4-6> WWS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변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나이	41.182 (16.22)	15	98
남성	0.490 (0.50)	0	1
이혼별거	0.111 (0.31)	0	1
미혼	0.262 (0.44)	0	1
소득수준2	0.099 (0.30)	0	1
소득수준3	0.130 (0.34)	0	1
소득수준4	0.139 (0.35)	0	1
소득수준5	0.186 (0.39)	0	1
소득수준6	0.135 (0.34)	0	1
소득수준7	0.106 (0.31)	0	1
소득수준8	0.065 (0.25)	0	1
소득수준9	0.026 (0.16)	0	1
소득수준10	0.026 (0.16)	0	1
교육수준			
초등학교 재학 중퇴	0.075 (0.26)	0	1
초등학교 졸	0.156 (0.36)	0	1
중학교 재중	0.074 (0.26)	0	1
중학교 졸	0.203 (0.40)	0	1
고등학교 재중	0.074 (0.26)	0	1
고등학교 졸	0.182 (0.39)	0	1
전문대학	0.069 (0.25)	0	1
대학	0.163 (0.37)	0	1
평생정규교육	0.072 (0.26)	0	1
표본 각국 표준편차	2.179 (0.35)	0	1
표본 각국 평균교육수준	5.327 (1.06)	2.71	7.36
상대적 교육수준	108.138 (44.33)	13.6	331.9
관측치 수	51,963		

아래 <표 4-7>은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단체 참여에 대한 회귀분석을 OLS, 국가별 표본 수를 고려하고 가중치 한 OLS, 그리고 가중치와 양측 한계를 가진 양극 tob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인의 사회활동단체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통합에 개인이 기여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에 이 두 종속변수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삶의 만족수준에 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자.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낮다. 결혼한 사람보다 이혼 중이거나 별거 중인 사람 등의 만족수준이 낮다. 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각국의 평균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국가 내에서 표본 추출된 사람들 사이의 교육 불평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차원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과 국가차원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교육수준의 차이를 두는 것이 삶의 만족에 매우 복잡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저소득 불평등이 높은 국가의 만족도가 높은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육의 차이를 늘리는 것도, 그리고 교육의 수준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고등교육취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평생정규교육' (전문대학 이하 교육을 25세 이후 마친 사람)의 계수를 살펴보면, 양으로 유의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다는 것이다. 평생정규교육의 계수의 추정 값은 제(1)열에서는 0.19로 유의하였다. 단순한 OLS 회귀분석보다 가중치

를 고려한 경우 제(2)열에서 이 계수의 추정 값은 0.24로 크게 높아졌고, 가중치와 양측 절단된 값을 고려한 제(3)열의 양극 tobit 계수 추정 값은 이보다 큰 0.26으로 높아졌다. 이 결과는 또한 가중치를 고려한 양극 tobit 모형이 타당한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상대적 교육수준이 높은 것은 오히려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며 역으로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좀 더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음 3개의 열은 사회의 각종 단체 활동의 참여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3개 모형 모두에서 남성의 계수는 양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사회활동참여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미혼의 사회활동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제(3) 모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중치만을 고려할 때는 대부분의 계수들이 낮아졌고 가중치와 함께 상하 양측 한계를 고려한 tobit 모형의 경우 계수의 값이 커졌다.

평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활동이 적었으나 교육편차가 클수록 사회활동의 참여가 높았다. 평균교육년수의 효과는 개인적 차원의 변수를 통제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평균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편차의 계수가 부(-)로 유의한 것은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 불평등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의 참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자료를 통합한 경우에 매우 다르게 나타나 해석하기 쉽지 않다.

한편 '평생정규교육'의 계수는 양으로 유의할 뿐 아니라 계수의 크기가 모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제(1), (2) 모형에서 계수의 값이 0.96~0.99 수준이었으나 제(3) 모형의 경우 1.58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평생교육이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역의 상관관계의 가능성, 즉 사회활동이 왕성한 사람이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

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교육이 정규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상대적 교육년수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는 시민참여와 사회적 참여의 교육모형을 연구한 Campbell(2006)의 세 가지 모형 중 절대적 교육모형을 지지하나 분류모형과 누적모형은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이 삶에 대한 만족도나 사회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추정모형은 가중치를 고려하고 양측 한계를 고려한 양극 tobit 모형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 4-7>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참여

	삶의 만족도			사회활동단체 참여		
	OLS	가중 OLS	가중 양극 tobit	OLS	가중 OLS	가중 양극 tobit
독립변수	(1)	(2)	(3)	(1)	(2)	(3)
나이	0.003 (4.65)	0.003 (3.66)	0.003 (3.82)	-0.002 (1.67)	-0.0005 (0.47)	-0.001 (0.61)
남성	-0.101 (5.26)	-0.085 (4.39)	-0.100 (4.48)	0.297 (10.09)	0.234 (8.18)	0.372 (8.45)
이혼별거	-0.329 (10.16)	-0.339 (9.69)	-0.380 (4.48)	0.052 (1.06)	0.076 (1.68)	0.195 (2.72)
미혼	-0.123 (4.87)	-0.140 (5.41)	-0.163 (5.47)	0.102 (2.62)	0.070 (1.81)	0.186 (3.19)
소득수준2	0.279 (6.33)	0.264 (4.66)	0.298 (4.55)	-0.124 (1.80)	-0.128 (2.11)	-0.185 (1.75)
소득수준3	0.363 (8.72)	0.359 (6.82)	0.381 (6.27)	-0.001 (0.02)	-0.020 (0.34)	0.027 (0.27)
소득수준4	0.597 (14.43)	0.557 (10.94)	0.582 (9.89)	0.073 (1.14)	0.059 (1.01)	0.187 (1.90)
소득수준5	0.946 (23.94)	0.887 (18.13)	0.947 (16.64)	0.154 (2.52)	0.157 (2.80)	0.412 (4.41)
소득수준6	1.214 (28.91)	1.144 (23.02)	1.213 (20.93)	0.473 (7.29)	0.450 (7.35)	0.842 (8.53)
소득수준7	1.518 (34.18)	1.446 (28.62)	1.525 (25.87)	0.694 (10.13)	0.664 (10.05)	1.183 (11.46)

<표 계속>

	삶의 만족도			사회활동단체 참여		
	OLS	가중 OLS	가중 양극 tobit	OLS	가중 OLS	가중 양극 tobit
소득수준8	1.708 (33.97)	1.641 (30.21)	1.751 (27.47)	0.924 (11.94)	0.874 (11.23)	1.434 (12.29)
소득수준9	1.734 (25.63)	1.665 (24.64)	1.820 (22.59)	1.230 (11.91)	1.212 (11.35)	1.915 (12.87)
소득수준10	1.888 (27.64)	1.832 (26.42)	2.044 (23.88)	1.434 (13.76)	1.449 (13.37)	2.257 (15.36)
교육수준						
초등학교	0.327 (2.22)	0.531 (2.81)	0.646 (3.01)	0.352 (1.58)	0.294 (1.38)	1.210 (2.86)
재학 중퇴	0.906 (6.02)	1.157 (6.07)	1.327 (6.13)	0.310 (1.37)	0.234 (1.07)	0.970 (2.27)
중학교 재중	1.207 (7.51)	1.475 (7.43)	1.706 (7.54)	0.343 (1.41)	0.241 (1.04)	0.993 (2.24)
중학교 졸	1.352 (8.09)	1.638 (8.05)	1.868 (8.07)	0.574 (2.26)	0.499 (2.05)	1.418 (3.13)
고등학교 재중	1.404 (7.82)	1.664 (7.78)	1.895 (7.78)	1.121 (4.09)	0.848 (3.21)	1.964 (4.12)
고등학교 졸	1.502 (7.97)	1.797 (8.14)	2.025 (8.06)	0.563 (1.95)	0.435 (1.56)	1.220 (2.48)
전문대학	1.802 (8.91)	2.162 (9.35)	2.413 (9.17)	1.162 (3.74)	0.907 (3.02)	2.010 (3.89)
대학	2.010 (9.47)	2.376 (9.93)	2.641 (9.71)	1.372 (4.20)	1.189 (3.78)	2.504 (4.69)
표본 각국 평균	-0.104 (4.30)	-0.146 (6.02)	-0.181 (6.55)	-0.346 (9.13)	-0.336 (9.33)	-0.443 (8.15)
교육수준						
표본 각국	0.156 (5.20)	0.362 (11.39)	0.448 (12.30)	-0.264 (5.78)	-0.142 (2.71)	-0.641 (8.32)
표준편차						
평생정규교육	0.192 (4.96)	0.237 (6.33)	0.257 (5.92)	0.963 (16.08)	0.990 (15.67)	1.575 (19.00)
상대적교육수준	-0.009 (9.54)	-0.010 (11.39)	-0.011 (11.15)	0.002 (1.10)	0.002 (1.48)	0.003 (1.40)
상수	5.726 (26.45)	5.424 (22.01)	5.375 (19.12)	3.724 (11.22)	3.377 (10.16)	2.423 (4.29)
Wald $\chi$ Square	0.0765	0.0741	138.54	0.0547	0.0542	113.67
관측치 수	51,519	51,519	51,519	49,566	49,566	49,566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낸다.

다음 <표 4-8>는 국가소속감과 전쟁참여의지를 나타내는 보수적 사회통합적 가치와 신뢰에 관한 prob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여기서는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고 교육관련 계수들만 보고하고 논의한다. 국가의 소속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교육관련 계수의 추정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아주 높을 경우 소속감이 다소 낮다. 교육의 편차가 클수록 오히려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높게 나타난다. 상대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 소속감이 높게 나타나며 평생 정규교육의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경우 전쟁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에서 참여하겠다는 여부에 대한 probit 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가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소 낮으며 또한 평균교육년수가 높을수록 낮다. 교육의 편차는 참여의사를 높이고 있다. '평생정규교육'의 계수의 절대값은 작지만 양(+)으로 유의하여 전쟁참여와 같은 애국적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상대적 교육년수 또한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많은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신뢰에 관한 것이다. 제(3)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1) 또는 아니오(0)의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가중치를 고려한 probit 모형이고, 제(4)열은 가족, 이웃, 친지에 대한 신뢰와 처음 만난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 중에서 후자를 전자에 나눔으로써 계산한 상대적 신뢰에 대한 양극 tobit 모형이다. 제(5)열은 교회, 군대, 신문, 텔레비전, 노동조합, 경찰, 사법부, 행정부, 정당, 의회, 시민단체, 대기업, 환경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인권/자선단체 등에 대한 신뢰를 합한 '제도적 신뢰1'에 관한 tobit 회귀분석 결과이고, 제(6)열 tobit 모형은 '제도적 신뢰2'에 관한 것으로 이는 신문, 경찰, 사법부, 행정부에 관한 신뢰를 합한 값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신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대

적으로 낮은 사람을 신뢰할 가능성이 또한 높아진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신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떨어진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과 대조를 보여 주고 있는데 사람에 관한 신뢰 수준은 높아지나 각 제도에 대한 신뢰는 교육 받는 사람일수록 낮다. 평균 교육수준의 영향력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아는 사람과 비교해서 낮은 이를 신뢰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제도적 신뢰<sup>1</sup>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국가 기관과 신문에 대한 신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나라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기관과 신문을 제외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 교육수준은 일반적 신뢰와 상대적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제도적 신뢰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차원의 정규교육은 일반적 신뢰나 상대적 신뢰를 높이고 있으나 제도적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이 적어도 일반적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과 신뢰에 관한 관계의 복잡성은 대체로 교육이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무척 복잡한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보고하지 않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제도와 관련된 업무가 많고 또 그 혜택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표 4-8> 보수적 통합과 신뢰

구분	(1)	(2)	(3)	(4)	(5)	(6)
모형	probit 모형	probit 모형	probit 모형	양극 tobit	양극 tobit	양극 tobit
독립변수 \중속변수	국가소속감	전쟁참여 의지	일반적 신뢰	상대적 신뢰	제도신뢰1	제도신뢰2
교육수준						
초등학교	0.004	-0.056	-0.108	2.441	-0.892	-1.000
재학 중퇴	(0.35)	(1.51)	(3.86)	(1.49)	(0.78)	(3.63)
초등학교 졸	0.004	-0.006	-0.043	3.489	-2.650	-1.112
	(0.30)	(0.15)	(1.38)	(2.11)	(0.78)	(3.96)
중학교 재중	-0.01	-0.032	-0.019	5.753	-2.822	-1.307
	(0.83)	(0.80)	(0.54)	(3.34)	(2.37)	(4.35)
중학교 졸	-0.020	-0.056	0.021	6.287	-5.136	-1.752
	(1.09)	(1.34)	(0.55)	(3.57)	(4.18)	(5.55)
고등학교 재중	-0.027	-0.100	0.057	8.351	-6.399	-2.057
	(1.23)	(2.16)	(1.35)	(4.51)	(4.91)	(6.04)
고등학교 졸	-0.036	-0.090	0.102	6.866	-6.902	-1.907
	(1.56)	(1.89)	(2.23)	(3.59)	(5.05)	(5.27)
전문대학	-0.046	-0.148	0.182	10.129	-7.642	-2.090
	(1.67)	(2.80)	(3.50)	(5.05)	(5.29)	(5.38)
대학	-0.064	-0.136	0.265	12.562	-7.977	-2.064
	(2.13)	(2.50)	(4.79)	(6.03)	(5.24)	(5.01)
표본 각국 평균	-0.0008	-0.010	0.020	-0.358	0.451	-0.057
교육수준	(0.29)	(1.84)	(3.47)	(1.63)	(2.76)	(1.26)
표본 각국	-0.035	0.077	0.013	-7.627	0.086	-0.026
표준편차	(12.85)	(11.60)	(2.02)	(26.17)	(0.39)	(0.46)
평생정규교육	0.003	0.034	0.397	3.275	-0.190	-0.091
	(0.68)	(3.94)	(4.70)	(9.12)	(0.94)	(1.57)
상대적교육수준	0.0004	0.001	-0.002	-0.022	0.047	0.007
	(4.08)	(2.92)	(6.96)	(2.79)	(6.43)	(3.40)
상수				78.750	36.560	13.588
				(35.96)	(21.87)	(32.39)
Wald $\chi$ Square	316.12	1560.44	2388.40	88.12	22.12	23.15
관측치 수	48,086	46,653	50,221	45,807	20,714	26,420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z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 <표 4-9>은 민주적 가치나 사회통합적 가치를 시장가치나 사회안정 등보다 높게 평가하는 지표인 민주적 가치와 통합적 가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다. 민주적 가치는 물가 상승 억제나 사회질서 유지를 선택하지 않고 정부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참여확대나 언론자유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를 1로, 물가 상승 억제나 사회질서 유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경우를 0으로 놓은 이항변수로 가중치를 고려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적 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교육수준이 높다고 민주적 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교육 불평등이 높을수록 민주적 가치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교육수준도 민주적 가치 선택에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정규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25세 이하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들보다 더 높은 민주적 가치를 보였다.

사회통합적 가치는 경제안정과 범죄소탕보다 더욱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돈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로의 발전을 선택한 사람을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준 이항함수로 pr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개인의 교육 효과는 유사하게 높으나 평균교육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육편차는 오히려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대적 교육수준은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평생 정규교육은 유사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의 높은 사회적 통합적 가치를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행동참여는 어떠한가? 정치적 참여는 청원, 보이콧 또는 시위에 참여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이항함수를 만들었고 probit 모형을 추정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적극적 정치행동이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개인과 집단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은 그 사회의 정치적 참여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의 교육수준과 직접적 정치행동 참여와는 거의 상관없이 나라의 평균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편차가 클수록 참여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한편 상대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의 가능성은 높으며 평생정규교육 또한 뚜렷하게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의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높았다. 그러나 나라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낮으며 표준편차가 클 경우에도 낮았다. 상대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았으나 평생정규교육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높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은 대체로 민주주의적 사회통합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효과가 대체로 나라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편차가 높을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생정규교육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본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고려하며 평생교육으로서 진행되는 정규교육은 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t;표 4-9&gt; 통합가치와 정치참여

구분	Probit 모형	Probit 모형	Probit 모형	Probit 모형
독립변수	민주적 가치	통합적 가치	정치적 참여	선거참여
교육수준				
초등학교 재학중퇴	-0.019 (0.5)	0.113 (2.81)	0.071 (1.39)	0.101 (4.06)
초등학교 졸	0.049 (1.25)	0.108 (2.70)	0.047 (0.93)	0.138 (3.18)
중학교 재중	0.134 (3.14)	0.136 (3.18)	0.082 (1.54)	0.152 (4.45)
중학교 졸	0.151 (3.45)	0.118 (2.77)	0.077 (1.43)	0.199 (5.06)
고등학교 재중	0.195 (3.45)	0.132 (2.83)	0.061 (1.10)	0.168 (6.20)
고등학교 졸	0.179 (3.67)	0.138 (2.90)	0.025 (0.45)	0.224 (5.42)
전문대학	0.275 (5.22)	0.230 (4.34)	0.080 (1.33)	0.223 (6.93)
대학	0.296 (5.44)	0.249 (4.61)	0.123 (1.97)	0.287 (7.88)
표본 각국 평균교육수준	-0.039 (9.91)	0.005 (0.96)	0.045 (7.35)	-0.051 (9.33)
표본 각국 표준편차	-0.068 (5.99)	0.020 (3.15)	-0.026 (3.14)	-0.035 (5.08)
평생정규교육	0.05319 (4.57)	0.040 (4.86)	0.144 (14.50)	0.050 (6.08)
상대적교육수준	-0.001 (2.79)	-0.0001 (0.38)	0.002 (6.91)	-0.001 (7.48)
Wald $\chi$ Square	907.74	718.57	2002.77	3303.82
관측치 수	51,053	51,185	41,702	45,851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z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 <표 4-10>은 사회적 관용에 관한 분석결과로 모두 가중치를 고려하여 양극 t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이웃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살고 싶지 않다'에 1, '살고 싶다'는 응답에 2를 주는 것인데, 다른 인종, 에이즈 환자, 외국인노동자/이민자, 동성연애자, 종교가 다른 사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한 사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웃 선호여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들 응답에 대한 값을 합하여 종속변수를 만들고 양극 tobit 모형을 회귀 분석 한 결과이다. 소수자 고용관용은 일자리가 귀할 때 여성에 비해 남성,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의 우선 고용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두 개의 별도 질문에 이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3점, 중립적인 사람에게 2점, 찬성하는 사람에게 1점을 부여하여 합한 것이다. 인종적 다양성은 인종적 다양성이 한 나라의 통합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1점을 주고 이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의견에 10점을 주는 방식으로 종속변수를 만들고 양극 tobit 모형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웃관용과 소수자 고용관용의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나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견해에는 교육의 효과가 유의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적었다. 각국의 평균교육수준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표준편차는 이웃관용에 양의 효과를 소수자 고용관용과 인종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교육수준도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생정규교육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뚜렷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lt;표 4-10&gt; 사회적 관용

	양극 tobit	양극 tobit	양극 tobit
독립변수	이웃관용	소수자 고용관용	인종적 다양성
교육수준			
초등학교 재학 중퇴	0.795 (3.39)	0.644 (3.11)	-0.144 (0.49)
초등학교 졸	1.408 (5.90)	1.310 (6.22)	-0.058 (0.20)
중학교 재중	2.627 (10.40)	1.711 (7.68)	0.396 (1.27)
중학교 졸	2.887 (10.99)	2.083 (9.02)	0.219 (0.68)
고등학교 재중	3.552 (12.65)	2.204 (8.92)	0.280 (0.81)
고등학교 졸	3.345 (11.43)	2.166 (8.41)	0.485 (1.36)
전문대학	4.725 (15.07)	3.038 (11.07)	0.718 (1.89)
대학	5.093 (15.53)	3.329 (11.62)	1.227 (3.11)
표본 각국 평균교육수준	-0.407 (11.16)	-0.248 (8.00)	-0.304 (7.15)
표본 각국 표준편차	0.202 (4.52)	-0.256 (6.76)	-0.550 (9.05)
평생정규교육	0.643 (11.42)	0.439 (9.34)	0.225 (3.31)
상대적교육수준	-0.023 (16.88)	-0.011 (8.93)	-0.003 (2.06)
상수	13.210 (40.14)	132.210 (40.14)	9.877 (23.51)
Wald $\chi$ Square	85.75	127.94	38.36
관측치 수	46,538	46,292	49,851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 <표 4-11>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정성,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 부패(뇌물수수과 탈세)에 대한 의견, 그리고 소득분배, 정부의 복지역할, 경쟁에 대한 견해를 통합하여 시장 지향적 가치 등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사람들이 보다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삶에 관한 자기 통제권과 선택권이 있을수록, 부패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시장지향의 가치를 덜 가질수록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정성은 '귀하께서는 사람들이 기회가 있으면 귀하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귀하를 이용하려 한다'에 1점을, '사람들은 정당하게 귀하를 대우한다.'에 10점을 부여하여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선택자유 변수는 '귀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통제력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유선택이 없는 운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선택이 거의 없다' 1점부터 '자유선택이 많다'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반부패는 탈세와 뇌물수수에 대해 '항상 정당화된다'에 1점을 부여하고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응답에 10점을 부여한 것을 합한 것으로 상한 20점, 하한 2점이 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가치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개인의 생각을 점수화하여 합한 것이다. 우선 소득에 관한 의견에 대한 응답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1점부터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있다' 10점까지의 점수,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1점부터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10점까지의 점수, 그리고 '경쟁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창조성을 높인다' 1점부터 '경쟁은 인간의 사악함을 조장한다' 10점까지의 점수를 합한 것이다.

교육변수들의 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공정성의 경우 개인의 교육수준의 영향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상대적 교육의 경우 한계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각국의 평균교육수준의 효과는 양(+)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편차의 경우 부(-)의 유의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평생정규교육의 효과 또한 양(+)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선택자유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삶에 대한 자기통제와 자유선택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상대적 교육수준이 높거나 각국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역으로 자기 삶에 대한 자기통제와 자유선택이 적다고 간주하고 있다. 교육편차가 많을수록 오히려 자기 통제와 자유선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교육수준과 교육편차의 상이한 관계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교육격차가 개인적 선택의 여지를 줄이지만 교육격차가 높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자기 통제와 자유선택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평생학습으로서의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정규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기 통제와 자유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반부패에 관한 tobit 모형의 회귀분석의 결과는 개인의 상대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전체의 평균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역설적이게도 사회의 교육편차가 클수록 반부패 의식이 높은 것을 보여 주며 다른 교육변수는 거의 유의미하지 않고 있다. 시장가치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경쟁적 사고를 하고 있으나 상대적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인 경우에도 시장가치를 덜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 평균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표준편차가 높은 경우에도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한편 평생 정규교육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4-11&gt; 공정성과 시장가치

독립변수	양극 tobit 공정성	양극 tobit 선택자유	양극 tobit 반부패	양극 tobit 시장가치
교육수준				
초등학교 재학 중퇴	-0.604 (2.23)	0.963 (4.72)	-0.111 (0.19)	0.944 (2.32)
초등학교 졸	-0.415 (1.52)	1.482 (7.18)	-0.311 (0.51)	1.319 (3.22)
중학교 재중	-0.447 (1.56)	1.713 (7.84)	-0.165 (0.25)	1.989 (4.63)
중학교 졸	-0.364 (1.24)	2.251 (9.97)	-0.991 (1.47)	2.002 (4.53)
고등학교 재중	-0.638 (2.05)	2.476 (10.26)	-0.999 (1.38)	2.418 (5.16)
고등학교 졸	-0.247 (0.77)	2.678 (10.65)	-0.552 (0.73)	2.230 (4.59)
전문대학	-0.202 (0.60)	3.068 (11.50)	-1.844 (2.29)	2.433 (4.75)
대학	0.079 (0.22)	3.341 (12.00)	-1.055 (1.25)	2.818 (5.29)
표본 내 각국 평균교육수준	0.131 (3.61)	-0.323 (10.40)	0.337 (3.64)	-0.473 (8.20)
표본 내 각국 표준편차	-0.845 (16.27)	0.158 (3.97)	0.259 (2.25)	-1.178 (15.47)
평생정규교육	0.161 (2.84)	0.301 (6.43)	-0.677 (0.49)	0.107 (1.20)
상대적 교육수준	-0.002 (1.76)	-0.015 (12.78)	0.014 (3.69)	-0.011 (5.05)
상수	7.043 (19.15)	7.467 (25.86)	16.541 (19.56)	18.941 (33.94)
Wald $\chi$ Square	55.52	61.76	40.53	37.22
관측치 수	49,851	51,104	49,527	49,579

-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WVS 자료만을 분석한 위 결과 중 교육에 관련된 요소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교육수준은 대인신뢰 민주적 통합적 가치를 조장

하고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의 관용수준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개인적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삶의 만족도를 확장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줄이고 직접적인 정치 행동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둘째, 상대적 교육수준은 제도의 신뢰수준을 높이고 있으나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제도적 신뢰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높이나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보다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나라의 평균교육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사회통합적 요소에 긍정적이지만 않다. 이는 국가수준의 교육편차 또한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넷째, 평생교육을 경험한 경우 대부분의 요소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적령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제공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교육수준을 높여 나가되 기본적인 교육시기를 지나면 적령기 교육을 통한 것보다는 평생교육차원의 정규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Putnam의 연구결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들보다 많이 참여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참여도 높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Green, Preston, Sabates(2003b)가 교육과 사회통합이 한 국가 내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지만 국가를 비교할 때 이 상관관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근거를 지지한다. 또 Newton과 Norris(2000)가 개인의 수준에서는 교육과 사회자본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수준에서는 교육과 사회자본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Campbell(2006)의 절대적 교육모형(absolute education model), 분류모형(sorting education model), 누적모형(cumulative model)에서 절대적 교육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분석에서 뚜렷하게 발견한 점은 평생교육차원에서 개인의 정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표 4-12> 세계가치조사 개인자료 분석결과 종합

	개인교육	상대교육	평생교육	평균교육수준	교육편차
애국가치	-	+	0+	0+	-+
대인신뢰	+	-	+	+0	+-
제도신뢰	-	+	0	+	0
국가신뢰	-	+	0	0	0
민주적 가치	+	-	+	-	-
통합적 가치	+	0	+	0	+
정치행동참여	-	+	+	+	-
선거참여	+	-	+	-	-
활동참여	+	0	+	-	-
이웃관용	+	-	+	-	+
소수자 관용	+	-	+	-	-
인종다양성	0	-	+	-	-
공정성	0	0	+	+	-
선택	+	-	+	-	+
반부패	0	+	0	+	+
비시장가치 <sup>1)</sup>	-	+	0	+	+
삶의 만족	+	-	+	-	+

주: 1) 비시장가치에서 '+'는 시장가치 회귀분석에서 계수의 값이 부(-)의 유의한 값을 가지나 시장가치를 덜 갖는 것, 즉 보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2) +는 양의 유의한 계수를, - 부(-)의 유의한 계수를, 0은 유의미하지 않는 계수를, +0, 0- 등은 항목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뜻한다.

## 2. 세계가치조사와 국제 자료 통합 분석

다음으로 국가별 지표를 세계가치조사 자체에서 계산하여 구하지 않고 Penn World Table Mark 6.2 Version 자료의 2004년도 인구 및 1인당 소득, Barro-Lee Schooling 자료의 2000년도의 교육수준 자료, Barro-Lee의

Panel 자료의 정치적 불안정성 지수와 시민의 부자유 지수를 통합하여 나타냈다. 여기서 교육격차변수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의 퍼센트를 중등 이후 교육, 즉 고등교육을 경험한 사람의 퍼센트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여성의 평균교육을 남성의 전체 평균교육년수로 나눈 것을 남녀교육평등의 지수로 하여 계산하였다. 이 표본의 경우 세계가치조사와 각종 국제 자료의 변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표본 수가 크게 줄었다.

다음에서는 개인교육의 효과보다 국가 자료로부터 얻는 이들 변수의 효과를 위주로 결과를 보고한다. 삶의 만족도의 양극 tobit 모형 결과와 애국적 통합가치로서 국가 소속감과 전쟁참여 여부에 대한 probit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4-13>와 같다. 인구규모는 삶의 만족도와 전쟁참여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소속감에는 양(+ )의 영향을 미친다. 1인당 국민소득은 삶의 만족도와 전쟁참여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애국적 통합가치에 경제생활의 높은 수준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삶의 만족도와 전쟁참여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민적 자유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자유롭지 못할수록 전쟁참여 의지가 높다.

교육관련 변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평생정규교육은 삶의 만족도와 전쟁참여여부에 유의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평균교육년수 또한 이 두 종속변수의 가치를 높인다. 교육격차는 삶의 만족도와 전쟁참여 여부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소속감에는 양(+ )의 영향을 미친다. 남녀의 교육평등 지수는 만족도와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쟁참여의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위의 변수결과들과 통합하여 고려할 때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좋아질수록 전쟁참여의지가 낮아지므로 보수적 애국적 통합가치를 낮추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lt;표 4-13&gt; 삶의 만족도와 보수적 통합가치

독립변수	양극 tobit	probit	probit
	삶의 만족도	국가소속감	전쟁참여 여부
평생정규교육	0.161 (3.01)	0.007 (1.40)	0.058 (4.79)
평균교육년수	0.109 (6.24)	0.004 (2.48)	0.069 (16.64)
일반교육격차	-0.006 (1.82)	0.001 (1.87)	-0.006 (6.12)
남녀교육평등	-0.004 (1.00)	0.0004 (0.96)	-0.031 (30.42)
인구	-0.0003 (3.70)	0.00003 (2.90)	-0.0002 (13.12)
1인당 국민소득	-0.058 (11.77)	-0.0004 (0.66)	-0.005 (4.35)
정치 불안정성 지수	-0.083 (2.37)	0.016 (3.94)	-0.016 (2.03)
시민 부자유	-0.131 (3.22)	-0.010 (3.18)	0.063 (6.88)
상수	7.929 (16.58)		
R Square	47.70	227.20	1926.41
Wald $\chi$ Square			
관측치 수	24,868	23,588	22,436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tobit), 또는 z(probit) 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 <표 4-14>에서는 일반적 대인 신뢰, 낯선 사람에 대한 상대적 대인 신뢰, 제도신뢰1, 정부중심 제도신뢰2에 관한 probit 모형, tobit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인구가 많을수록 상대적 신뢰를 제외한 모든 신뢰수준이 높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 신뢰를 제외한 모든 신뢰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상대적 신뢰수준은 국민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언론과 국가에 대한 신뢰수준을 낮춘다. 시민적 부자유는 일반적 신뢰, 제도신뢰, 언론과 국가체제 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다만 상대적 신뢰를 크게 낮추고 있다.

교육의 경우 평생정규교육은 앞과 마찬가지로 언론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오히려 대인신뢰나 전체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높인다. 일반교육격차가 많을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여타 신뢰의 수준이 높아진다. 남녀의 교육수준이 동등해질수록 대인신뢰를 높이거나 제도 전반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대인 신뢰와 대제도 신뢰

구분	Probit	양극 tobit	양극 tobit	양극 tobit
독립변수	일반적 신뢰	상대적 신뢰	제도 신뢰1	제도 신뢰2
평생정규교육	0.027 (2.09)	2.356 (5.35)	0.480 (2.13)	-0.013 (0.19)
평균교육년수	0.045 (10.44)	1.965 (12.02)	0.183 (1.79)	-0.124 (4.82)
일반교육격차	0.004 (6.07)	0.486 (18.57)	0.637 (2.66)	-0.009 (0.61)
남녀교육평등	0.000 (0.11)	0.376 (9.29)	-0.126 (4.24)	-0.045 (6.17)
인구	0.000 (21.49)	0.000 (0.39)	0.001 (2.29)	0.001 (7.00)
1인당 국민소득	0.003 (2.44)	-0.218 (5.26)	0.118 (4.22)	0.058 (7.20)
정치불안정성	0.005 (0.66)	0.016 (0.05)	-0.373 (1.57)	-0.174 (3.05)
시민부자유	0.051 (5.74)	-1.206 (3.09)	0.831 (2.56)	0.200 (2.73)
상수		22.920 (5.66)	47.427 (15.78)	17.566 (25.34)
Wald $\chi$ Square	2,768.60	117.10	21.29	33.52
관측치 수	24,191	21,918	11,917	14,356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tobit), 또는 z(probit)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 <표 4-15>에서는 민주적 가치, 통합적 가치, 정치행동참여, 선거참여,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한 사회의 인

구가 많을수록 민주적 가치나 통합적 가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행동참여, 선거참여, 사회활동참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인당 소득수준은 민주적 가치, 정치행동참여, 사회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선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통합적 가치 이외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적 부자유는 민주적 가치, 사회통합적 가치, 그리고 정치행동참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거참여나 사회활동참여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변수의 효과 또한 흥미롭다. 사회의 평균교육년수가 높을수록 통합적 가치를 가지거나 정치행동참여 및 선거참여를 할 가능성은 적으나 민주적 가치를 가지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 일반교육격차는 민주적 가치, 정치행동참여, 사회활동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 남녀 교육평등은 통합적 가치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생정규교육은 민주적 가치, 통합적 가치, 정치적 참여, 선거참여, 사회활동참여 등 모든 종속변수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가단위에서 교육수준이 사회적 정치적 참여와 바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평균교육수준을 무조건 높이거나 교육수준의 격차 자체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는 남녀의 교육격차를 줄이면서 평생교육을 통한 정규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lt;표 4-15&gt; 통합가치와 정치참여

구분	Probit	Probit	Probit	Probit	양극 Tobit
독립변수	민주적 가치	통합적 가치	정치적 참여	선거참여	사회활동 단체 참여
평생정규교육	0.387 (2.95)	0.028 (2.35)	0.083 (5.62)	0.034 (3.24)	1.130 (11.27)
평균교육년수	0.019 (4.44)	-0.021 (5.19)	-0.022 (3.13)	-0.045 (9.72)	0.504 (13.48)
일반교육격차	0.007 (10.59)	0.000 (0.69)	0.012 (14.18)	0.000 (0.83)	0.147 (19.57)
남녀교육평등	0.014 (13.15)	0.001 (1.02)	0.020 (11.56)	0.006 (5.35)	0.089 (10.31)
인구	0.000 (6.01)	0.000 (3.92)	0.000 (13.83)	0.000 (1.16)	0.001 (7.03)
1인당 국민소득	-0.017 (14.26)	0.001 (0.67)	-0.005 (3.20)	0.007 (6.76)	-0.061 (6.28)
정치불안정성	-0.007 (0.90)	0.040 (5.28)	-0.032 (3.76)	-0.044 (7.33)	-0.789 (-11.57)
시민 부자유수준	-0.097 (10.66)	-0.093 (10.50)	-0.093 (9.13)	0.048 (6.73)	0.756 (9.92)
상수					-13.429 (15.21)
Wald $\chi^2$ Square	1,505.01	1,093.90	2,883.62	1,980.36	117.33
관측치 수	24,592	24,704	20,194	21,541	24,376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tobit), 또는 z(probit) 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 <표 4-16>은 관용을 나타내는 사회적 지표들에 대한 tob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4-16>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개인의 교육이 대학 이상인 사람들만이 이웃 선택과 소수자(여성과 외국인 등) 고용에 관해서 관대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종적 다양성이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가변수들을 살펴보면 인구규모가 클수록 여성과 외국인 고용에 관용적이고 또 인종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여성과 외국인의 고용에 관용적이거나 이웃 선별에 까다롭고 인종

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사람들의 이웃 선택을 보다 개방적으로 만들고 있었으나 소수자 고용에 관대하지 않았다. 시민적 부자유는 이웃 선택에 덜 개방적이도록 작용하고 있으며 인종적 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든다.

일반적 교육격차는 모든 관용변수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한 남녀교육 역시 모든 관용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평생정규교육은 소수자 고용과 인종적 다양성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나타났다.

<표 4-16> 관용의 수준

구분 독립변수	양극 Tobit 이웃관용	양극 Tobit 소수자 고용관용	양극 Tobit 인종적 다양성
평생정규교육	0.136 (1.50)	0.205 (3.43)	0.536 (6.63)
평균교육년수	-0.039 (1.56)	-0.075 (3.39)	-0.035 (1.40)
일반교육격차	0.091 (31.00)	0.010 (3.39)	0.038 (8.17)
남녀교육평등	0.232 (39.73)	0.076 (15.39)	0.045 (7.36)
인구	0.002 (0.88)	0.000 (3.37)	0.002 (18.53)
1인당 국민소득	-0.014 (2.20)	0.044 (8.09)	-0.060 (8.59)
정치불안정성	0.261 (5.69)	-0.575 (13.67)	0.056 (1.19)
시민부자유	-0.817 (14.63)	0.489 (9.90)	-0.115 (2.06)
상수	-5.757 (10.03)	4.692 (9.66)	3.467 (5.50)
Wald $\chi$ Square	907.74	157.29	71.89
관측치 수	51,053	22,415	21,887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tobit), 또는 z(probit) 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 <표 4-17>는 설문 응답자가 사람들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우하는가(공정성)에 대한 평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통제와 선택자유, 부패에 대한 견해, 시장가치 등에 관한 tob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인구, 1인당 국민소득, 정치 불안정성의 효과는 다소 혼란스러운 결과를 보여 준다. 인구는 공정성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 반부패에 대한 인식을 낮게 하고 보다 높은 시장가치를 갖게 만든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선택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나 반부패에 관한 인식을 높이며, 동시에 시장가치를 덜 갖도록 한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공정성과 반부패에 관한 인식수준을 높여주나 시장가치를 갖도록 만든다. 시민의 부자유는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부패 인식을 낮추나 선택과 자기통제 대하여 긍정적으로 만들고 또 시장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일반교육격차는 삶에 대한 자기통제와 선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나 반부패 의식을 낮추고 시장가치를 높인다. 남녀의 교육평등수준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삶에 대한 공정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또 반부패의식도 낮추고 있다. 이 또한 혼란스러운 결과이다. 평생정규교육은 이 경우에도 역시 선택자유와 자기통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나 시장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lt;표 4-17&gt; 공정성, 자유선택, 반부패의식, 시장가치

구분	양극 Tobit	양극 Tobit	양극 tobit	양극 Tobit
독립변수	공정성	선택	반부패	시장가치
평생정규교육	0.109 (1.59)	0.278 (4.53)	0.051 (0.29)	0.286 (2.40)
평균교육년수	0.126 (5.49)	0.091 (4.31)	-0.515 (8.77)	0.110 (2.59)
일반교육격차	0.003 (0.65)	-0.016 (4.30)	-0.134 (13.19)	0.027 (3.84)
남녀교육평등	-0.040 (6.98)	0.002 (0.48)	-0.108 (7.55)	0.018 (1.74)
인구	0.001 (12.69)	-3.02e- (0.00)	-0.001 (2.55)	0.000 (2.40)
1인당 국민소득	0.010 (1.61)	-0.023 (4.00)	0.039 (2.42)	-0.040 (3.54)
정치불안정성	0.180 (3.91)	-0.325 (8.00)	0.679 (6.37)	0.746 (8.74)
시민부자유	-0.165 (3.05)	0.410 (8.76)	-0.867 (6.86)	-0.659 (6.69)
상수	7.476 (12.35)	6.040 (11.51)	33.080 (23.28)	10.031 (8.86)
Wald $\chi$ Square	46.40	27.07	33.35	21.90
관측치 수	24,448	24,627	24,612	23,874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tobit), 또는 z(probit) 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앞서 WVS의 자료만 이용한 결과와 국가별 자료와 통합한 결과가 다소 달라졌다. 이는 국가별 자료가 없는 WVS의 관측치가 있기 때문에 표본이 달라져서 생기는 변화일 수도 있고 또 국가별 자료의 교육변수와 WVS 내에서 국가별 변수를 만든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인구규모, 1인당 국민소득, 정치적 불안정성, 시민적 부자유수준 등을 통제한 이후 교육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나라의 평균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은 삶의 만족도, 애국적 통합, 대인신뢰, 국가(행정부, 사법부, 경찰 및 신문)를 제외한 제도적 신뢰<sup>2</sup>, 민주적 가치, 사회활동단체 참여, 공정성, 자기통제와 선택자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가 신뢰나 관용이나 반부패 인식에 반드시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고등교육을 받는 인구에 비해 무학이 있는 비율로 측정한 교육 불평등은 통합적 가치, 정치행동참여, 선거참여, 선택과 반부패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나 관용, 민주적 가치, 사회활동참여, 대인신뢰나, 국가를 제외한 제도신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적 교육 차이를 줄이는 것의 효과는 다소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남녀의 교육평등은 전쟁참여의지, 제도적 신뢰, 공정성, 반부패인식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상대적 신뢰를 높이고 민주적 가치나 정치적 참여, 사회활동단체의 참여 등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관용의 폭을 넓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평생교육 방식의 정규교육은 시장가치를 높이는 것 이외에 보수적 통합가치, 신뢰, 사회참여, 관용 등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여 높은 사회통합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 사회의 평균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또 교육수준의 격차 역시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남녀의 교육평등을 추구하면서 평생교육 차원의 정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3. WVS, 국제 자료 및 EURO의 평생교육 참여율의 통합 자료 분석 결과

평생교육 참여율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제한적이다. EURO는 성인의 형식 무형식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VS, 위에서 사용한 국제자료, 그리고 이 평생교육 참여율을 결합하여 국가의 평균 평생교육 참여율이 사회통합의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평생교육 참여율은 유럽 노동력조사에 참여한 유럽국가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본의 규모가 크게 줄었다. 모든 종속변수는 앞에서 활용한 것이다.

다음 <표 4-18>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양극 tobit 모형, 국가소속감 및 전쟁참여의지를 나타내는 변수에 대한 probit 모형의 결과이다. 인구는 삶의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보수적 통합가치에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역시 유사한 역할을 하였고, 정치적 불안정은 삶의 만족도와 국가소속감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전쟁참여의지에 부(-)의 관계를 갖고 있어 해석하기 쉽지 않다. 시민부자유가 높은 나라의 사람들이 역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국가소속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 1인당 국민소득, 정치불안정성, 시민부자유에 관한 분석결과는 앞 소절의 표본에서와 상당한 차이를 가져와 표본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의 평생정규교육은 삶의 만족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평생교육 참여율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크게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쟁참여 의지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교육년수는 만족도는 줄이는 반면 보수적 통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육격차는 세 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녀교육평등은 반대로 세 변수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교육년수, 일반교육격차 및 남녀교육평등의 효과는 앞 소절의 표본에서의 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lt;표 4-18&gt; 삶의 만족도 및 결속 통합가치

구분	양극 tobit	probit	probit
독립변수	삶의 만족도	국가소속감	전쟁참여 여부
평생정규교육	0.128 (1.70)	0.001 (0.11)	-0.001 (0.06)
평생교육 참여율	0.071 (6.30)	-0.002 (1.63)	-0.009 (3.25)
평균교육년수	-0.159 (4.67)	0.006 (1.83)	0.111 (13.48)
일반교육격차	1.247 (7.76)	0.113 (6.31)	0.649 (16.11)
남녀교육평등	0.315 (2.46)	0.014 (7.87)	0.026 (8.03)
인구	0.005 (2.06)	-0.001 (5.63)	-0.007 (12.51)
1인당 국민소득	0.183 (6.81)	-0.005 (1.79)	-0.019 (2.98)
정치불안정성	0.282 (3.04)	0.017 (2.01)	-0.081 (3.86)
시민부자유	0.703 (3.45)	-0.042 (2.31)	0.023 (0.48)
상수	-2.452 (1.29)		
Wald $\chi^2$ Square	31.83	450.98	1968.87
관측치 수	10,237	10,138	9,291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tobit), 또는 z(probit)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 <표 4-19>은 신뢰에 관한 것으로 인구는 제도적 신뢰나 언론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거나 대인신뢰를 높이지 않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대인 신뢰나 제도에 관한 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 암살과 혁명을 가중치로 동일하게 적용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오히려 모두 높은 신뢰수준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이는 현재 유럽국가의 독특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의 부자유는 일반적 신뢰와 국가(언론포함)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 다만 국가 이외의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의 소절의 보다 큰 표본의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평생정규교육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나라들이 대인신뢰인 상대적 신뢰, 국가신뢰, 전반적 제도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일반적 신뢰는 높았으나 상대적 신뢰나 제도에 관한 신뢰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육격차는 일반적 신뢰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였고, 남녀의 교육평등은 일반적 신뢰와 국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였지만 상대적 신뢰나 신문과 국가기관 이외의 제도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낮춘다. 평균교육수준, 교육격차나 남녀교육평등의 효과 역시 앞서 소절의 보다 큰 표본에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다.

&lt;표 4-19&gt; 대인신뢰 및 제도신뢰

구분	Probit	양극 tobit	양극 tobit	양극 tobit
독립변수	일반적 신뢰	상대적 신뢰	제도 신뢰1	제도 신뢰2
평생정규교육	0.005 (0.25)	-0.300 (1.00)	-0.171 (1.78)	1.592 (2.42)
평생교육 참여율	0.001 (0.37)	0.433 (3.99)	0.182 (5.00)	0.600 (5.08)
평균교육년수	0.023 (2.32)	-1.458 (3.76)	-0.641 (5.05)	-1.992 (5.10)
일반교육격차	0.135 (2.93)	1.123 (1.01)	-0.579 (1.58)	4.220 (2.83)
남녀교육평등	0.018 (5.10)	-0.453 (3.46)	-0.287 (6.14)	0.583 (4.85)
인구	0.001 (1.04)	0.032 (1.43)	0.020 (2.68)	0.118 (4.71)
1인당 국민소득	0.012 (1.57)	0.940 (3.83)	0.400 (5.08)	1.120 (3.92)
정치불안정성	0.268 (11.42)	3.030 (4.55)	0.721 (3.15)	12.741 (15.03)
시민부자유	-0.357 (6.31)	1.676 (1.14)	1.342 (3.02)	-8.962 (4.19)
상수		59.753 (3.96)	30.256 (6.41)	-7.929 (0.41)
Wald $\chi$ Square	2,036.97	26.16	30.57	70.42
관측치 수	9,956	5,052	5,992	5,992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tobit), 또는 z(probit)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위 결과에서 보고되지 않았지만 앞 소절의 결과와 다른 특이한 점이 존재한다. 앞 소절에서는 동일한 교육수준일 때 제도신뢰의 수준이 개인의 소득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며 동일한 교육수준일 때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제도신뢰가 낮아졌으나 이 표본에서는 그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제도적 신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닌가 한다.

다음 <표 4-20>은 민주적 통합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와 정치행동 참여, 선거참여에 관한 probit 모형, 사회단체활동 지수에 관한 양극 tobit 모형의 결과들이다.

인구규모는 민주적 가치나 통합적 가치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정치행동참여나 사회활동단체 참여에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는 앞선 표본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앞 소절의 동일한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인구는 거의 모든 변수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수준은 통합적 가치를 갖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대부분의 경우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정치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사회단체활동에는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앞선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시민적 부자유는 민주적 가치와 사회단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합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또한 민주적 가치, 통합적 가치, 정치행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선거참여나 사회활동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 준 앞 소절의 표본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생정규교육의 경험은 민주적 가치, 정치행동 참여, 선거참여 및 사회활동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 소절의 이 효과가 여기서는 약화되었지만 유효한 효과는 매우 분명하다.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통합적 가치를 가지나 정치행동참여나 사회활동단체참여에는 다소 유의미한 부정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평균교육수준은 통합적 가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정치행동 참여나 사회활동단체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또한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앞의 표본과 달라져 있다. 일반교육격차는 민주적 가치나 사회활동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긍정적 영향과 크게 달라져 있고, 남녀 교육평등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던 앞 소절 표본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대부분 민주적 가치, 통합적 가치, 정치행동참여, 사회활동단체참여에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4-20&gt; 민주적 가치와 정치·사회 참여

독립변수	Probit	Probit	Probit	Probit	양극 Tobit
	민주적 가치	통합적 가치	정치적 참여	선거참여	사회활동 단체 참여
평생정규교육	0.519 (2.61)	0.021 (1.12)	0.071 (3.02)	0.030 (1.92)	0.605 (4.60)
평생교육 참여율	0.002 (0.60)	0.020 (6.91)	-0.017 (2.05)	-0.037 (0.82)	-0.060 (2.53)
평균교육년수	0.017 (1.79)	-0.060 (6.65)	0.510 (4.04)	0.116 (0.57)	0.263 (3.46)
일반교육격차	-0.194 (4.63)	0.049 (1.21)	-0.053 (0.75)	-0.127 (0.32)	-2.734 (8.79)
남녀교육평등	-0.016 (4.61)	-0.009 (2.60)	-0.092 (4.42)	-0.004 (0.10)	-0.129 (5.40)
인구	0.002 (3.57)	0.004 (7.30)	-0.007 (3.12)	-0.008 (0.85)	-0.023 (4.69)
1인당 국민소득	-0.010 (1.30)	0.048 (6.89)	-0.129 (3.75)	-0.088 (0.72)	-0.276 (4.83)
정치불안정성	0.033 (1.44)	-0.006 (0.26)	-0.530 (4.00)	-0.028 (0.91)	1.313 (7.40)
시민부자유	-0.102 (1.84)	0.248 (4.64)		-0.525 (0.71)	-3.682 (8.39)
상수					22.709 (5.86)
Wald $\chi^2$ Square	571.85	517.44	1,302.75	860.43	111.01
관측치 수	10,140	10,156	7,576	9,036	10,132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tobit), 또는 z(probit)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 <표 4-21>은 사회적 관용을 나타내는 지표들에 대한 양극 tobit 회귀분석결과이다. 우선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규모가 클수록 이웃선택과 여성과 외국인 등 소수자 고용에 관대하나 인종적 다양성을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여성과 외국인의 고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웃선택과 소수자 고용에 관용적이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나라에서 오히려 이웃선택에 관용을 나타낸다. 시민부자유는 역시 이웃선택과 소수자 고용에 관대함을 나타낸다. 이들 결과는 앞 소절에서 유럽국가 이외의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표본의 결과와 다소 다르다.

평생정규교육은 소수자 고용에 대한 관용과 인종적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사람들이 세 개의 관용 지표에서 모두 높은 관용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정규교육의 효과는 앞 표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관용에 있어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평균교육년수는 이웃선택과 소수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반교육 격차는 모든 관용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남녀교육평등 역시 모든 관용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앞 소절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lt;표 4-21&gt; 관용

독립변수	양극 Tobit		양극 Tobit
	이웃관용	소수자 고용관용	인종적 다양성
평생정규교육	0.142 (0.93)	0.174 (2.05)	0.342 (3.31)
평생교육 참여율	0.337 (16.09)	0.168 (10.93)	0.039 (2.52)
평균교육년수	-1.012 (15.16)	-0.548 (9.67)	0.010 (0.20)
일반교육격차	3.458 (10.96)	2.201 (11.18)	1.070 (4.86)
남녀교육평등	0.399 (14.07)	0.221 (13.12)	0.082 (4.59)
인구	0.085 (19.57)	0.047 (14.32)	-0.001 (0.36)
1인당 국민소득	0.874 (16.62)	0.545 (14.21)	-0.055 (1.48)
정치불안정성	1.353 (8.88)	-0.062 (0.59)	0.142 (1.11)
시민부자유	2.707 (7.13)	2.701 (10.12)	-0.414 (1.52)
상수	-51.891 (13.55)	-27.124 (10.39)	-0.996 (0.38)
Wald $\chi$ Square	121.03	80.03	35.06
관측치 수	9,936	9,295	9,847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tobit), 또는 z(probit) 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대우, 삶에 대한 자기통제와 선택자유, 반부패 인식, 시장가치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4-22>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의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앞 소절의 결과와 다르다. 인구는 공정성과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반부패의식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시장가치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져 이들 사회적 통합적 요소에 다소 혼선된 관계를 보여 준다. 1인당 국민소득은 대체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공정성 인식을 높이고 선택자유에 대한 인식도 높이나 시장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높인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선택자유에 대한 인식과 반부패의식을 낮추고 또 시장가치를 높인다. 시민부자유 지수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나 반부패 의식을 높이고 시장가치를 낮춘다. 이는 일부는 앞 소절의 결과와 일치하나 일부는 다르다. 둘째, 평균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은 낮추나 선택자유에 대한 인식은 높인다. 일반 교육격차는 공정성과 선택자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인다. 그러나 남녀 교육평등은 공정성과 선택자유 인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반부패 인식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또 시장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교육평등이 높을수록 시장가치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남녀 간의 불평등이 줄어들어 시장경쟁을 통한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평생정규교육은 앞 소절의 표본과 달리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나라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더 많이 느끼며, 보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장가치보다 통합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lt;표 4-22&gt; 공정성, 자유선택, 반부패의식, 시장가치

구분	양극 Tobit	양극 Tobit	양극 tobit	양극 Tobit
독립변수	공정성	선택	반부패	시장가치
평생정규교육	-0.010 (0.11)	0.071 (0.86)	0.091 (0.40)	0.088 (0.53)
평생교육 참여율	0.101 (7.15)	0.063 (4.72)	-0.055 (1.48)	-0.106 (3.65)
평균교육년수	-0.217 (5.02)	0.082 (2.06)	0.015 (0.13)	-0.062 (0.67)
일반교육격차	1.989 (10.08)	1.497 (8.30)	0.672 (1.36)	0.396 (1.04)
남녀교육평등	0.109 (6.92)	0.047 (3.25)	-0.137 (3.38)	0.267 (8.93)
인구	0.019 (5.95)	-0.001 (0.25)	-0.020 (2.59)	-0.029 (4.57)
1인당 국민소득	0.251 (7.48)	0.111 (3.56)	-0.045 (0.50)	-0.414 (5.99)
정치불안정성	1.427 (12.10)	-0.638 (5.87)	-0.611 (2.24)	2.375 (10.54)
시민부자유	-0.714 (2.81)	1.384 (5.76)	0.527 (0.80)	-4.599 (8.96)
상수	-13.263 (5.59)	-4.040 (1.86)	33.990 (5.48)	5.833 (1.233)
Wald $\chi$ Square	81.13	24.81	22.71	36.36
관측치 수	10,080	10,165	10,165	9,889

주: 1) 계수값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괄호 안은 t(tobit), 또는 z(probit) 값을 나타낸다.

3)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EURO의 평생교육 참여율 자료를 통합한 본 표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구규모, 1인당 국민소득, 정치불안정성이나 시민부자유 지수의 영향력은 유럽 이외의 다른 나라 표본이 포함된 경우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었다. 둘째, 평균교육년수나 일반교육격차나 남녀교육평등 또한 앞서의 표본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통합지표들과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남녀의 교육평등수준을 높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평생정규교육이나 국가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개인들의 사회통합적 지향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4. 소결

사회통합과 사회자본에 대한 가장 유효한 자료인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 자체의 분석, 국제 자료와의 통합자료 분석, EURO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통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 정규교육과 평생교육이 각종 사회통합적 지표나 가치-삶의 만족도, 국가소속감 및 전쟁참여의지 같은 보수적 통합가치, 대인 신뢰 및 제도 신뢰, 민주적 가치나 통합적 가치, 정치나 사회참여, 사회적 관용수준, 사회의 공정성과 삶의 자기결정권, 반부패 의식, 그리고 경쟁과 개인책임을 선호하는 시장가치-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 안에서 개인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은 대인신뢰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정치적 참여를 일부나마 높이며 사회적 관용을 늘리고 있어 Putnam 등의 주장에 수긍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상대적 교육수준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Campbell (2006)의 분류모형보다는 절대모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평균교육수준을 높이거나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 통합에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변수마다 또는 표본마다 매우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 또한 발견되었다. 이는 Campbell (2006)의 누적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는 아니며 오히려 Green, Preston, and Sabates(2003b)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균교육년수뿐 아니라 교육격차 또한 표본마다, 그리고 종속변수마다 매우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국가의 모든 시민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사회통합에 있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며 각 국가의 조건과 발전단계 및 사회의 지속가

능한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 두 개의 변수효과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녀의 교육평등은 다수의 사회 통합적 변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본 연구의 주 관심사였던 평생교육은 그것이 성인의 정규교육의 형태이든 무형식 등의 형태이든 아주 많은 사회 통합적 변수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개인이 성인이 되어 못다한 정규교육을 받는 것이나 또는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인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사회통합정책이 될 것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적어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는 한 사회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충족시키고 나면 학령기에 높은 교육수준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성인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정규교육이나 비정규 교육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제 5 장 평생학습과 시민 의식

김미숙

### 제1절 사회발전과 사회적 자본

본 장에서는 평생학습이 개인의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의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과 시민의식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과 이를 통한 사회 발전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동을 촉진하는 시민적 참여, 공유된 규범, 가치 및 상호 신뢰, 그리고 이를 수반하는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OECD, 2000).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원이라고 일반적으로 합의되어 있고, 대부분의 정의들은 네트워크의 멤버십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규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연결적' 역할

은 지역사회 발전의 이론적 기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자본의 자원으로 작용한다(Kilpatrick et al., 2003). 다른 한편으로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시민참여와 함께 공유된 규범과 신뢰로 정의한다.

Field & Schuller(1997)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학습을 기술과 지식의 개인적 획득의 문제가 아닌, 구별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기능으로서 다룬다”. 그것은 또한 “지식과 새로운 노하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아는 것보다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에 따른 규범과 가치의 역할에 주목한다.”(Balatti & Falk, 2002). 사회적 자본은 ‘집단적 혜택’과 ‘개인적 혜택’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집단적 혜택’은 상호이익을 위해 조화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으로서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된다(Putnam, 1993; Kilpatrick et al., 2003). 사회적 자본 이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관계들, 그 중 어느 것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비공식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면, 친구 관계, 업무 관계, 자발적으로 가입한 조직의 구성원, 사회운동의 참여, 전문가 지역사회와 일상생활에서의 이웃들과의 교류를 말할 수 있다(Kilpatrick et al., 2003).

결속적 사회적 자본은 ‘정체성, 네트워크 그리고 가치가 사회 운동이나 시민 참여의 민주적 형태와 결합한 새로운 집합’과 대조된다. McClenaghan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통합과 유사하게 보았다. 그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았다. Tom Schuller 역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였다(Kilpatrick et al., 2003).

## 2. 사회적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사회 발전의 분석은

사회적 자본이 주는 집단적 혜택의 해석에 널리 이용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이나 지원은 빈곤한 사람들을 포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집단적 혜택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자본은 성인의 지역사회 발전 과정에 의해 구축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지역사회 활동 영역에서 성인의 자발적 참여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그 참여는 사회적 자본 자원의 증가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자발적 활동의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면서 확대되어 왔다(Kilpatrick et al., 2003). 지역사회 발전 과정에서 성인의 학습 과정은 규범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인적 자본을 구축한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이 집단적 혜택의 관점에서 정의된다(Kilpatrick et al., 2003)는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성인은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습득하게 된 비공식 학습을 통해 새로운 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결속적 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관계는 사회운동으로 결속된 구성원들을 포함한다. 이로써 사회 구조와 관련된 비공식 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식 교육을 통한 학습은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교육은 네트워크의 폭, 깊이, 양에 영향을 미치고, 타인과 관련된 기술을 생산한다(Woolcock; Kilpatrick et al., 2003). 이처럼 사회적 자본의 '집단적 혜택' 관점은 사회 발전과 학습을 분석하는 사회적 자본의 분석 틀에 적합하다. 따라서 성인교육을 포함한 사회 발전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기본 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의 균형이다. 이러한 결속적 네트워크는 필수적이지만 사회적 자본의 불충분한 구성요소이다. 둘째, 중개와 연결적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매개자의 존재와 다양성이다. 셋째, 지역사회 멤버들의 자신감과 자존감 수준과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넷째, 지역사회에 나타나 있는 규범, 특히 포용과 배제의 규범과 상호성이다. 다섯째는 지

역사회가 그것의 미래를 위해 공유해 왔던 비전의 범위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기본 요소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제2절 사회적 자본, 성인학습, 평생학습의 결합

이 절에서는 사회적 자본축적을 통한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well-being)에 대한 성인 학습의 영향과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다. 이 논의는 사회에 대한 학습의 영향이 사회적 자본에 의해 초래된다는 것에 기인한다.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질만큼이나 양이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성인 학습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주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공유된 가치, 사람들과 조직의 학습의 발달이 그들과 사회 전반 모두에 이익이라는 것에 기초한다.

### 1. 성인학습과 평생학습

OECD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학습(다양한 형태 중에서)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보고하였다. '학습 과정을 결정짓는 데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회적 자본의 부족은 학습과 경제적 성공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성인교육을 제공하고 요구하는 유명한 사회 운동의 역할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왔으며, 성인 학습과 활발한 시민의식(citizenship)의 관계는 명백하게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평생학습과 인적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사회적 자본과 평생학습 간의 관계를 처음 연구했던 Tom Schuller와 Field

는 사회적 자본과 평생학습의 잠재적 균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관계와 성인학습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17개의 서구국가에서 성인교육 참여와 사회적 자본 수준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그 둘 사이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Field, 2003). 이러한 Field(2003)의 연구 결과는 특정 시민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과 활발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태도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 줌으로써 현대 사회 질서를 포함한,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성인 학습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Robert Putnam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구체적으로, 활발한 시민의식과 동의어로 보이는 용어인, 시민 참여를 통해 활발히 만들어진다. 그는 능동적인 시민의식이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근원(source)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서로 낮은 사람들이 공유된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상호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평생 학습은 또한 성인 교육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평생학습의 기원은 사회 과학보다는 정책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1970년대의 평생학습의 정책 기원은 분석 가치가 거의 없는 '비어 있는 개념'이었다(Gustavsson, 1995, pp.90; Field, 2003). 그러나 Kjell Rubenson에 따르면, 최근 평생학습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성인 학습이 경제화를 촉진시키는 시장주의를 선호하면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변화시켜 왔다(Rubenson, 2001, pp.91~93). 또한 Linden West(1998, pp.555)는 평생학습은 확립된 질서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경제적 책임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강조하는 미사여구가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Janse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1998, pp.81~82), 평생학습은 명확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정치적 선택에 참여하기 위해 어떠한 욕구나 능력이 없는 학습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시장 주도의 사회에서 자아실현의 개인적인 과정을 위한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특히 Field는 성인학습을 통해서 발생하는 제도화된 교육뿐만 아니라 형식,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을 포함한 다양

한 학습을 나타내기 위해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성인학습 대신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사회적 자본과 평생학습의 관계는 연구 이상의 광범위한 의미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폭넓은 정책 아젠다를 통해 사회적 결속 유지와 함께 경쟁력 향상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추구해 왔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적극적인 시민 의식,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이슈들을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다루어 왔다. 이를 위해 열린 학습 환경, 적극적인 시민의식, 동일한 학습 기회, 그리고 사회적 결속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한 작업 집단을 만들었다. 국가의 경쟁력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략을 추구하는 핵심으로서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과 사회적 자본은 둘 다 불확실하고 범위가 변하는 모호한 개념이다. 게다가 두 가지 개념 모두 정부보다는 시민들과 비정부 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속해 있다. 그러나 둘 모두 정책 결과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적 자본과 평생학습 간의 관계는 잠재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성, 그들로부터 야기되는 상호성, 그리고 상호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가치로 정의 내려진다. 여기서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해 보자. 학습은 사람들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동 역량을 확장시키는 데 적합한 새로운 기술, 정보, 그리고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통 규범적으로 학습하는 개인이나 지역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으로 고려된다.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에 의해 촉진되는 목표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을 그들의 학습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Field, 2003). 따라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광범위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유형의 학습을 통한 잠재적 효과를 갖게 되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게 되고, 이런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

시민활동의 참여는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개인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적 변혁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켜 준다. 영국의 성인 학생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2/3가 자발적 조직에서 시민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는 개인의 권력과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킬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몇 가지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친족관계 및 유사하게 가까운 연결이 있다. Putnam과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개인들이나 그룹 간의 이런 가까운 관계를 “결속적(bonding) 사회적 자본”이라고 정의 내렸다. 둘째, Putnam은 그가 “매개적(bridging) 사회적 자본”이라고 정의 내린,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을 연결하는 느슨한 네트워크와 연결(ties)들의 폭넓은 집합체를 설명하였다. 매개적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그룹 안에서 이용할 수 없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마지막으로, Michael Woolcock은 ‘연결적(linking)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내는, 사회 구조 안에서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세 번째 연결 집합을 규명해 왔다. 연결적 사회적 자본은 서로 다른 사회계층의 사람들 또는 조직 위계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평생학습에 대한 영향과 관련지어 설명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사회적 자본 유형과 평생학습에 대한 영향

사회적 자본의 유형 (Type of social capital)	평생학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possible effects on lifelong learning)
결속(Bonding)-밀도 있으나 제한적인 네트워크, 구성원의 다양성, 높은 수준의 상호성과 신뢰,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	그룹 안에서 아이디어, 정보 그리고 기술의 자유로운 교환; 어린이들의 정체성(identity) 형성에 강한 영향을 줌; 수용된 정보에 대한 높은 신뢰, 외부그룹으로부터의 새롭고 다양한 지식의 제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고도의 전통주의자들과 교육제도의 관련성
매개(Bridging)-느슨하고 열려 있는 네트워크, 구성원의 다양성, 규범(norm)과 공동의 목표 공유, 신뢰와 상호성의 수준은 좀 더 제한됨.	그룹 안에서 그리고 그룹 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정보, 기술과 지식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환; 정체성 유지와 성인들의 재개(renewal)를 위한 잠재적 자원; 그룹 내부(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타인)로부터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높은 신뢰; 높은 상황 의존적인 공식 교육 제도와의 관계
연결(Linking)-느슨하고 열려 있는 네트워크, 다양한 구성원, 규범(norm)과 공동의 목표 공유, 신뢰와 상호성의 수준은 경쟁하는 수요에 의해 제한되어짐.	그룹 안에서 그리고 그룹 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정보, 기술과 지식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환; 그룹 내부(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타인)로부터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다소의(some) 신뢰; 성인들 사이의 정체성 변경을 지원하는 공개된 자료; 매우 조건적인(conditional) 공식 교육제도와의 관계

자료: J. Field(2003), "Civic Engagemdnt and Lifelong Learning" in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Vol.35, no 2, pp.147.

학습은 개인과 집단이 상호작용 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질과 그들의 학습 결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에 관심이 있다. 학습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의 사회화 관계의 양은 비공식 학습과 직장에서의 성인 학습의 질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Kilpatrick et al., 1999).

## 2. 시민참여와 평생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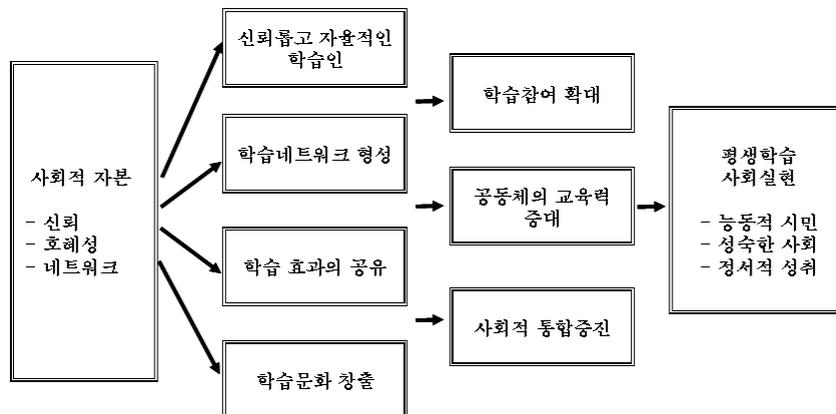
Field(2003)의 연구는 시민참여와 평생학습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평생학습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관한 결과의 구체적인 분석은 다른 경우에도 가능하다. 성인집단은 압도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함의는 사회계급, 모든 연령, 성별, 그리고 각종 종교집단에 걸쳐 대략 동일하게 나타났다. 몇 가지 차이점은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행동적 이슈에서 나타난다. 사회적 계급과 교육경험과 같은 가족 요인에 의한 것만큼이나 연령집단에 의해 다소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육체노동자들과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 노동자들은 평생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있어서 덜 긍정적이다.

이전의 질적 연구는 이러한 일반적 유형이 형식적 성인교육 훈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참여와 결합한다고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의 밀도 있는 네트워크는 정보, 기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Field & Spence, 2000; Field, 2003). 이들은 평생학습에 대한 태도의 유형 간의 결합에 대한 질적 분석을 허용하면서 초기 연구를 보완하였다. Field(2003)의 연구 결과는 더 큰 데이터로부터 추출되어서 선택되어 왔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자본과 평생학습 간의 관계를 조망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참여의 4가지 구체적인 유형(지역사회, 문화, 종교, 스포츠)에 대한 태도들 간의 관계에 중점을 맞추었다. 평생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모든 4가지 형태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간의 명확한 관계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평생학습에 대한 태도는 주요 종교 그룹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서로 다른 사회 계층 사이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중산 계층은 평생학습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의 교육 경험 즉, 이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시민참여를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Field(2003)의 연구는 시민 참여와 성인 교육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Falk와 그의 동료들은 성인과 지역사회 교육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나아가 사회경제적 삶의 질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학습의 일반적인 방법과, 특히 지역사회 교육이 지역사회에 가치를 더하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사회자본을 생성하고, 평생 학습을 구축하며, 자원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 통합과 시민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실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5-1] 사회적 자본과 평생학습사회



자료: 구혜정(2003),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30쪽.

결론적으로 평생학습은 지역사회 교육과 같이 개인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 기여는 때로 직접적으로 지역사회를 넘어서 보다 넓은 국가 전체 사회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제3절 시민의식과 평생학습

#### 1.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

오늘날과 같이 위험한 사회 환경에서 성인의 평생 학습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학습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성인 학습의 사회적 목적은 발전하는 학습사회 안에서 성인 교육의 특성 변화와 성인 학습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현대 사회에서 학습의 사회적 목적을 유지하고 재구성하는 방법은 기존의 경제적 필요에 따른 인적자원을 축적하기 위해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는 것과 반대의 관점으로서 시민의식을 위한 성인 학습에 대한 생각들을 제기한다. 사회적 목적을 위한 학습의 범위와 유사하게 시민의식을 위한 성인학습은 새로운 틀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한 새로운 틀은 첫째, 포용적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 둘째, 다차원적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 셋째, 요구에 반응적인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 넷째, 적극적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 시민의식 교육은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목적의 성인 학습을 위한 새로운 논리로서 개발되었다.

이처럼 시민 사회에서 성인의 학습 활동은 폭넓게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성인교육에서 성인학습으로의 이동은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인학습은 새로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성인학습이 성인교육자들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새로운 사회적 목적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목적의 다른 측면들은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상당 부분 중복되어 나타난다. 실제로 성인 학습의 역할은 이러한 사회적 목적 달성의 연속선상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 목적과 관

련하여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용적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이다. 현대 사회에서 학습은 경제적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포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포용적 시민의식 학습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가치와 목표들을 탐색하고, 사회통합과 같은 이슈를 중요시하며, 사람들의 내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두를 위한 학습을 의미한다(Galbraith, 1991). 예컨대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경우, 서로 다른 집단 간에 폭넓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집단들이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을 배우며, 나아가 환경 및 인간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결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포용적 시민의식에 중점을 둔 학습을 통해 개인과 집단 학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인 것이다. 학습은 모두에게 사회적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 사회와 학습과 사회정의와 사회통합과 연관될 수 있는 실행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다차원적 시민의식을 위한 성인학습이다. 다차원적 시민의식을 위한 성인학습은 생활 정치의 관심, 그리고 증가하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 사이의 연계 효과를 중요하게 본다. 다차원적 시민의식은 공익과 공공문화의 탐색을 정체성의 목적과 연결시키려고 시도하면서 성인학습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필요에 반응하는 반응적 시민의식을 위한 성인학습이다. 여기서 인간의 권리는 시민의식에서 매우 중요하고 성인학습은 사람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지위를 인식하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성인 학습자들은 시민 권리와 책임의 모든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업무나 고용상태의 중요한 상황에서, 성인 학습자는 좀 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다양한 권리와 책임을 위해 성인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강조는 복지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필요에 생산적이고 필연적으로 대응하면서 제공된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이다. 적극적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은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고, 그리고 반응적인 접근들을 통합하는 동시에 사회적 목적 달성과 관련된 시민의식을 위한 성인 학습에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적극적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은 좀 더 개별적이고 경제적이고 통제된 평생 학습 측면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나타낸다. 국가 또는 경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하여 적극적 시민의식은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의 대안적 형태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시민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발생한다.

## 2. 적극적 시민의식과 평생학습

Michael Welton(1997)은 시민사회에서의 학습을,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심사숙고한 접근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으로 보고 있다. 적극적 시민의식은 폭넓은 범위에 걸쳐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사회의 서로 다른 연속선상에서 성인학습은 나타난다. 즉 지역사회에서 학습 연구 모임, 자발적 조직, 사회 운동 커뮤니티 집단의 다양한 유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시민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잘 이해할 것이며, 더욱더 공공재를 위해 개인을 희생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다(Putnam, 1996).

성인 교육자들로부터 더 많이 주목 받는 시민사회의 측면은 사회운동 촉발과 그 안에서 또는 그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학습이다(Welton, 1993; Holford, 1996; Newman, 1995). 실제로 성인학습자들은 형식 및 비형식 학습 상황 모두 이러한 사회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환경단체, 소비자 집단, 성별, 인종, 장애, 나이와 같은 이슈를 둘러싼 여러 집단에서의 비형식학습 상황은 좀 더 지식에 근거하며, 이슈 지향적으로 보여진다. 어떠한 학습이든지 학습은 사회운동

발달의 중심에 위치한다. 특정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시민권의 폭넓은 이해관계 간의 연구에서 사회운동과 관련된 학습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사람들은 과거의 협의의 성인학습보다 더 적합한 학습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인교육자에 대한 임무에 있어서도 새로운 역할과 태도가 요구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위한 모든 학습으로 적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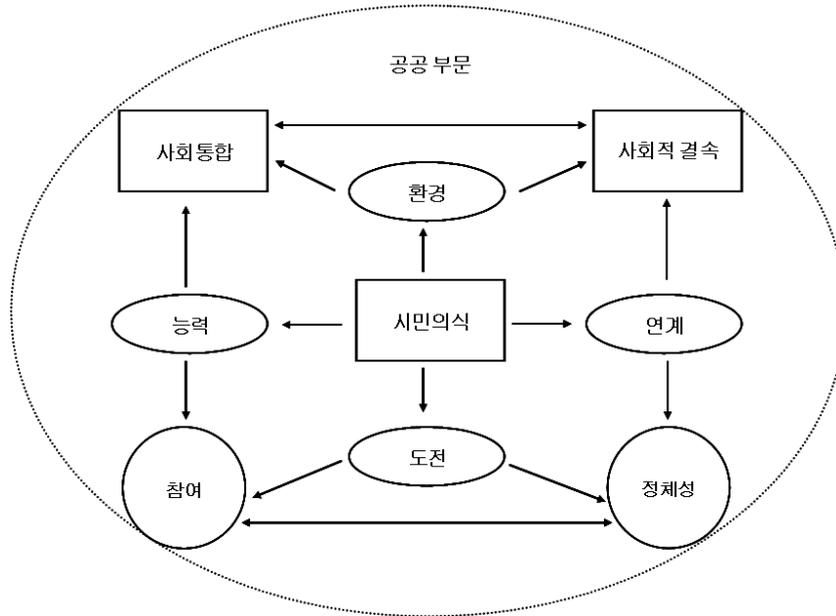
시민사회에서 성인 학습은 다양한 범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필요에 의해 지배적이었던 평생학습의 대응점으로서 시민의식을 위한 적극적 학습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려는 상당한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성인 학습 교육자들은 전통적인 역할과 목적 그리고 그것이 작용하는 상황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적극적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슈는 평생학습에 있어서 비지시적이고, 기술적이며, 기능적인 역할과 정보 능력을 통해 사회운동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파트너십을 도출하는 것이다.

Elsd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단위 자원봉사 조직들은 보다 공식적인 훈련에 대한 요구가 높을 뿐만 아니라 비형식 및 우연적인 학습에 더 많이 접근하고 있음을 보였다(Elsdon et al, 1995). 이것은 좋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학습은 사회 활동에 참여할지에 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기회에 대한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를 위한 특정 능력, 시민 의식과 관련된 이해를 증진시킨다고 한다(Strawn, 2003, pp.64; 이경아, 2008).

사회결속과 통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학문적, 그리고 대중적 논쟁의 주요 논제였다. 이러한 관심들은 증가하는 교육적 발안 및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특히 적극적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사회질서를 만들어내는 시민의식이 사회 통합과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의하였다. 시민의식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위해 사회학적 상황과 어떠

한 관련이 있는지를 다음 그림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2] 적극적 시민의식의 영역



자료: Th. Jansen, N. Chioncel & H. Dekkers(2006), Social cohesion and integration: learning active citizenship.

이러한 시민의식의 실행은 능력, 연계, 도전, 그리고 환경이라는 4가지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능력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의무를 충족시키고 책임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의 구체적인 행동에 중점을 둔다. 연계는 공동사회에서의 책임과 참여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룬다. 도전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지역 사회 내에서 개인의 삶과 연관된 문제들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환경은 단체 행동 및 계약에 따른 상황적 영향에 대한 문제에 중점을 두며 시민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적극적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 역량은 참여 역

량에 따라 다르다. 참여 역량은 학습 내용이나 참여 상황, 그리고 주어진 학습 과정에서 동시에 개발된다. 참여 역량을 위한 교육은 시민의식의 실행을 촉진함으로써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은 보다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는 사회통합을 통한 민주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 3.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의식 향상과 평생학습

변화하는 사회에서 민주적 시민의식을 위한 기본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것은 교육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뉴딜 정책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시민의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경우도 이런 측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의 변화 속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계약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식 교육은 이미 유럽 전역에서 교육 개혁의 공통 목표이다. 민주적 시민의식과 이를 위한 교육은 시사적인 연구 주제인 동시에 교육 정책과 세계적인 관심 분야의 우선순위에 놓여지고 있다.

시민의식(citizenship)은 상황 관련 이슈이다.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학습은 시장의 한계라든지 국제화, 민주주의적 관점, 그리고 학습사회의 도래와 같은 도전에 대응해야만 한다. 시민의식은 학습의 목표이며 수단이다. 이것은 다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의 기본이 될 것이다. 다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은 다른 학습 모델과는 다르다.

시민의식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것은 지위인 동시에 역할이다. 첫째, 시민의식은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지위이다. 이것은 국가가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자유의 집합체이다. 여기서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로, 시민의식은 사회적 역할이다. 이것은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적, 국가적, 세계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정치적 커뮤니티에 따

라서 동시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그들의 시민적 지위를 실행할 수 있는 확실한 역량 또는 시민 교양을 필요로 한다. 지위로서의 시민의식과 역할로서의 시민의식은 문화적 관념 또는 개인의 의지에 따른 시민 정체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Audigier는 태도, 정체성, 우선순위, 규칙, 그리고 각각의 모든 시민들의 initiatives에 따라 법률적 상태의 결과물인 '핵심영역'과 문화적 변동을 언급하였다. 시민의식은 정의로운 사회와 평등한 권리를 포함한다.

민주적 시민의식을 위한 능력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 교육 유형이나 교육 수준, 전문성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개인은 민주 시민의식을 위한 핵심 능력을 획득해야만 한다. 따라서 시민의식의 핵심 능력이 무엇이고,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민주 시민을 위한 능력은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된다. 포괄적인 지식은 사회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기술은 협력, 갈등관리와 해결, 참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등을 포함한다. 태도에 있어서 개인적 책임은 책무성과 개인의 학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책임감에 기여한다. 가치는 기회의 평등, 권리의 합리성을 포함하며 독립과 상호공존, 협력, 환경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포함한다.

<표 5-2> 시민의식을 위한 핵심능력

EDC 자문회의 (1996)	Veldhuis (1997)		Audigier (1998)
	협회의 능력	광의의 능력	
지식	지식과 통찰력	정치적/법적 측면	인지적 능력
가치	태도나 의견	문화적 측면	윤리적 능력과 가치 선택
기술	지적 기술	사회적/경제적 측면	행동을 위한 역량 (사회적 능력)

자료처: Council for Cultureal Co-operation(2000),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pp.83-85.

민주적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은 모든 환경과 인간 활동 각각의 양식 안의 삶을 통해서 학습된다. 따라서 학습은 개인의 전체 삶에서 계속되며, 다양한 범위의 기술을 획득하고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시민의식의 실행을 조장한다. 따라서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 학습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학습이 시민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평생학습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시민의식과 평생학습 두 가지 요소 간의 관계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은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 가능성처럼, 조직화된 학습(형식 또는 무형식) 모두에 사용된다.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은 공공의 선(virtue)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의식은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통해서 달성된 사회적 결속의 한 유형이다. 이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생각을 하도록 하며, 개인, 집단, 지역사회, 국가의 공동책임만큼이나 공통적 이해, 공적 삶의 질을 강조한다. 더불어 시민의식과 관련되어 평생학습에서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예컨대, 모든 사회 활동에서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학습을 포함하며,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행동을 학습에 연계시킴으로써 상호작용을 상승시키고, 학습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일로 인식시킨다는 점이다.

## 제4절 평생학습과 시민의식 관계 분석

### 1. 자료와 관련 변수

#### 가. 사회통계조사 데이터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과 의식구조를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조사는 1977년 3월 최초로 실시하여,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조사부문은 총 10개 부문으로 가족, 노동, 보건, 환경, 교육, 소득과 소비,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로 구성되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1회 조사로 3개 부문씩 각 부문별 4년 주기로 조사하였으며, 2006년~2007년까지는 매년 3~4개 부문씩 부문별 3년 주기로 조사주기를 전환하였고, 2008년부터는 매년 5개 부문씩 2년 주기로 조사주기를 전환하였다. 이 중 평생학습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부문 조사는 1996년, 2000년, 2004년, 그리고 2008년에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표본가구의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은 조사항목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한 달 가량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부재가구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병행하였다. 1996년 사회통계조사는 문화와 여가, 교육 부문에 대해 조사되었으며, 평생학습(44번)과 관련하여 귀하가 지난 1년간 참여한 교육에 모두 표시하고 각각의 교육일수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재학생 및 재수생은 제외하였다. 교육 형태는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대학평생교육원, 복지관, 시민회관 등), 직업훈련(영농교육 포함), TV 및 라디오 강좌 청취, 그리고 기타 및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조사는 문화와 여가, 교육, 정보와 통신에 대한 부문에서 실시되었으며, 평생학습 관련 문항(36번, 37번)은 1

개 증가하였다. 36번 문항은 1996년도 문항과 동일하며, 37번 문항은 향후 받고 싶은 교육을 3순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구분은 일반 기술직업훈련, 컴퓨터 관련교육, 어학 관련교육, 전통기능 및 전통문화 관련 교육, 문화교양여가선용 관련 교육, 사회봉사 관련 교육, 정규교육과정,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2004년 조사는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부문에 대해 조사되었으며, 평생학습관련 문항(42번, 43번)은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여 경험에 대한 문항은 동일하며, 향후 받고 싶은 교육에 있어서 구분은 동일하나 순서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컴퓨터, 전통기능, 일반기술직업, 어학, 문화교양, 사회봉사, 정규교육, 기타 순임). 2008년도는 교육, 안전, 환경 부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평생학습'이라는 표기를 '평생교육 참여여부(15번)'와 '희망 평생교육(16번)'으로 이원화하여 구분하였다. 조사 내용은 기존과 동일한 반면, 참여여부에 있어서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그러나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와 중복되는 조사 지표로서 향후 이 항목에 대한 결과는 통계청 승인을 받은 평생학습 실태조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는 국제 비교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OECD 조사 대상과 동일하게 25~64세 성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통계청 조사에서 15세 이상 재학생 및 재수생을 제외하고 조사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5-3&gt; 사회조사 변수(2008)-교육, 안전, 환경 부문

구분	사회통계조사 변수 정의 (2008 기준)-교육,안전,환경
C1	가구일련번호(가구구분 KEY)
C2	행정구역(시도)
C3	1. 거처의 종류
C7	3. 성별
C8	4. 만 나이
C10	6. 교육 정도
C12	혼인상태
C13	주관적 만족감
C30	14. 전문제고 또는 대학졸업여부
C31	14_11. 취업여부
C32	14_1. 전공과 직업일치여부
C33	17_1. 학교교육의 효과 - 지식, 기술습득
C35	17_3.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C36	17_4. 생활, 직업, 취업에의 활용
C39	19. 부모의 자녀 학교운영 참여도
C52	24_1.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 인식도
C61	25. 우리나라사람들의 안전의식수준
C63	26.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
C78	32. 다른 사람들의 준법수준
C79	33. 자신의 준법수준
C130	42. 환경보호부담금
C135	46.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C136	47. 산업코드
C137	48. 직업코드
C138	49. 종사상지위
V141	15. 평생교육참여여부
V142	15_11. 직장연수
V143	15_12. 학원수강
V144	15_13. 교양강좌
V145	15_14. 직업교육
V146	15_15. TV 및 라디오 인터넷강좌
V147	15_16. 기타
V148	15_21. 참여하지 않는 이유
V149	16. 희망평생교육
V150	16_1. 희망평생교육 1순위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서 평생학습의 참여가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첫째는 평생학습 참여에 따른 시민의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두 번째는 평생학습이 시민의식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사회통계조사 data set의 1996, 2000, 2004, 2008년도 조사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평생학습 참여와 시민의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2008년도 data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이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관련된 data와 변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나. 자료특성 및 변수

##### 1) 자료의 구성

평생학습 참여는 25~64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조사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평생학습 및 시민의식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에 관련된 조사는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에 실시되었으며, 시민의식과 관련된 항목으로 사회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조사는 1997, 2001, 2005, 2008년에 조사되었다.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종단적 분석을 하는 데 사회조사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조사 연도에 따라 조사 부문이 다르며, 따라서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상관이나 인과 관계를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에 관한 시기별 변화는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 1996년도를 기준으로 1997년의 조사, 2000년과 2001년의 조사, 2004년과 2005년의 조사를 연결하여 평균값을 비교할 것이다. 사회조사에서 1997년도에는 안전 부문이 별도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주거와 교통에서 안전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항목들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횡단적 분석에 있어서 2008년도 자료는 평생학습 관련 조사와 사회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적 속성을 고려한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에 관한 상관 및 인과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다.

<표 5-4> 연도별 사회조사 부문

구분	연도	조사 부문	연도	조사부문
1차	1996	문화와 여가, 교육	1997	주거와 교통, 환경
2차	2000	정보통신, 문화여가, 교육	2001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3차	2004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2005	복지, 안전, 환경
4차	2008	교육, 안전, 환경		

## 2) 변수 개요

<표 5-5> 사회통계조사 중 관련 변수

대항목	세부항목	비고
인적사항	성별, 나이, 교육 정도, 결혼여부, 구직상태, 종사상지위, 가구소득	2008년 종사상지위 문항 변화(상용, 일용, 임시 → 임금근로자)
교육 및 평생학습	학교교육효과 전공직업일치도 교육비부담과 지출, 평생학습(종류, 기간, 희망교육)	1996년도는 희망 평생교육 조사 없음.
시민의식	여가만족 학교운영참여도(유자녀 시) 사회안전도, 안전의식(자기, 타인) 공공질서수준 준법정신(자기 타인) 환경오염방지노력 환경보호세금	1997, 2001, 2005년도는 관련 변수 평균 구함. 2008년은 개별 분석

<표 5-6> 평생학습과 시민의식 분석 틀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2008년	1996	2000	2004
성별 나이 교육정도 혼인여부 지난 1주일 활동상태 (2008년 기준) 종사상지 위(2008년 기준) 가구소득	평생학습 -참여여부 -참여유형 -희망교육	주관적 만족감	여가만족감 (22번)	여가활용만족 여부(21번)	여가활용만족 (28번)
		전공과 직업일치여부	전공직업일치	전공직업일치	전공직업일치 (41)
		교육비부담인 식(21번) 부모의 자녀 학교운영 참여도	교육비부담 인식(45번)	교육비부담 (1번)	교육비부담인 식(44번)
		교육기회충족 (13번)	교육기회충족 (36번)	교육기회충족 (30번)	교육기회충족 (37번)
		학교교육효과 (17번) -유형별	학교교육효과 (38번) -유형별	학교교육효과 (32번) -유형별	학교교육효과 (38번) -유형별
		사회 안전 전반적 인식 타인의 안전의식 자신의 안전의식	별도 조사data 분석 별도 조사data 분석 별도 조사data 분석		
		자신의 준법 타인의 준법			
환경보호 부담금 환경오염방지 노력					

주: ( )안의 번호는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문항 번호임.

위의 각 변수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t;표 5-7&gt; 변수 설명

변수		1996		2000		2004		2008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개인 속성	성별(남=1, 여=2)	1.49	0.50	1.50	0.50	1.50	0.50	1.51	0.50
	연령(생년)	41.41	11.01	41.86	10.89	41.84	10.58	43.35	10.43
	교육 정도 (1=고졸 미만,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이상)	1.96	1.03	2.08	1.05	2.24	1.09	2.42	1.07
	혼인상태 (1=미혼, 2=기혼)	1.88	0.32	1.87	0.33	1.87	0.33	1.86	0.34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1=취업, 2=미취업)	1.26	0.44	1.29	0.45	1.28	0.45	1.33	0.47
	중사상지위 (1=임금근로자 2=비임금근로자)	1.42	0.49	1.41	0.49	1.36	0.48	1.33	0.47
여가 및 교육 에 대한 변수	주관적 만족감 (5점 척도)	2.59	0.86	1.28	0.45	1.76	0.43	3.27	0.96
	전공과 직업일치여부 (5점 척도)	2.82	1.31	2.70	1.27	2.76	1.26	2.98	1.30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3.80	0.95	3.91	0.94	4.06	0.93	4.13	0.87
	교육기회의 충족도 (5점 척도)	1.80	0.40	1.76	0.43	1.67	0.47	1.59	0.49
	학교교육 효과	지식, 기술 습득	3.52	0.90	3.54	0.90	3.34	0.88	3.32
인격형성		3.15	0.95	3.11	0.98	3.05	0.92	3.10	0.91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3.08	0.89	2.97	0.90	2.91	0.89	2.99	0.88
생활, 직업, 취업에의 활용		3.19	0.96	3.00	0.97	2.91	0.97	3.03	0.94

<표 5-8> 변수의 평균 비교

변수		1996		2000		2004		2008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개 인 속 성	성별(남=1, 여=2)	1.49	0.50	1.50	0.50	1.50	0.50	1.51	0.50	
	연령(생년)	41.41	11.01	41.86	10.89	41.84	10.58	43.35	10.43	
	교육 정도 (1=고졸미만,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이상)	1.96	1.03	2.08	1.05	2.24	1.09	2.42	1.07	
	혼인상태 (1=미혼, 2=기혼)	1.88	0.32	1.87	0.33	1.87	0.33	1.86	0.34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1=취업, 2=미취업)	1.26	0.44	1.29	0.45	1.28	0.45	1.33	0.47	
	종사상지위 (1=임금근로자 2=비임금근로자)	1.42	0.49	1.41	0.49	1.36	0.48	1.33	0.47	
여 가 및 교 육 에 대 한 변 수	주관적 만족감(5점 척도)	2.59	0.86	1.28	0.45	1.76	0.43	3.27	0.96	
	전공과 직업일치여부 (5점 척도)	2.82	1.31	2.70	1.27	2.76	1.26	2.98	1.30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3.80	0.95	3.91	0.94	4.06	0.93	4.13	0.87	
	교육기회의 충족도 (5점 척도)	1.80	0.40	1.76	0.43	1.67	0.47	1.59	0.49	
	학교교육 효과	지식, 기술 습득	3.52	0.90	3.54	0.90	3.34	0.88	3.32	0.86
		인격형성	3.15	0.95	3.11	0.98	3.05	0.92	3.10	0.91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3.08	0.89	2.97	0.90	2.91	0.89	2.99	0.88
		생활, 직업, 취업에의 활용	3.19	0.96	3.00	0.97	2.91	0.97	3.03	0.94

여가 및 교육에 대하여 평생학습 참여자와 미참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9> 평생학습참여에 따른 교육태도 차이

	평생교육참여 여부		1996		2000		2004		2008	
	mean	t값	mean	t값	mean	t값	mean	t값	mean	t값
주관적만족감	참여	2.72	16.26**	1.69	-5.84**	1.73	-6.253**	3.54	23.91**	
	미참여	2.56		1.72		1.76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참여	3.25	31.97**	3.15	34.09**	3.16	34.642**	3.35	22.48**	
	미참여	2.61		2.50		2.56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참여	3.80	-0.04			4.04	-2.323*	4.05	-4.92**	
	미참여	3.80		4.08						
교육기회의 충족도	참여	1.67	-31.86**	1.64	-28.02**	1.56	-32.884**	1.49	-16.84**	
	미참여	1.83		1.78		1.73				
학교교육의 효과 1	참여	3.53	2.31 *	3.52	-2.65**	3.39	7.490**	3.42	9.08**	
	미참여	3.51		3.55		3.32				
학교교육의 효과 2	참여	3.10	-5.46**	3.05	-7.36**	3.04	-0.752	3.13	2.35*	
	미참여	3.16		3.13		3.05				
학교교육의 효과 3	참여	3.06	-2.91**	2.94	-3.45**	2.91	-0.341	3.04	4.05**	
	미참여	3.09		2.98		2.91				
학교교육의 효과 4	참여	3.16	-3.41**	2.93	-7.20**	2.88	-3.676**	3.06	2.77*	
	미참여	3.20		3.01		2.92				

주: 1) \* p<.05, \*\* p<.01

2) 2000년도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은 데이터 셋이 달라서 분석 불가능

## 2. 평생학습 참여율에 따른 시민의식 변화-종단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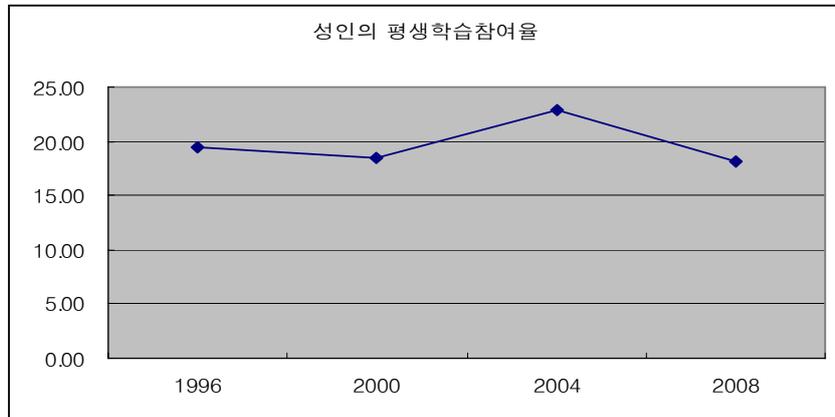
&lt;표 5-10&gt; 인적 속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96~'08)

구분		연도	1996	2000	2004	2008
성인(25~64세) 평생학습 참여율			19.51	18.54	21.80	18.07
성별	남		25.27	21.61	25.88	19.67
	여		13.37	16.25	20.23	16.85
연령별	20대		30.33	26.56	33.08	21.61
	30대		21.95	23.08	28.83	21.63
	40대		16.95	18.03	22.25	19.02
	50대		11.97	12.10	14.96	14.25
	60대		8.54	8.68	9.70	10.13
학력	고졸 미만		7.01	6.87	8.01	6.70
	고졸		18.31	17.25	19.20	13.05
	전문대		38.11	32.92	34.85	24.01
	대졸 이상		46.94	41.95	46.34	34.40
경제활동 여부	취업		21.15	20.75	25.30	20.92
	구직(실업)		18.18	13.96	18.55	12.54

주: 각각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데이터에서 25세부터 64세까지 연령을 대상으로 통계청 계산방식(가구원 가중치를 부여한 값)을 적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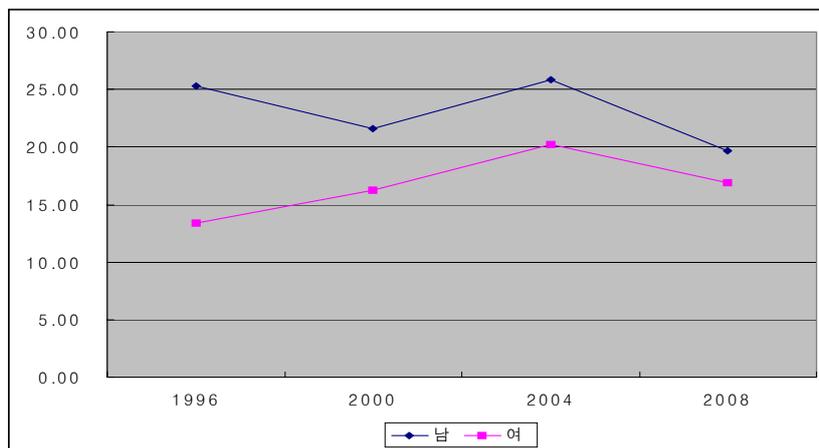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년 간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2004년도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 20% 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도는 1996년과 2000년보다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다.

[그림 5-3]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9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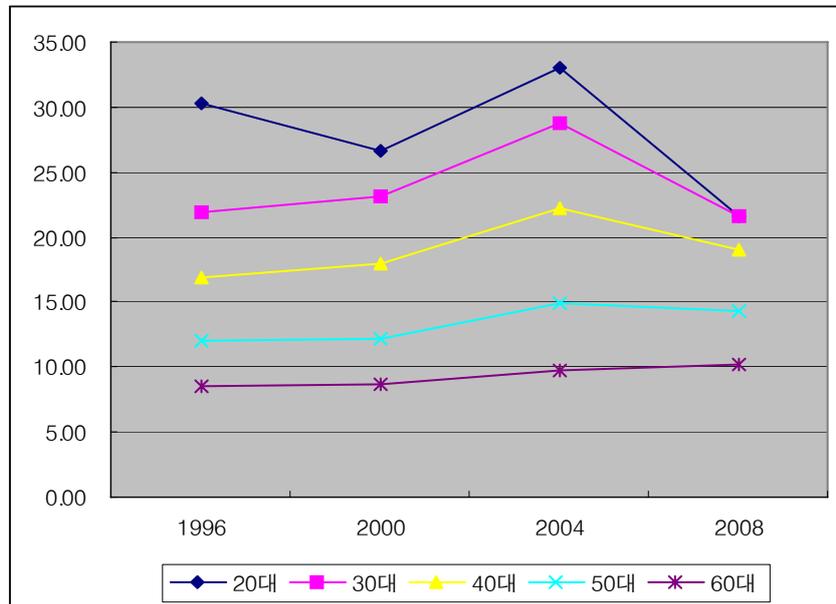
인적 속성별로 평생학습 참여율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평생학습 참여 특성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4]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9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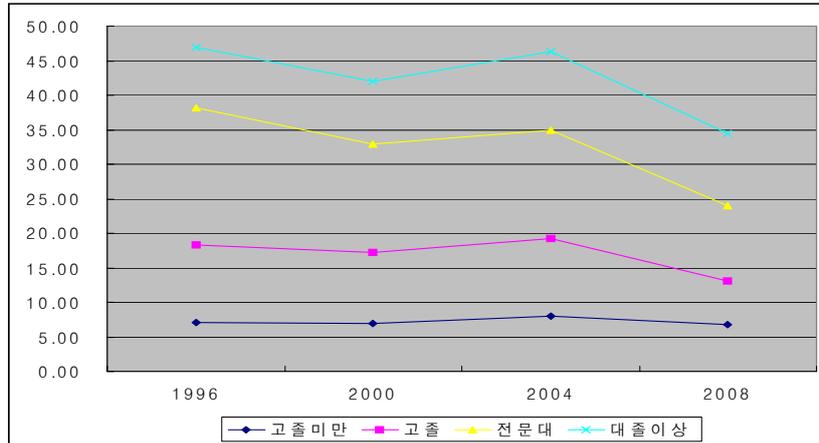
둘째, 연령별 참여 특성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순서로 참여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6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5]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9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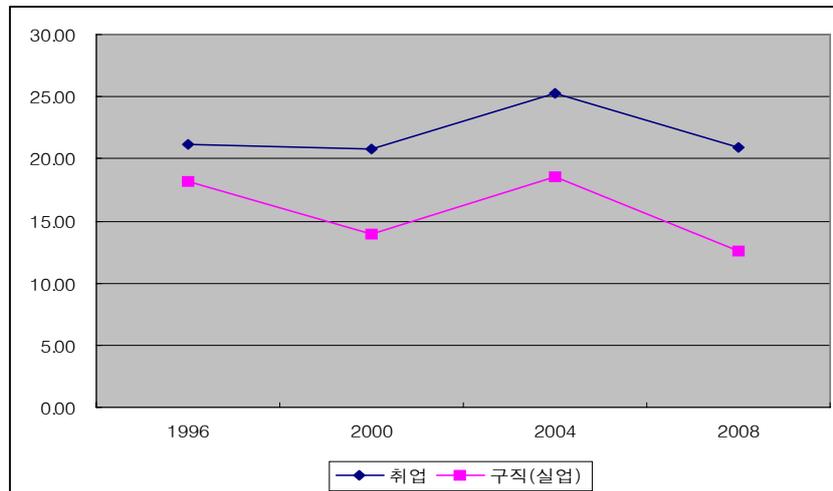
셋째,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를 보면, 대졸 이상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전문대졸, 고졸, 고졸 미만 순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력별 참여율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일정한 차이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평생학습 참여에 있어서 학력 간 격차는 지속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6]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율('96~'08)



넷째, 경제활동 상태에서 취업자와 실업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보면 취업자가 실업자보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점차 격차가 커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림 5-7]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96~'08)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년 간 평생학습 참여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보면,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 상태별로 참여율이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것은 평생학습에 있어서도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자일수록 평생학습 기회에 더 많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의 불평등은 10년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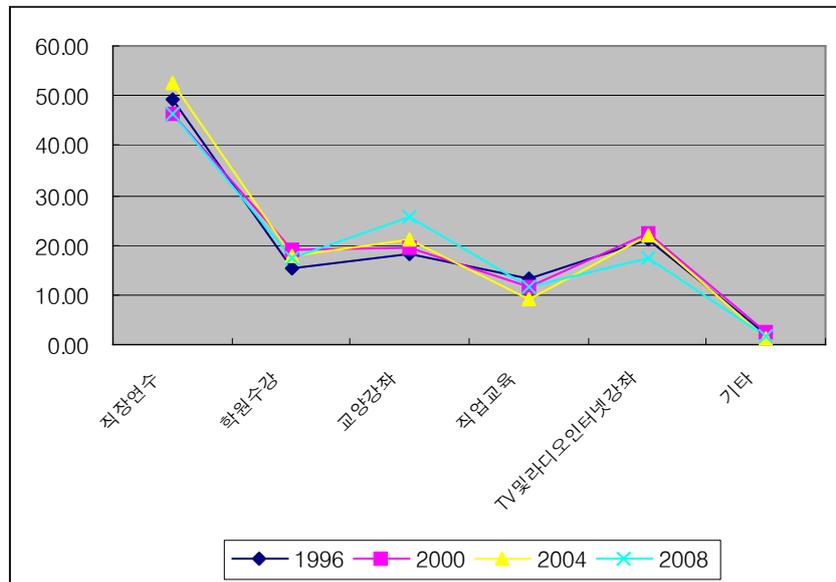
## 2) 평생학습 유형별로 참여율

지난 10여 년간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율을 보면, 직장연수가 50%로 성인들은 주로 직장연수를 통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교양강좌에 참여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TV 및 라디오 인터넷 강좌에 참여하는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생학습 유형에 있어서 직장연수를 중시하고 있고, 교양강좌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TV 및 라디오 인터넷 강좌는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는 2004년 10%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1996년과 2000년, 그리고 2008년도에는 10% 이상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는 직업을 중심으로 약 60% 정도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1>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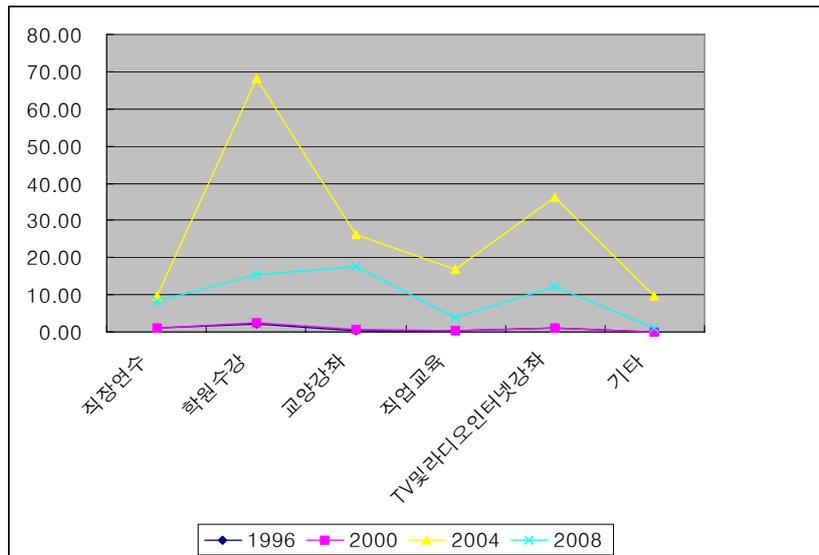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	1996		2000		2004		2008	
	참여 비율	평균 참여 기간	참여 비율	평균 참여 기간	참여 비율	평균 참여 기간	참여 비율	평균 참여 기간
전체	19.51	0.87	18.54	1.00	22.80	27.87	18.07	9.70
직장연수	49.05	1.20	46.20	1.00	52.45	9.68	46.51	8.15
학원수강	15.11	2.13	18.86	2.50	17.62	68.13	17.23	15.46
교양강좌	18.34	0.51	19.48	0.88	21.07	26.34	25.54	17.53
직업교육	13.18	0.21	11.77	0.42	9.23	17.04	11.51	3.99
TV,라디오, 인터넷강좌	20.93	1.05	22.28	1.07	21.76	36.14	17.38	12.05
기타	2.12	0.11	2.68	0.11	1.37	9.86	1.75	1.04

[그림 5-8]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율 변화



평생학습 유형별 평균 참여 기간을 보면 직장연수가 비교적 낮은 반면 학원수강은 연도에 따라 변화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항은 2008년도의 경우 참여기간이 가장 긴 유형은 교양 강좌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직업교육 참여 기간이 매우 짧아졌음을 알 수 있다. TV, 라디오, 인터넷 강좌의 경우도 상당 기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참여가 2004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인다.

[그림 5-9]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 기간변화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은 컴퓨터 관련 교육이 가장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 어학관련 교육과 문화교양여가선용관련 교육의 증가 폭이 매우 크며, 사회봉사관련 교육과 정규교육과정 참여하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lt;표 5-12&gt; 성인의 희망 평생교육 순위('96~'08)

희망 평생교육 1순위 비율	1996	2000	2004	2008
컴퓨터관련 교육	-	74.12	44.87	31.90
전통기능, 전통문화 관련 교육	-	2.65	3.75	4.17
일반기술직업교육	-	15.41	6.37	8.96
어학관련교육	-	2.93	20.31	23.91
문화, 교양, 여가선용관련 교육	-	3.40	14.82	18.54
사회봉사관련 교육	-	0.83	4.86	6.66
정규교육과정	-	0.48	4.62	5.13
기타	-	0.12	0.41	0.74

### 3) 평생학습 참여와 시민의식의 변화

시민의식의 변화는 크게 사회 안전에 관한 의식, 준법정신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경의식에 관한 사항으로 살펴보았다. 각 조사 연도별로 문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관련 항목들을 중심으로 연도별 평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시민의식의 변화를 보면, 과거보다는 2008년에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의식은 낮아졌으며, 준법정신은 약간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t;표 5-13&gt; 시민의식 수준 변화('97~'08)

구분		1997	2001	2005	2008
사회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국가안보(2008년only)				2.91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2.16		2.61	2.70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	2.22	2.57	2.72	2.82
	노약자나 어린이가 자동차 위협 없이 안전하게 보행	2.28	2.50	2.25	2.31
	화재				2.60
	먹거리				2.12
	식품, 약품 등 상품에 대한 안전	2.54	2.48	2.29	2.09
	정보보안(해킹 등)에 대한 안전			2.25	2.11
	우리나라사람들의 안전의식수준				2.64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				3.35
준법수준	소계	2.30	2.51	2.42	2.49
	다른 사람들의 준법수준	2.96	2.94		3.09
	자신의 준법수준	3.67	3.67		3.65
환경오염 방지노력	소계	3.32	3.31		3.37
	환경보호부담금		2.86	2.83	3.04
	환경오염방지노력-분리배출한다	4.05	4.25	4.25	4.23
	음식물낭비 줄인다.			4.01	4.01
	합성세제 줄인다.	3.84	3.65	3.57	3.59
	1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3.85	3.92	3.81	3.76
	41_5. 비싸도 환경친화상품 이용한다.	3.56	3.39	3.20	3.16
	41_6.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한다.	2.93	2.86	2.82	2.72
소계	3.64	3.62	3.61	3.58	
전체평균		3.1	3.19	3.05	2.99

평생학습 참여율, 그리고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연도의 시민의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보면 평생학습 참여율은 시민의식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양강좌 참여 기간과 인터넷강좌 참여 기간은 사회 안전 의식과 긍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lt;표 5-14&gt; 평생학습참여와 시민의식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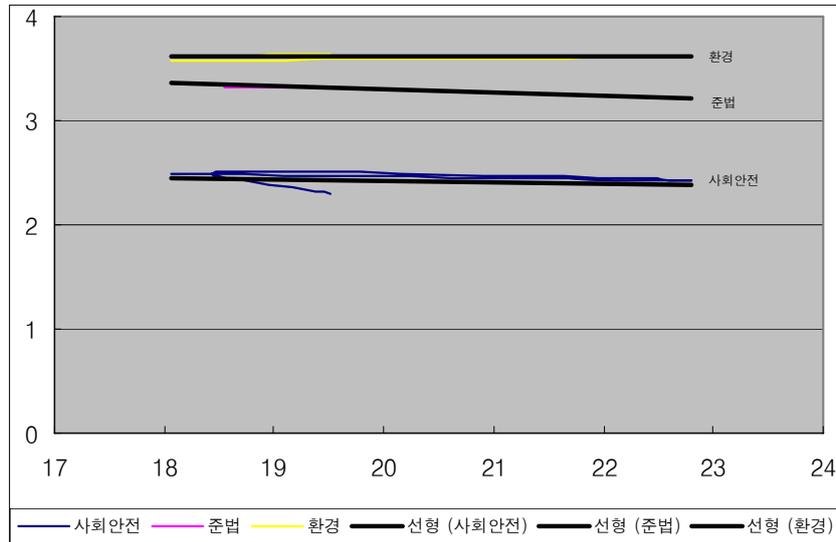
	구분	사회안전	준법	환경
평생학습 참여율	Pearson Correlation	0.936	-0.670	0.196
	Sig. (2-tailed)	0.064	0.533	0.804
직장연수기간	Pearson Correlation	-0.892	0.803	-0.309
	Sig. (2-tailed)	0.108	0.407	0.691
학원수강기간	Pearson Correlation	0.748	0.996	-0.728
	Sig. (2-tailed)	0.252	0.058	0.272
교양강좌기간	Pearson Correlation	.994(**)	0.990	-0.253
	Sig. (2-tailed)	0.006	0.089	0.747
직업교육기간	Pearson Correlation	0.838	0.991	-0.642
	Sig. (2-tailed)	0.162	0.086	0.358
인터넷강좌기간	Pearson Correlation	.992(**)	0.986	-0.274
	Sig. (2-tailed)	0.008	0.105	0.726

주: \*p<.01, \*\*p<.05

평생학습 참여율과 사회 안전, 준법정신, 환경의식, 그리고 이들의 값의 평균인 시민의식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 참여율과 시민의식과의 관계를 추세선으로 살펴보면,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준법정신과 사회 안전에 관한 의식은 낮아지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시민의식 자체는 평생학습 참여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거의 변화가 없는 정도이다. 이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지난 4차 조사만을 활용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림 5-10]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시민의식 수준 추세선



기존의 성인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들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실태 분석과 위의 분석은 매우 일치하고 있다. 장수명(2007)<sup>11)</sup>은 기존의 실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내용들(장수명, 2007) 중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낮아진다는 것과, 청년기의 학교교육과 성인 학습 참여율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에서 제공하는 훈련이나 다양한 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최운실, 2006; 이병희 외, 2005)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교육수준이나 연령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의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개인과 기업의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장수명(2007)은 말하고 있다.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성인학습의 불평등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효율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개인의 평생학습에 대해 동일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도 능력에 따라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양이 달

11) 장수명(2007), 인적자본으로 본 평생교육, *Andragogy Today* 2007, Vo.10, no3, pp.25~61.

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평생교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적 투자가 청소년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의 학습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에 대한 종단적 분석도 위의 실태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성에 따른 불평등, 연령 불평등, 교육 불평등,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 즉 사회적 측면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을 본 분석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시민의식으로서 사회안전과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은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성인의 평생학습 중 교양강좌나 TV 및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강좌에 참여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학습에 있어서 비경제적 측면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보호와 배분방식에 대한 체계적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은 단지 지난 12년간의 변화를 4회에 걸쳐 조사한 것에 기초한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평생학습 참여가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2008년도 사회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평생학습 참여가 시민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 3. 평생학습의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력 분석-횡단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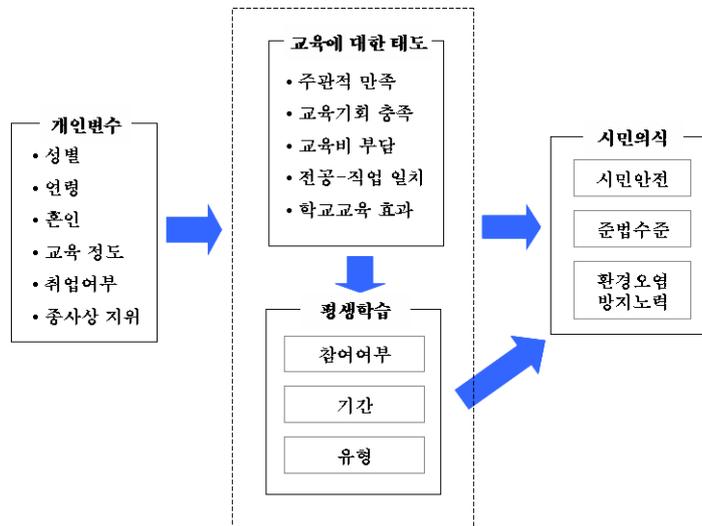
#### 가. 분석 틀 및 기초 통계

횡단적 분석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사회조사 2008」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횡단적 분석은 개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시

민의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종단적 분석에서는 사회조사를 4회에 걸쳐 10여년 간의 평생학습 참여와 시민의식(사회안전의식, 준법정신, 환경의식)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횡단적 분석에서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속성 변수로서 성, 연령, 혼인여부, 교육 정도, 취업여부, 그리고 종사상 지위를 사용하였다. 매개변수는 교육에 대한 태도를 사용하였다. 교육에 대한 태도는 주관적 만족도, 교육기회 충족여부, 교육비 부담 정도, 전공과 직업의 일치 정도, 그리고 학교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사용하였다. 도구변수는 평생학습 참여에 관련된 사항이다. 평생학습 참여는 기본적으로 참여 여부를 포함하였으며, 참여자에 한하여 참여기간 그리고 참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참여유형은 유형별 참여기간에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로는 시민의식을 사용하였다. 시민의식은 시민의 사회에 대한 사회안전의식, 자기와 타인의 준법 수준,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환경의식이 있다.

[그림 5-11]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관계분석 틀



본 조사의 표본은 통계청 사회조사(2008)에서 25세부터 64세까지 해당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 수는 약 3만여 명의 전국 조사이며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의 표본 집단은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사항을 대표한 값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의 응답자 표본은 통계청에서 표집을 한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로 통제된 집단이다.

다만, 연구 분석을 위해 성인(25~64세)에 해당되는 대상을 별도 데이터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표집의 특성이 혼인, 교육 정도, 취업상태, 종사상 지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녀 비율이 거의 같으며, 연령별로는 평균 43.4세이며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수준임을 보여준다.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미취업상태보다는 취업상태인 대상이 더 많으며,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임금근로자보다는 비임금근로자가 약간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만족감은 3.3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기회는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과 직업의 일치 정도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비 부담은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는 보통 수준(5점 만점 중 3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는 0.18 수준이며,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기간은 평균 57.8일 정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 중에서 교양강좌와 학원 수강, 인터넷 강좌에 참여하는 기간이 직장연수나 직업교육 기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의식에 있어서 사회안전에 관한 의식은 61.5%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준법정신에 있어서 79.5%가 준법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의식의 수준은 87.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환경의식 수준이 가장 높고 준법정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안전의식은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lt;표 5-15&gt; 변수 특성

	표본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성별더미(남=1)	30,588	0	1	0.49	0.50
연령	30,588	25	64	43.35	10.43
혼인상태더미(미혼=1)	30,588	0	1	0.14	0.34
교육 정도 <sup>1)</sup>	30,588	0	7	3.36	1.34
취업상태더미(취업=1)	30,588	0	1	0.67	0.47
중사상지위더미(임금근로자=1)	30,588	0	1	0.45	0.50
주관적만족감	30,588	1	5	3.26	0.97
교육기회충족더미(충족=1)	30,588	0	1	0.40	0.49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15,734	1	5	2.96	1.30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8,024	1	5	4.14	0.86
학교교육효과 <sup>2)</sup>	28,605	4	20	12.49	2.92
학교교육효과-지식, 기술습득	29,390	1	5	3.32	0.86
학교교육효과-인격형성	29,503	1	5	3.10	0.91
학교교육효과-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29,108	1	5	2.99	0.88
학교교육효과-생활, 직업, 취업 활용	29,266	1	5	3.03	0.94
평생학습참여여부더미(참여=1)	30,588	0	1	0.18	0.38
평생학습참여기간 <sup>3)</sup>	5,321	1	960	57.74	81.60
직장연수(기간-일)	5,446	0	365	8.15	21.41
학원수강(기간-일)	5,368	0	365	15.46	47.37
교양강좌(기간-일)	5,358	0	365	17.53	47.16
직업교육(기간-일)	5,353	0	365	3.99	23.25
TV 및 라디오 인터넷강좌(기간-일)	5,360	0	365	12.05	42.51
기타(기간-일)	5,328	0	365	1.04	14.66
사회지표	30,588	9	45	22.15	4.86
준법지표	30,588	4	20	12.73	1.80
환경지표	30,588	7	35	24.51	4.39

주: 1) 교육 정도: 0:무학, 1:초등 2:중등 3:고등 4:대학(4년제 미만), 5:대학(4년제 이상) 6:대학원 석사 이상, 7:대학원 박사과정

2) 학교교육효과: 학교교육효과는 4가지 효과 구분을 합한 값

3) 평생학습 참여기간은 평생학습유형(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교육, TV인터넷강좌, 기타)에 응답한 기간을 합한 값임.

#### 나. 평생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

평생 학습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개인적 속성

이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 교육에 관한 태도가 참여에 영향을 주는 정도, 그리고 개인속성과 교육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주는 정도를 알기 위해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짓 분석에서 우도값이 커서 추정 모형이 잘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로짓 분석 결과는 <표 5-16>에 제시되었는데 이는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은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 정도, 취업상태, 종사상 지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인 경우( $B=0.629$ )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B=0.495$ )에 평생학습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B=-0.242$ )이거나 미혼인 경우( $B=-0.267$ )에는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태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평생학습에 참여할 비율은 1.2배( $\exp(B)=1.149$ ) 높으며, 임금근로자인 경우 비임금근로자보다 2배 정도( $\exp(B)=1.876$ )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1단계 높아질 때마다 평생학습에 참여할 비율은 1.6배( $\exp(B)=1.641$ )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태도를 포함시키면 개인적 변수 중에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B=0.374$ ), 임금근로자일수록( $B=1.031$ )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는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임금근로자일수록 참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교육 태도가 평생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개인적 속성을 통제하고 교육태도가 평생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경우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높을 때( $B=0.191$ ) 그리고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높을 때( $B=0.301$ ) 평생학습에 참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1씩 높아질 때마다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는 1.2배( $\exp(B)=1.211$ ) 높으며,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1씩 증가할 때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도 1.4배( $\exp(B)=1.351$ )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교육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주관적 만족감이 높고,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높을 때 평생학습에 참여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주관적 만족감이 높을수록(B=0.163), 전공과 직업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B=0.186), 그리고 교육기회가 충족된 사람보다는 불충분하다고 인식한 사람들(B=0.246)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5-16>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유의 확률	계수	유의 확률	계수	유의 확률	
개인 변수	상수항	-4.457	0.000***			-6.702	0.000***
	성별더미(남=1)	-0.242	0.000***			-0.370	0.002**
	연령	0.034	0.020*			0.111	0.059
	연령제곱	0.000	0.069			-0.001	0.078
	혼인상태더미(미혼=1)	-0.267	0.000***			-20.872	1.000
	교육 정도1)	0.495	0.000***			0.374	0.000***
	취업상태더미(취업=1)	0.139	0.007**			0.334	0.099
	종사상지위더미(임금근로자=1)	0.629	0.000***			1.031	0.000***
교육 태도	상수항			-2.521	0.000***		
	주관적 만족감			0.191	0.000***	0.163	0.000***
	교육기회충족더미(충족=1)			0.071	0.293	0.246	0.001**
	전공과 직업일치도			0.301	0.000***	0.186	0.000***
	교육비부담인식도			-0.064	0.090	-0.084	0.038*
	학교교육효과			0.015	0.166	0.016	0.172
Log likelihood	26343.8231)		5751.420(a)		5416.934(a)		
sample	30,588		5,030		5,030		

주: 1) 교육 정도: 0:무학, 1:초등, 2:중등, 3:고등, 4:대학(4년제 미만), 5:대학(4년제 이상), 6:대학원 석사 이상, 7:대학원 박사과정  
 2) Estimation terminated at iteration number 5 because parameter estimates changed by less than .001.  
 3) p\* < 0.05, p\*\* < 0.01, p\*\*\* < 0.001

평생학습 참여와 아울러 참여한 기간도 평생학습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생학습 참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가에 대한 정도를 파악한다면 평생학습 기간은 얼마나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즉 평생학습에 대한 열의로서 평생학습 참여 기간을 볼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분석 모형의 설명력인  $R^2$ 이 작아서 평생학습 기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R^2=0.067$ )이나 교육적 태도의 영향력( $R^2=0.001$ )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속성보다 평생학습 기간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낮지만 회귀분석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볼 때, 평생학습 기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개인적 속성 중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참여 기간이 길며,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업상태를 보면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가 평생학습 참여 기간이 길게 나타남을 보인다.

&lt;표 5-17&gt; 평생학습 참여 기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eta$	t	$\beta$	t	$\beta$	t	
개인 변수	상수항	121.814	5.390***		271.268	3.499***	
	성별더미(남=1)	-0.103	-6.939***		-0.073	-2.599**	
	연령	-0.293	-2.376*		-0.710	-2.347*	
	연령제곱	0.251	2.085*		0.692	2.290*	
	교육 정도 <sup>1)</sup>	0.090	6.151***		0.006	0.184	
	혼인상태더미 (미혼=1)	0.080	4.807***				
	취업상태더미 (취업=1)	-0.155	-8.111***		-0.072	-2.468*	
중사상지위더미 (임금근로자=1)	0.000	0.023		-0.002	-0.075		
교육 에 대 한 태 도	상수항			45.094	2.926**		
	주관적만족감			0.017	0.608	0.019	0.679
	교육기회충족 더미(충족=1)			-0.016	-0.565	-0.012	-0.388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0.020	0.722	0.024	0.821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0.007	-0.246	0.002	0.075
	학교교육효과 <sup>2)</sup>			-0.018	-0.653	-0.021	-0.774
R <sup>2</sup>	0.067		0.001		0.019		
Adjusted R <sup>2</sup>	0.066		-0.003		0.011		
F	54.399***		0.304		2.455***		
자유도	5,320		1,388		1,388		

주: 1) 교육 정도: 0:무학, 1:초등 2:중등 3:고등 4:대학(4년제 미만), 5:대학(4년제 이상) 6:대학원 석사 이상, 7:대학원 박사과정

2) 학교교육효과: 학교교육효과는 4가지 효과 구분을 합한 값

3) p\*(0.05, p\*\*(0.01, p\*\*\*<0.001

4) 혼인상태더미는 상관관계가 없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이상에서 볼 때, 개인적 속성 중에서 평생학습 참여 여부와 평생학습 참여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성별 특성과 교육 정도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생학습 참여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으며,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에 더 적극적이고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태도는 평생학습 참여에는 영향을 주지만 평생학습 참여 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평생학습, 시민의식과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개인적 속성이 교육태도, 평생학습, 시민의식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5-18>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만족 및 교육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연령과 주관적 만족과의 상관계수가 -0.111로 부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만족이 낮다는 것이다. 혼인여부와 주관적 만족에 있어서도 상관계수가 -0.066으로 부정적 상관을 보인다. 이것은 미혼자일수록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낮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취업을 한 임금근로자( $Pearson\ r=0.020$ )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Pearson\ r=0.255$ )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령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지면 교육기회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Pearson\ r=0.208$ ),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가 크다고 보았다( $Pearson\ r=0.022$ ). 그러나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인식( $Pearson\ r=0.116$ )과 학교효과가 높다는 것( $Pearson\ r=0.069$ )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개인 속성과 평생학습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 참여와 취업여부의 상관관계는 0.105로 긍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다. 즉 취업자일수록 평생학습에 참여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종사상지위와 평생학습의 상관관계는 0.159로 임금근로자의 참여가 높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과 평생학습 참여의 상관을 보면, 상관계수가 0.238로 긍정적인 상

관을 갖고 있다. 이것은 다른 개인적 속성보다 높은 긍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참여기간은 미혼인 상태( $r=0.123$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r=0.072$ )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개인과 시민의식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속성과 사회안전 의식의 상관관계를 보면,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취업여부에 있어서 긍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그리고 취업자일수록 사회안전 의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적 속성과 준법정신을 보면, 연령( $r=0.085$ )과 교육정도( $r=0.034$ )만이 긍정적으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적 속성과 환경의식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환경의식은 연령과의 상관계수가 0.202로 긍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의식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시민 의식이 높게 나타나지만, 교육수준은 준법의식에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개인 속성과 교육태도, 평생학습, 시민의식과의 상관

개인속성 구분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정도	취업 상태	종사상 지위	주관적 만족감
성별더미(남=1)	1						
연령	.012*	1					
혼인상태더미 (미혼=1)	.099**	-.468**	1				
교육 정도 <sup>1)</sup>	.168**	-.477**	.219**	1			
취업상태더미 (취업=1)	.392**	-.055**	.033**	.119**	1		
종사상지위더미 (임금근로자=1)	.251**	-.222**	.135**	.222**	.629**	1	
주관적만족감	-0.01	-.111**	-.066**	.255**	.020**	.032**	1

<표 계속>

구분	개인속성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교육정 도	취업 상태	종사상 지위	주관적 만족감
교육기회충족더미 (충족=1)		.065**	-.208**	.102**	.476**	.042**	.098**	.188**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020*	-.022**	0.00	.315**	.064**	.135**	.204**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031**	.116**	-.027*	-.127**	-0.02	0.00	-.167**
학교교육효과 <sup>2)</sup>		-.040**	.069**	-.030**	-.021**	0.00	-.014*	.110**
평생학습참여여부더 미		.033**	-.078**	0.01	.238**	.105**	.159**	.132**
평균학습 참여기간 <sup>3)</sup>		-.161**	-.109**	.123**	.072**	-.177**	-.089**	0.01
직장연수		.125**	-.040**	0.02	.169**	.155**	.209**	.055**
학원수강		-.070**	-.172**	.205**	.055**	-.086**	-.042**	0.01
교양강좌		-.258**	.095**	-.053**	-.069**	-.295**	-.233**	0.00
직업교육		-0.01	-0.02	0.01	-.054**	-0.02	-.042**	-.044**
TV 및 라디오 인터넷강좌		0.00	-.091**	.070**	.102**	0.02	.055**	0.03
사회지표		.070**	.048**	.022**	0.00	.028**	.015**	.096**
준법지표		-0.01	.085**	-.047**	.034**	0.00	0.00	.176**
환경지표		-.183**	.202**	-.181**	-.025**	-.091**	-.092**	.152**

주: 1) 교육 정도: 0:무학, 1:초등 2:중등 3:고등 4:대학(4년제 미만), 5:대학(4년제 이상) 6:대학원 석사 이상, 7:대학원 박사과정

2) 학교교육효과: 학교교육효과는 4가지 효과 구분을 합한 값

3) 평생학습 참여기간은 평생학습유형(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교육, TV인터넷강좌, 기타)에 응답한 기간을 합한 값임.

4) p\* < 0.05, p\*\* < 0.01, p\*\*\* < 0.001

다음으로는 교육태도와 시민의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시민의식은 교육태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다(대부분의 상관관계가 +로 나타나 있음). 사회안전 의식과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

계는 -0.100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사회안전 의식은 교육에 대한 태도 중에서 학교교육 효과와 상관관계가 0.183으로 매우 높은 상관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교육비 부담이 높게 나타날수록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지만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가 높을수록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준법정신과 교육에 대한 태도는 교육비부담인식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른 변수와는 모두 긍정적 상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준법 정신은 교육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 의식과 교육에 대한 상관관계는 교육기회 충족 여부에 대한 것을 제외( $r = -0.027$ )하고는 교육태도와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9> 교육태도와 시민의식과의 상관관계

사회지표 \ 태도	주관적 만족감	교육기회 충족도 (충족=1)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학교교육 효과
주관적만족감	1				
교육기회충족도 (충족=1)	.188**	1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204**	.169**	1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167**	-.133**	-.091**	1	
학교교육효과 <sup>1)</sup>	.110**	.018**	.141**	-.080**	1
사회지표	.096**	.046**	.072**	-.100**	.183**
준법지표	.176**	.044**	.116**	-0.017	.210**
환경지표	.152**	-.027**	.088**	.030**	.126**

주: 1) 학교교육효과: 학교교육효과는 4가지 효과 구분을 합한 값

2) p\*(<0.05, p\*\*(<0.01, p\*\*\*(<0.001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평생학습 참여여부와 시민의식의 상관관계이다. 평생학습 참여여부와 사회안전 의식과의 상관관계는 -0.014로 부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준법정신과의 상관계수는 0.038, 환경 의식과는 0.094로 긍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학습 참여와 환경의식의 상관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 참여 기간과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상관( $r=-0.056$ )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의식과는 0.031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준법지표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갖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 유형과 시민의식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 유형 중에서 시민의식과 긍정적인 상관을 갖고 있는 유형은 직장연수와 교양강좌이다. 직장연수는 사회안전의식( $r=0.046$ )과 준법정신( $r=0.60$ )에 긍정적으로 상관을 갖고 있으며, 교양강좌는 환경의식( $r=0.102$ )과 긍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원수강이나 직업교육, TV 및 인터넷강좌는 시민의식과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을 갖고 있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평생학습 참여 유형에 있어서 특정 유형과 시민의식과의 상관은 있지만 모든 유형이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상관관계

평생학습 시민의식	평생학습참여부더미	평균학습참여기간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교육	TV 및 라디오 인터넷강좌
평생학습 참여부더미	1.00						
평균학습 참여기간1)	.(a)	1.00					
직장연수	.(a)	0.171**	1.00				
학원수강	0.00	0.541**	-.053**	1.00			
교양강좌	0.01	0.495**	-.089**	-.052**	1.00		
직업교육	0.00	0.227**	-.038**	-0.01	-.043**	1.00	
TV 및 라디오 인터넷강좌	0.00	0.509**	0.01	0.02	-.029*	-.033*	1.00
사회안전의식	-.014*	-.056**	.046**	-.030*	-.053**	-.02	-.031*
준법정신	.038**	-0.02	.060**	-0.02	-0.01	-.039**	-0.02
환경의식	.094**	0.031*	-0.02	-.037**	.102**	-0.02	0.00

주: 1) 평생학습 참여기간은 평생학습유형(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교육, TV인터넷강좌, 기타)에 응답한 기간을 합한 값임.

2) \* $p<0.05$ , \*\* $p<0.01$ , \*\*\* $p<0.001$

## 라. 평생학습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평생학습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는 평생학습 참여여부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며 두 번째는 평생학습 참여 기간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학습 참여 유형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평생학습 참여여부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설명력은 사회안전 의식이 7% 정도이며, 준법정신은 10%, 그리고 환경의식은 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적 속성과 교육에 관한 태도,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변수가 시민의식에 미친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부분만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회귀분석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p < 0.001$  수준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식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독립변수들이 시민의식에 미친 영향력은 낮지만 설명력이 좋은 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 <표 5-21>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 참여여부는 환경보호의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설명 변수이며 사회안전과 준법의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안전의식에 영향을 준 개인적 속성은 유일하게 성별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 변수 중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 $\beta=0.189$ )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평생교육 참여여부는 사회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설명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적 속성보다는 교육에 대한 태도이며 평생학습 참여여부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준법의식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속성으로는 연령이면서 모든 설명 변수에서 연령이 준법정신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변수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준법정신이 높아지지만 일정 연령이상이 지나면 준법정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평생학습 참여는 준법정신에 유의

미한 영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시민의식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개인적 속성은 성별이다. 성별더미의 설명력은 환경의식에 대해  $\beta = -8.249$ 로 매우 큰 설명력을 갖는다.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의 환경보호의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태도는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제외( $\beta = -3.975$ )하고 환경보호의식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의식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는  $\beta = 0.116$ 으로 개인적 속성이나 교육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어떤 변수보다 설명력이 높은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평생학습 참여여부는 시민의식 중 환경보호에 관한 의식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대한 적극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시민의식은 개인적 속성보다는 교육에 대한 태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표 5-21> 평생학습 참여 여부가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 회귀분석 결과

구분	사회안전 의식		준법 정신		환경 의식	
	$\beta$	t	$\beta$	t	$\beta$	t
상수항	12.911	4.995***	5.100	5.437***	18.705	8.552***
성별더미(남=1)	0.033	2.294*	0.002	0.152	-0.117	-8.249***
연령	0.195	1.339	0.648	4.523***	-0.042	-0.294
연령제곱	-0.141	-0.973	-0.591	-4.124***	0.196	1.363
혼인상태더미 (미혼=1)	-0.002	-0.139	0.014	1.025	0.003	0.258
교육 정도 <sup>1)</sup>	-0.029	-1.769	0.014	0.892	0.070	4.320***
취업상태더미 (취업=1)	0.012	0.777	-0.008	-0.510	-0.004	-0.296
종사상지위더미 (임금근로자=1)	-0.008	-0.522	0.019	1.265	0.009	0.571
주관적만족감	0.078	5.440***	0.155	10.905***	0.107	7.507***

<표 계속>

	사회안전 의식		준법 정신		환경 의식	
	교육기회충족더미 (충족=1)	0.051	3.264**	0.023	1.500	-0.061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0.034	2.302*	0.051	3.462**	0.034	2.333*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0.048	-3.404**	0.030	2.120*	0.051	3.614***
학교교육효과 <sup>2)</sup>	0.189	13.462***	0.195	14.113***	0.074	5.368***
평생학습참여더미 (참여=1)	0.001	0.041	0.002	0.118	0.116	8.090***
R <sup>2</sup>	0.065		0.092		0.085	
Adjusted R <sup>2</sup>	0.062		0.089		0.083	
F	26.787***		38.913***		35.844***	
자유도	5,029		5,029		5,029	

주: 1) 교육 정도:0:무학, 1:초등 2:중등 3:고등 4:대학(4년제 미만), 5:대학(4년제 이상) 6:대학원석사 이상, 7:대학원 박사과정

2) 학교교육효과: 학교교육효과를 4가지 효과 구분을 합한 값

3) p\*(0.05, p\*\*(0.01, p\*\*\*<0.001

다음으로는 평생학습 참여기간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안전의식에 대해 평생학습 참여기간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의식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변수는 학교교육의 효과로  $\beta=0.201$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정신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를 보면, 평생학습 참여기간은 유의미한 설명변수가 아님을 보여준다. 다만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나 학교교육효과가 높을수록 준법정신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환경의식에 있어서 평생학습 참여기간의 영향력은  $\beta=0.077$ 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평생학습 참여기간은 시민의식 중에서 환경보호의식에만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 변수로 평생학습 참여기간이 길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lt;표 5-22&gt; 평생학습 참여기간이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 회귀분석 결과

구분	사회안전의식		준법 정신		환경 의식	
	$\beta$	t	$\beta$	t	$\beta$	t
상수항	3.199	0.572	6.873	3.364**	22.477	5.189***
성별더미(남=1)	0.087	3.194**	0.018	0.650	-0.112	-4.202***
연령	0.659	2.242*	0.443	1.510	-0.246	-0.852
연령제곱	-0.601	-2.045*	-0.387	-1.321	0.467	1.618
교육 정도 <sup>1)</sup>	-0.012	-0.399	0.018	0.591	0.011	0.371
취업상태더미 (취업=1)	0.009	0.304	-0.017	-0.605	-0.001	-0.043
종사상지위더미 (임금근로자=1)	-0.026	-0.912	0.004	0.144	-0.014	-0.489
주관적만족감	0.044	1.605	0.153	5.597***	0.131	4.849***
교육기회충족더미 (충족=1)	0.077	2.580*	0.003	0.085	-0.070	-2.408*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0.018	0.627	0.019	0.673	0.057	2.054*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0.049	-1.821	-0.011	-0.412	0.038	1.438
학교교육효과 <sup>2)</sup>	0.201	7.517***	0.189	7.075***	0.087	3.303**
평생학습 참여기간 <sup>3)</sup>	-0.018	-0.681	0.013	0.498	0.077	2.991**
R <sup>2</sup>	0.078		0.083		0.109	
Adjusted R <sup>2</sup>	0.070		0.075		0.101	
F	9.696***		10.360***		14.032***	
자유도	1,388		1,388		1,388	

주: 1) 교육 정도: 0:무학, 1:초등 2:중등 3:고등 4:대학(4년제 미만), 5:대학(4년제 이상) 6:대학원 석사 이상, 7:대학원 박사과정

2) 학교교육효과: 학교교육효과는 4가지 효과 구분을 합한 값

3) 평생학습 참여기간은 평생학습유형(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교육, TV인터넷강좌, 기타)에 응답한 기간을 합한 값임.

4) p\*(0.05, p\*\*(0.01, p\*\*\*)(0.001

5) 혼인상태 더미는 상관관계가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참여유형이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평생학습 유형 중에서 직장연수 부문은 준법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0.078$ ), 학원수강( $\beta=0.068$ )과 TV 및 라디오 인터넷 강좌는 환경 의식( $\beta=0.052$ )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력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학습유형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할 경우, 학교교육의 효과는 사회안전의식과 준법정신, 환경의식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평생학습 유형이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 회귀분석 결과

구분	사회안전의식		준법 정신		환경 의식	
	$\beta$	t	$\beta$	t	$\beta$	t
상수항	3.879	.692	7.184	3.521***	22.229	5.122***
성별더미(남1)	.084	3.075**	0.020	0.725	-0.114	-4.241***
연령	.624	2.120	0.410	1.398	-0.223	-0.770
연령제곱	-.569	-1.934	-0.362	-1.237	0.443	1.530
교육 정도 <sup>1)</sup>	-.007	-.234	0.017	0.537	0.014	0.458
취업상태더미 (취업=1)	.008	.281	-0.018	-0.623	-0.007	-0.246
종사상지위더미 (임금근로자=1)	-.029	-1.004	-0.003	-0.121	-0.012	-0.429
주관적만족감	.042	1.544	0.148	5.420***	0.131	4.836***
교육기회충족 더미(충족=1)	.077	2.578**	0.000	-0.005	-0.071	-2.429*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012	.419	0.015	0.542	0.054	1.966*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046	-1.702	-0.010	-0.386	0.038	1.454
학교교육효과 <sup>2)</sup>	.204	7.618***	0.189	7.110***	0.089	3.401**
직장연수	.004	.133	0.078	2.951**	0.025	0.945
학원수강	.031	1.197	-0.009	-0.331	0.068	2.667**
교양강좌	-.030	-1.111	0.016	0.612	0.009	0.353
직업교육	-.035	-1.355	0.008	0.300	0.009	0.338
TV 및 라디오 인터넷강좌	-.030	-1.154	-0.001	-0.049	0.052	2.045*
R <sup>2</sup>	0.081		0.089		0.110	
Adjusted R <sup>2</sup>	0.070		0.079		0.100	
F	7.570***		8.414***		10.683***	
자유도	1,392		1,392		1,392	

주: 1) 교육 정도: 0:무학, 1:초등 2:중등 3:고등 4:대학(4년제 미만), 5:대학(4년제 이상) 6:대학원 석사 이상, 7:대학원 박사과정

2) 학교교육효과: 학교교육효과는 4가지 효과 구분을 합한 값

3) p\* < 0.05, p\*\* < 0.01, p\*\*\* < 0.001

4) 혼인상태 더미는 상관관계가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 제5절 소결

지금까지 평생학습이 개인의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과 시민의식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결론을 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이론적인 관계 설명이며 다른 하나는 실증적 분석 결과이다.

먼저, 평생학습과 시민의식과의 이론적 접근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동을 촉진하는 시민적 참여, 공유된 규범, 가치 및 상호신뢰, 그리고 이를 수반하는 네트워크이며, 시민참여와 함께 공유된 규범과 신뢰로 정의한다. 특히 결속적 사회적 자본은 '정체성, 네트워크 그리고 가치가 사회운동이나 시민참여의 민주적 형태와 결합한 새로운 집합'과 대조된다. McClenaghan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통합과 유사하게 보았다. 둘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사회 발전의 분석은 사회적 자본이 주는 집단적 혜택의 해석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성인은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습득하게 된 비공식 학습을 통해 새로운 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구조와 관련된 비공식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형식교육을 통한 학습은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well-being)에 대한 성인 학습의 영향과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사회에 대한 학습의 영향이 사회적 자본에 의해 초래된다는 것에 기인한다.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질 만큼이나 양이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성인 학습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주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공유된 가치, 사람들과 조직의 학습의 발달이 그들과 사회 전반 모두

에 이익이라는 것에 기초한다. 넷째, Field(2003)의 연구는 시민참여와 평생학습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면서 시민 참여와 성인 교육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alk와 그의 동료들은 성인과 지역사회 교육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나아가 사회경제적 삶의 질에 기여하고 있다고 제안하면서 평생학습은 사회통합과 시민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실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적극적 시민의식은 폭넓은 범위에 걸쳐 학습에 참여를 유인한다. 예를 들면, 시민사회의 서로 다른 연속선상에서 성인학습은 나타난다. 즉 지역사회에서 학습 연구모임, 자발적 조직, 사회 운동 커뮤니티 집단의 다양한 유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시민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더 잘 이해할 것이며, 더욱더 공공재를 위해 개인을 희생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다(Putnam, 1996). 사회결속과 통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학문적, 그리고 대중적 논쟁의 주요 논제였다. 이러한 관심들은 증가하는 교육적 발안 및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특히 적극적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사회질서를 만들어 내는 시민의식이 사회통합과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의하였다. 시민의식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위해 사회학적 상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시민의식과 평생학습 두 가지 요소 간의 관계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은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 가능성처럼, 조직화된 학습(형식 또는 무형식) 모두에 사용된다.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은 공공의 선(virtue)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의식은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통해서 달성된 사회적 결속의 한 유형이다. 이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생각을 하도록 하며, 개인, 집단, 지역사회, 국가의 공동책임만큼이나 공통적 이해, 공적 삶의 질을 강조한다. 더불어 시민의식과 관련되어 평생학습에서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예컨대, 모든 사회활동에서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학습을 포함하며,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행동을 학습에 연계시킴으로써 상호작용을 상승시키고, 학습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일로 인식시킨다는 점이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이다. 이 분석은 통계청의 사회조사(2008)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단적 분석 결과이다. 먼저, 종단적 분석을 살펴보면 기존의 성인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들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실태 분석과 위의 분석은 매우 일치하고 있다. 즉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성에 따른 불평등, 연령 불평등, 교육 불평등,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 즉 사회적 측면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본 분석에서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실은 시민의식으로서 사회안전과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은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성인의 평생학습 중 교양강좌나 TV 및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강좌에 참여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학습에 있어서 비경제적 측면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보호와 배분방식에 대한 체계적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은 단지 지난 12년 간의 변화를 4회에 걸쳐 조사한 것에 기초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음은 횡단적 분석으로 평생학습이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이것은 2008년도 사회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먼저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는 1을 만점으로 볼 때, 0.18 수준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기간은 평균 57.8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 중에서 교양강좌와 학원 수강, 인터넷 강좌에 참여하는 기간이 직장연수나 직업교육 기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시민의식에 있어서 사회안전에 관한 의식은 61.5%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준법정신에 있어서 79.5%가 준법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의식의 수준은 87.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환경의식 수준이 가장 높고 준법정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안전의식은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첫째,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은 성,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정도, 취업상태, 종사상지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인 경우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평생학습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태도가 평생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높을 때 그리고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높을 때 평생학습에 참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평생학습에 참여한 기간에서 개인적 특성이나 교육적 태도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속성보다 평생학습기간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개인적 속성이 교육태도, 평생학습, 시민의식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살펴보았다. 개인 속성과 교육태도, 평생학습, 그리고 시민의식에 대한 상관관계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는 취업자인 경우, 임금근로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생학습 참여기간은 미혼인 상태, 교육수준 높은 것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는 평생학습 참여여부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며 두 번째는 평생학습 참여 기간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학습 참여 유형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평생학습 참여여부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평생학습 참여여부가 사회안전의식과 준법의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환경의식에는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두 번째로 평생학

습 참여기간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평생학습 참여기간도 평생학습 참여 여부와 같이 환경의식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 참여유형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평생학습 유형 중에서 직장연수 부문은 준법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수강과 TV 및 라디오 인터넷 강좌는 환경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관계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5-24>와 같다. 평생학습은 사회안전의식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준법정신에 대해 평생학습 참여여부나 기간은 유의미한 설명 변수는 아니지만, 직장연수를 받은 경우는 준법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환경보호의식은 평생학습 참여 여부와 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기간이 길수록 환경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보인다. 아울러 학원수강과 인터넷강좌는 환경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4> 평생학습의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력 유무

평생학습		시민의식		
		사회안전의식	준법 정신	환경보호의식
평생학습 참여 여부		0	0	+
평생학습 참여 기간		0	0	+
평생학습 유형	직장연수	0	+	0
	학원수강	0	0	+
	교양강좌	0	0	0
	직업교육	0	0	0
	TV 및 라디오 인터넷강좌	0	0	+

이상에서 볼 때 평생학습이 시민의식에 주는 영향력은 중·횡단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개인적 속성과 교육에 대한 태도와 다르게 시민의식에 있어서 평생학습의 영향력은 환경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김미숙

####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평생학습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전반의 통합과 안정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사회 통합과 안정 차원에서 평생학습이 개인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평생학습의 개념은 대상과 목적, 연구자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유럽연합에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하나는 학습이 인간 생애의 학령기 이전부터 정년퇴직 이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 생애적 관점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에 있어서 공식적, 비공식적, 그리고 무형식적학습이라는 모든 학습의 범주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평생학습

을 폭넓게 인식함으로써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첫째는 평생학습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의 고용가능성 및 직업경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평생학습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집단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평생학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국 및 국내의 평생학습 관련연구와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 평생학습에 관한 해외 선진국의 조사 자료로는 교육과 평생학습 활동 참여에 관한 것을 조사한 EU 통계의 일부분인 EUROSTAT의 AES(Adults Education Survey)와 1996년부터 현재까지 EURO지역(33개국 대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조사한 LFS(Labour Force Survey)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 전체 표본 조사구에서 추출된 252개 조사구별로 할당된 가구(2249가구)를 개별방문, 면접조사한 2007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국내의 사회통계조사 데이터, 세계가치조사 데이터, IMD의 세계경쟁력조사 데이터, Penn World Tables (PWT) Ver.6.2, Barro-Lee Schooling 데이터 세트 등을 사용하였다. 통합 데이터는 위에서 살펴본 자료들을 사용하였으며, 총 210개 국가의 1950~2008년도 시계열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비단 학령기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계조사」에서 나타나는 평생학습 참여 희망률은 58.7%에 이른다. 2005년도의

인구통계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성인인구가 약 3천백만 명이므로, 성인인구의 약 5% 이상이 학력인정과 관련된 정규기관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학력인정과 관련된 교육기관을 통한 연간 일수 등 참여의 질은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의 투자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성인인구의 높은 학력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앞선 규모이다.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는 111개국 중 8위이며 대학학력 비중은 6위, 중등학력 비중은 9위 등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과 더불어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는 경제개발초기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성인의 평생학습참여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수준 증가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는 거시적 측면에서 평생학습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단체 참여에 대한 회귀분석을 OLS, 국가별 표본 수를 고려하고 가중치를 더한 OLS, 그리고 가중치와 양측 한계를 가진 tob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삶의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인의 사회활동단체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개인이 기여하는 수준이 높았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평생정규교육' (전문대학 이하 교육을 25세 이후 마친 사람)의 계수를 살펴보면, 양으로 유의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다는 것이다.

평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활동이 적었으나 교육편차가 클수록 사회활동의 참여가 높았다. 평균교육년수의 효과는 개인적 차원의 변수를 통제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평균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평생정규교육'의 계수는 양으로 유의할 뿐 아니라 계수의 크기가 모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평생교육 차원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역의 상관관계의 가능성, 즉 사회활동이 왕성한 사람이 평생교

육에 대한 참여가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교육이 정규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사회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가소속감과 전쟁참여 의지를 나타내는 보수적 사회통합적 가치와 신뢰에 관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교육수준이 아주 높을 경우 소속감이 다소 낮았다. 교육의 편차가 클수록 오히려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 소속감이 높게 나타나며 평생 정규교육의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가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소 낮으며 평균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낮았다. 또한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신뢰에 관한 것이다. 이는 나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제도적 신뢰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평생정규교육의 효과는 일반적 신뢰와 상대적 신뢰에 크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도적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체로 교육이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단선적이지 않고 무척 복잡한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관계에 대하여 종단, 횡단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단 분석은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로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종단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성인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실태 분석과 위의 분석은 매우 일치하고 있다. 즉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성에 따른 불평등, 연령 불평등, 교육 불평등,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평생학습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는 평생학습 참여여부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며 두 번째는 평생학습 참여 기간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학습 참여 유형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평생학습 참여여부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평생학습 참여 여부

가 사회안전의식과 준법의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환경의식에는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 참여기간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평생학습 참여기간도 평생학습 참여 여부와 같이 환경의식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 참여유형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평생학습 유형 중에서 직장연수 부문은 준법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수강과 TV 및 라디오 인터넷 강좌는 환경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평생학습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생학습 참여의 불평등은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및 종사상 지위에 따라 지난 10여년 간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정책을 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처럼 평생학습 참여 불평등은 계속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평생교육 정책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그들이 실제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평생학습 정책에 대한 지원 방식이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사회경제적 성과를 경제발전과 평생학습 참여와의 관계 등을 횡·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평생학습이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이유는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는 경제개발초기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양상

을 보이는 반면, 성인의 평생학습참여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수준 증가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성인인구의 학력수준 및 평생교육 참여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성장과 함께 학력을 통한 형식교육 참여가 늘어남으로써 인적자본 저량의 축적이 빠르게 진행됨을 나타낸다.

세 번째는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인의 평생정규 교육의 참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평생교육이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안전과 발전을 위해 평생학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개인의 사회활동단체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개인이 기여하는 수준이 높으며, 이는 평생교육 차원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은 상대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평생 정규교육의 효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 신뢰에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평생교육의 효과는 일반적 신뢰와 상대적 신뢰에 크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도적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평생교육이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매우 긍정적 측면이며 이러한 사회적 성과는 평생학습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평생학습이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 특히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는 평생학습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이 성숙한 발전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평생학습이 개인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환경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 여부와 참여기간, 그리고 참여 유형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행동에 설명력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평생학습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에,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주며, 이런 영향력은 평생학습이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SUMMARY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effect of  
Lifelong learning**

Mee-souk Kim, Sng-bo Kim, Su-myeong Jang

In this paper, we will particularly analyze the social and economic outcomes of lifelong learning in the national-social aspect. In particular, this paper aims at understanding that lifelong learning influences n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socio-economic aspect.

For this, in the national aspect, we will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outcomes and the entire social cohesion and stability and then grasp economic and social outcomes of lifelong learning in Korea.

This research will provide the analysis how lifelong learning affects, as a democratic citizen, individuals' citizenship through the accumulation of individual's social capital, in the aspects of social cohesion and stability.

The result is following below:

Korea is comprising of the top group among the traditional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the Kingdom of Norway, Canada, raking the 8th among the 111 countries in the average educational training, 6th at the rate of the university, and the 9th at the rate of the secondary education

of adult population in Korea. While the average educational training in Korea has a slowed compared with the early period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t i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in the adult's lifelong educational training has increased faster than the income level over time. The result from the regression shows that as GDP per capita increase,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of adult population increase.

We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 between lifelong learning and social cohesion. This paper reports the OLS of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groups, the weighed OLS considering each country sample, and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from Tobit Model including the weight and two-side limitation(limit). The fact lifelong learning would be the measure to bring social cohesion shows the importance of the lifelong learning to social safety and development for a long time. As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group is high, individuals tend to contribute to social cohesion, and this means that the education as a lifelong learning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activities. Also, a sense of the belongingness to nations is significant with the relatively high educational level and effective in social trust, by contrary no effect on a formal lifelong educ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long learning and citizenship by conducting a cross-sectional and a longitudinal analysis. A longitudinal analysis uses Social Survey Data from 1996 to 2008, and the result shows that it has consistently exist an inequity in sex, age, education, and economic activity involving the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the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and citizenship, social stability and the awareness on the

environment tend to increase when the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increase. In the cross-sectional analysis, we tested the three effects of the lifelong learning influencing citizenship using the 25-64 aged adult sample from the first social survey data in 2008. As a result, we found that whether to participate in lifelong learning is not related to the awareness of social safety and legality, by contrary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nvironmental awareness to the significance level. The period of the lifelong participation only influences the environmental awareness such like whether to participate in lifelong learning does as well. Among the types of lifelong learning, it is shows that the part of the job training effect legality, and enrollmen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the courses through TV, radio, and internet have a positively influence on the environmental awareness.



## 〈부 록〉

〈부록〉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관련 자료



## 〈부록〉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관련 자료

### 1. 세계가치조사 데이터

World Value Survey는 세계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 조사를 위해 비영리 기구를 설치하였다. 이 기구는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의 네트워크로서 조직되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위치한다. 이 조사는 6개 대륙 8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표성을 지닌 표집을 통해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는 1981년부터 1984년에 실시되었으며, 현재까지 5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표집 규모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각 국별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국가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5차 웨이브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90년, 1996년, 2001년, 2005년에 걸쳐 이화여대의 어수영 교수와 서울대 한상진 교수팀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어 왔다. 이 조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 인식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가치조사 자료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인식 수준의 변화는 국가적 비교를 하는데 있어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

<표 1> 세계가치조사 변수 구성

	WVS 1981~2000		WVS 2005
a003	Leisure time important in life	V2	Country/region
a008	Feeling of happiness	V6	Leisure time
a009	State of health (subjective)	V10	Feeling of happiness
a066	Belong to education, arts, music or cultural activities	V11	State of health (subjective)
a083	Unpaid work education, arts, music or cultural activities	V22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a100	Active/Inactive membership of art, music, educational	V26	Membership of art, music, educational

	WVS 1981~2000		WVS 2005
a170	Satisfaction with your life	V46	How much freedom you feel
b001	Would give part of my income for the environment	V61	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s
b002	Increase in taxes if used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V62	University is more important for a boy
d059	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s than women do	V95	Interested in politics
d060	University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for a girl	V105	Would give part of my income for environment
e032	Freedom or equality	V116	Incomes more equal
e035	Income equality	V235	Sex
x001	Sex	V236	Year of birth
x002	Year of birth	V237	Age
x003	Age	V238	Highest educational level attained
x005	Legally married to partner	V238CS	Education (country specific)
x023	What age did you complete your education	V239	What age did you complete your education
x024	Had formal education	V240	Do you live with your parents
x025	Highest educational level attained	V241	Employment status
x025cs	Education (country specific)	V242	Profession/job
x025r	Education level (recoded)	V252	Social class (subjective)
x028	Employment status	V252B	Social class (subjective) with 6 categories
x034	Number of employees	V253	Scale of incomes
x034r	Number of employees (recoded)	V253CS	Income (country specific)
x035_2	Job profession/industry (2 digit isco88)		
x036	Profession/job		
x045	Social class (subjective)		
x046	Socio-economic status of respondent		
x047	Scale of incomes		
x047cs	Income (country specific)		
x047r	Income level		

## 2. IMD의 세계경쟁력조사 데이터

World Competitiveness Survey는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의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IMD에서는 경쟁력을 '한 나라의 경제 환경 및 여건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는 모든 나라가 경쟁력 창출 자원(Assets)과 창출 과정(Processes)을 관리경영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경제적·사회적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할 때 경쟁력이 가장 잘 자라난다는 고전적 시장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IMD에서 매년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는 국제통계와 설문조사 결과(survey)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먼저 국제 통계(하드데이터)로는 29개 OECD 국가와 18개 신흥공업국 및 시장경제 참여국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지역 또는 민간기구, 그리고 각국 정부로부터 수집한 140개 기준의 데이터(hard data)로써 전체 데이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soft data)는 매년 2월 말에 실시하는 106개 문항에 이르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는데 Lickert scale 점수를 1~10점으로 매기며 전체 데이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의 대상은 세계의 33개 IMD 협력기관의 협조로 총 4,160명에 이르는 최고경영자들이다. 이렇게 구해진 자료 중 경쟁력 지수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 수는 246개이다. 즉, 실제 경쟁 투입 요소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준은 288개 기준인데, 이중 42개 hard data는 배경 정보로만 이용되고 전체 경쟁력 지수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IMD 협력 기관 및 담당자는 전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대표인 정진호 박사가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재직시 맡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통계 데이터와 의뢰받은 설문 조사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IMD 방식은 각 국가의 상대적 경쟁력 격차를 8개 부문별 지표(거시경제지표, 국제화, 정부, 금융, 하부구조(SOC), 경영(기업), 과학기술, 인력)로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경쟁력 지수를 산출한다. 먼저 8개 부문별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각 지표를 표준화한 후 상대적 순위를 표준편차로

가중 평균하여 점수를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또한 지표를 구하기 위해 우선 각각의 기준에 따라 최상위 국가와 최하위 국가를 결정하고 나머지 대상 국가들의 상대순위를 결정해 나간다. 이 때 통계자료는 가중치를 1, 조사 자료는 0.66을 부과하는데 이는 IMD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IMD의 지표산출의 장점으로는 국제 통계와 설문조사 자료 등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체 국가의 특성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각 국가의 양적인 자료 뿐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조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를 인식하는 경쟁력을 보다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표 2> 세계경쟁력지수 변수 구성

country
country_e
year
SOCIAL COHESION
Income distribution-lowest20% (%)
Income distribution-highest20%(%)
EQUAL OPPORTUNITY
FEMALES IN PARLIAMENT
FEMALE POSITIONS(%) Percentage of total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GENDER INCOME RATIO
FEMALE LABOR FORCE
SKILLED LABOR
TOTAL HEALTH EXPENDITURE
LIFE EXPECTANCY AT BIRTH
HEALTHY LIFE EXPECTANCY
HUMAN DEVELOPMENT INDEX
Quality of life
ILLITERACY

### 3. Penn World Tables(PWT) Ver.6.2

PWT는 158개 국가의 국민계정 지표의 시계열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지출부문에 명명되어 있는 통화가치는 현재 통화가치가 반영되어 있어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인구학 데이터 및 주식 자본 예측뿐만 아니라 국가 사이의 상대적인 가격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PWT의 주요 구성요소는 1980년을 기준으로 시작한 ICP(International Comparison of Price Program)의 지역화 이후로 펜실베니아 대학의 Summers와 Heston이 사용해 온 ICP 기준점 비교이다. 해당 데이터셋의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PWT 변수 구성

Name	description	unit
POP	Population	thousands in General Variables
XRATE	Exchange Rate	US=1 in General Variables
PPP	Purchasing Power Parity over GDP	US=1 in General Variables
CGDP	Real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I\$ in Current Prices
-CC	Consumption Share of CGDP	% in Current Prices
-CG	Government Share of CGDP	% in Current Prices
-CI	Investment Share of CGDP	% in Current Prices
P	Price Level of Gross Domestic Product	US=100 in Current Prices
PC	Price Level of Consumption	PPP over consumption / XRAT in Current Prices
PG	Price Level of Government	PPP over government consumption / XRAT in Current Prices
PI	Price Level of Investment	PPP over investment / XRAT in Current Prices
OPENC	Openness in Current Prices	% in Current Prices

Name	description	unit
CGNP	Ratio of GNP to GDP	% in Current Prices
y	CGDP Relative to the United States	US=100 in Current Prices
rgdpl	Real GDP per capita (Constant Prices: Laspeyres)	I\$ in 2000 Constant Prices
rgdpch	Real GDP per capita (Constant Prices: Chain series)	I\$ in 2000 Constant Prices
rgdpeqa	Real GDP Chain per equivalent adult	I\$ per eq. adult in 2000 Constant Price
rgdpwok	Real GDP Chain per worker	I\$ per worker in 2000 Constant Prices
rgdptt	Real Gross Domestic Income (RGDPL adjusted for Terms of Trade changes)	I\$ terms of trade in 2000 Constant Prices
openk	Openness in Constant Prices	% in 2000 Constant Prices
kc	Consumption Share of RGDPL	% in 2000 Constant Prices
kg	Government Share of RGDPL	% in 2000 Constant Prices
ki	Investment Share of RGDPL	% in 2000 Constant Prices
grgdpch	Growth rate of Real GDP per capita (Constant Prices: Chain series)	% in 2000 Constant Prices

#### 4. Barro-Lee Schooling Data set

Barro-Lee Schooling Data Set은 138개국의 25세 이상의 성인남녀의 인구를 대상으로 교육 상태에 따라 1950~2000년까지 5년 주기로 조사한 Data set이다. 통합된 데이터 셋에는 해당국가의 전체인구 중 25세 이상의 전체 성인별 교육 상태와 25세 이상의 여성별 데이터 셋을 입력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t;표 4&gt; Barro-Lee Schooling Data Set 변수

Population over age 25(1000s)	
No schooling	Percentage of "no schooling" in the total population
First level(total)	Percentage of "primary school attained" in the total pop.
First level(complete)	Percentage of "primary school complete" in the total pop.
Second Level(total)	Percentage of "secondary school attained" in the total pop
Second Level(complete)	Percentage of "secondary school attained" in female pop.
Post-Secondary(total)	Percentage of "higher school attained" in the total pop
Post-Secondary(complete)	Percentage of "higher school complete" in the total pop.
Average Years of School	Average schooling years in the total population
Population over age 25(1000s)(F)	
No schooling(F)	Percentage of "no schooling" in the female population
First level(total)(F)	Percentage of "primary school attained" in the female pop
First level(complete)(F)	Percentage of "primary school complete" in the female pop
Second Level(total)(F)	Percentage of "secondary school attained" in female pop
Second Level(complete)(F)	Percentage of "secondary school complete" in female pop.
Post-Secondary(total)(F)	Percentage of "higher school attained" in female pop
Post-Secondary(complete)(F)	Percentage of "higher school complete" in female pop
Average Years of School(F)	Average schooling years in the female population

&lt;표 5&gt; Barro-Lee's의 패널 데이터 변수

(1)	National Accounts of Income
GDP4xx	Real GDP per capita (1980 international prices) from SH v.4.0. (xx = 1950, 55, 60, 65, 70, 75, 80 and 85)
(GDP4xxL	Log value of GDP4xx.)
GRSH4x	Growth rate of GDP4xx.
INVSH4x	Ratio of real domestic investment (private plus public) to real GDP. Source : SH v.4.0.
GDP5xx	Real GDP per capita (1985 international prices) from SH v.5.5. (xx = 1950, 55, 60, 65, 70, 75, 80, 85, 89 and 90)
(GDP5xxL	Log value of GDP5xx.)
GRSH5x	Growth rate of GDP5xx. (x = 1, 2, 3, 4, 5, 6 (1985-90) and 6a (1985-89))
INVSH5x	Ratio of real domestic investment (private plus public) to real GDP. Source : SH v.5.5. (x = 1, 2, 3, 4, 5, and 6)
GDPWBxx 1	Real GDP per capita ( 1980 constant prices; local currency) from WB. (xx = 1960, 65, 70, 75, 80, 85, and 90)
GRWBx	Growth rate of GDPWBxx. (x = 1, 2, 3, 4, 5, and 6)
INVWBx	Ratio of nominal domestic investment (private plus public) to nominal GDP (using current local currency). Source : WB
	(2) Education
HUMANxx	Average schooling years in the total population over age 25 (xx=1960, 65, 70, 75, 80 and 85) Source : BARRO and LEE
HUMANMxx	Average schooling years in the male population over age 25 Source : BARRO and LEE
HUMANFxx	Average schooling years in the female population over age 25. Source : BARRO and LEE
PYRxx	Average years of primary schooling in the total population over age 25. Source : BARRO and LEE
PYRMxx	Average years of primary schooling in the male population over age 25. Source : BARRO and LEE
PYRFxx	Average years of primary schooling in the female population over age 25. Source : BARRO and LEE
SYRxx	Average years of secondary schooling in the total population over age 25. Source : BARRO and LEE

(1)	National Accounts of Income
SYRMxx	Average years of secondary schooling in the male population over age 25. Source : BARRO and LEE
SYRFxx	Average years of secondary schooling in the female population over age 25. Source : BARRO and LEE
HYRxx	Average years of higher schooling in the total population over age 25. Source : BARRO and LEE
HYRMxx	Average years of higher schooling in the male population over age 25. Source : BARRO and LEE
HYRFxx	Average years of higher schooling in the female population over age 25. Source : BARRO and LEE
NOxx	Percentage of "no schooling" in the total population Source: BARRO and LEE
NOMxx	Percentage of "no schooling" in the male population Source: BARRO and LEE
NOFxx	Percentage of "no schooling" in the female population Source: BARRO and LEE
PRLxx	Percentage of "primary school attained" in the total pop. Source : BARRO and LEE
PRIMxx	Percentage of "primary school attained" in the male pop. Source : BARRO and LEE
PRIFxx	Percentage of "primary school attained" in the female pop. Source : BARRO and LEE
PRCxx	Percentage of "primary school complete" in the total pop. Source : BARRO and LEE
PRICMxx	Percentage of "primary school complete" in the male pop. Source : BARRO and LEE
PRICFxx	Percentage of "primary school complete" in the female pop. Source : BARRO and LEE
SECxx	Percentage of "secondary school attained" in the total pop. Source : BARRO and LEE
SECMxx	Percentage of "secondary school attained" in the male pop. Source : BARRO and LEE
SECFxx	Percentage of "secondary school attained" in female pop. Source : BARRO and LEE
SECCxx	Percentage of "secondary school complete" in the total pop. Source : BARRO and LEE

(1)	National Accounts of Income
SECCMxx	Percentage of "secondary school complete" in the male pop. Source : BARRO and LEE
SECCFxx	Percentage of "secondary school complete" in female pop. Source : BARRO and LEE
HIGHxx	Percentage of "higher school attained" in the total pop. Source : BARRO and LEE
HIGHMxx	Percentage of "higher school attained" in the male pop. Source : BARRO and LEE
HIGHFxx	Percentage of "higher school attained" in female pop. Source : BARRO and LEE
HIGHCxx	Percentage of "higher school complete" in the total pop. Source : BARRO and LEE
HIGHCMxx	Percentage of "higher school complete" in the male pop. Source : BARRO and LEE
HIGHCFxx	Percentage of "higher school complete" in female pop. Source : BARRO and LEE
DURP	Duration in years of the primary education in 1965 Source : BARRO and LEE
DURS	Duration in years of the secondary education in 1965 Source : BARRO and LEE
DURS1	Duration in years of the first cycle of the secondary education (or a half of DURS if data is unavailable) Source : BARRO and LEE
Pxx	Total gross enrollment ratio for primary education. Source : UNESCO
PMxx	Male gross enrollment ratio for primary education. Source : UNESCO
PFxx	Female gross enrollment ratio for primary education. Source : UNESCO
Sxx	Total gross enrollment ratio for secondary education. Source : UNESCO
SMxx	Male gross enrollment ratio for secondary education. Source : UNESCO
SFxx	Female gross enrollment ratio for secondary education. Source : UNESCO

(1)	National Accounts of Income
Hxx	Total gross enrollment ratio for higher education. Source : UNESCO
HMxx	Male gross enrollment ratio for higher education. Source : UNESCO
HFxx	Female gross enrollment ratio for higher education. Source : UNESCO
TEAPRIxx	Pupil/Teacher Ratio in primary school (xx = 1950, 55, 60, 65, 70, 75, and 80) Source: UNESCO
TEASECxx	Pupil/Teacher Ratio in secondary school (xx = 1950, 55, 60, 65, 70, 75, and 80) Source: UNESCO
(3)	Population / Fertility
POPxx	Total Population. Source : SH v.5.0 (xx = 1960, 65, 70, 75, 80 and 85)
WORKERxx	Ratio of total Workers to population. Source : SH v.5.0 (xx = 1960, 65, 70, 75, 80 and 85)
POP15xx	Population Proportion under 15. Source : UN (xx = 1960, 65, 70, 75, 80 and 85)
POP65xx	Population Proportion over 65. Source : UN (xx = 1960, 65, 70, 75, 80 and 85)
FERTxx, FERTx	Total fertility rate (children per woman) Source : WB
MORTxx, MORTx	Infant Mortality Rate (ages 0-1) Source : WB
LIFEE0xx, LIFE	Life expectancy at age 0 Source : WDR, WB and other national sources
GPOPx	Growth rate of population Source : SH v.5.0
(4)	Government Expenditures
GOVSH4x	Ratio of real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to real GDP. (Period average) from SH v.4.0.
GOVSH5x	Ratio of real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to real GDP. (Period average) from SH v.5.5. (x = 1, 2, 3, 4, 5, and 6)
GOVWBx	Ratio of nominal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to nominal GDP (using current local currency). Source : WB

(1)	National Accounts of Income
GEXPx	Ratio of nominal government current expenditure (including interest payments and transfers) to nominal GDP. (x= 3, 4, and 5). Source : WB
GDEx 4	Ratio of nominal government expenditure on defense to nominal GDP. Source : GFS, SIPRI
GEERECx 5	Ratio of recurring nominal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to nominal GDP. Source : UNESCO
GEETOTx 6	Ratio of total nominal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to nominal GDP. Source : UNESCO
INVPUBx 7	Ratio of nominal public domestic investment (fixed capital formation) to nominal GDP. Source : WDR, OECD
GGCFDx	Ratio of real public domestic investment (using HS deflator for investment) to real GDP (deflated). Source : SH v.5.0, IFS, GFS
GVXDxE4x 8	Ratio of real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net of spending on defense and on education to real GDP, sourced from SH v.4.0. (GVXDxE4=GOVSH4-GDE-GEEREC)
GVXDxE5x 8	Ratio of real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net of spending on defense and on education to real GDP, sourced from SH v.5.5. (GVXDxE5=GOVSH5-GDE-GEEREC)
(5)	PPPDeflators
PYSH5xx	Price level of GDP (PPP GDP/ Xrate relative to U.S.) (U.S=1.0). Source : SH v.5.5
PCSH5%xx	Price level of consumption (PPP C/ Xrate relative to U.S.) (U.S=1.0). Source : SH v.5.5
PISH5xx	Price level of investment (PPP I/ Xrate relative to U.S.) (U.S=1.0). Source : SH v.5.5
PGSH5xx	Price level of govern't consumption (PPP G/ Xrate relative to U.S.). (U.S=1.0). Source : SH v.5.5
(6)	Political variable
ASSASSPx	Number of assassinations per million population per year Source : BANKS
COUPx	Number of coups per year Source : BANKS

(1)	National Accounts of Income
REVOL <sub>x</sub>	Number of revolutions per year Source : BANKS
REVOL	Number of revolutions per year, averaged over the period, 1960-84.
REVCUP	Number of revolutions and coups per year, averaged over the period, 1960-84.
PINSTAB <sub>x</sub>	Measure of political instability. (0.5*ASSASSP <sub>x</sub> + 0.5*REVOL <sub>x</sub> )
POLRIGHT <sub>x</sub>	Index of political rights (from 1 to 7; 1=most freedom), Source : GASTIL (x = 3, 4, 5, 6, B; 3=1972-74; B=1972-89.)
CIVLIB <sub>x</sub>	Index of civil liberties, (from 1 to 7; 1=most freedom), 1972-85. Source : GASTIL (x = 3, 4, 5, 6, B; 3=1972-74; B=1972-89.)
WARDUM	Dummy for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at least one external war over the period, 1960-85. Source : BANKS
WARTIME	The fraction of time over 1960-85 involved in external war Source : BANKS
(7)	Trade Policy and Others
EX <sub>x</sub>	Ratio of export to GDP (in current international prices) Source : SH v.5.0
IM <sub>x</sub>	Ratio of import to GDP (in current international prices) Source : SH v.5.0
OWTI	Own-import weighted tariff rates on intermediate inputs and capital goods. Source : LEE (Constructed from UNCTAD data)
OWQI	Own-import weighted non-tariff frequency on intermediate inputs and capital goods. Source : Constructed from UNCTAD data.
AREA	Size of land, million squares Km. Source : LEE
DIST	Average distance to capitals of world 20 major exporters, weighted by values of bilateral imports, 1000 Km. Source : LEE
FREEOP	Measure of "Free trade openness". Source : LEE FREEOP=.528 - .026 log(AREA) -.095 log(DIST)

(1)	National Accounts of Income
FREETAR	Measure of tariff restriction. Source : LEE FREETAR=FREEOP*log(1+OWTI)
BMPx 10	Black market premium. Source : WOOD and WDR BMP = (Black market Xrate/ Official Xrate) -1 (Xrate = Local currency per dollar) (x = 1, 2, 3, 4, 5, and 6)
BMPxL	Log (1+BMP)
XRxx	Exchange rate (domestic currency per U.S. dollar) Source : SH v.5.0
TOTx 11	Terms of trade shock (growth rate of export prices minus growth rate of import prices) Source: UNTACD, WB
LLYx	Ratio of liquid liabilities to GDP Source : IFS(x = 1, 2, 3, 4, 5, and 6)

## 5. 기타 자료

### 가. World Bank: Measuring Income Inequality Database

소득 불평등에 관련한 데이터로 Deininger, Klaus and Squire, Lyn의 Income Inequality database: A new data set measuring Income Inequality이 있다. 이 데이터는 138개국의 1890 - 1996기간을 바탕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니계수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자료의 상태를 신뢰수준별로 6개로 나누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ccept: Included in our high quality data set.

nn: Based on a survey of less than national coverage.

cs: Estimate that was not included due to availability of an estimate from a consistent source.

ps: Estimate that was not included as there is no clear reference to the

primary source.

est: Estimate based on national accounts or surveys of less than full national coverage.

wg: Estimate excluded because it was based on the income earning population only or derived from non-representative tax records.

본 연구의 통합된 데이터 셋에는 accept된 자료만 입력하였다.

나. OECD의 Society at a Glance의 자료

OECE국가의 2007년도 SaG의 자료 중 다음의 사회 지표를 사용하였다.

<표 6> Society at a Glance 변수

사회의 상태	사회의 반응
생활 만족도(Life satisfaction)	
일자리 만족도(Work satisfaction)	
범죄 희생자 비율(Crime victimisation)	
자살(Suicides)	
학교 괴롭힘(School bullying)	
위험한 행동(Risky behaviour)	
실업(Unemployment)	공적 사회지출(Public social spending)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has generally been rising)	전체 사회지출(Total social spending)
빈곤(Poverty)	보건비 지출 (Health care expenditure)
아동빈곤(Poverty among children)	
정신건강(Mental health)	

다. Data set for a panel of 138 countries Barro-Lee's

Barro-Lee's의 패널 데이터는 크게 7개 부문(부문별 변수는 [부록] 참조)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다.

- 1) National Accounts of Income
- 2) Education
- 3) Population/ Fertility
- 4) Government Expenditures
- 5) PPP Deflators
- 6) political Variables
- 7) Trade Policy and Others

라. OECD Education at a Glance를 통한 평생교육 참여율

EaG의 평생교육 참여율 사용 지표는 다음과 같다.

- 1) Rate of participation of the labour force in continuing education for all levels of education(2003)
- 2) Participation rate in non-formal job-related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bour force 25-to-64 years of age, by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2003)
- 3) Participation rate in non-formal job-related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bour force 25-to-64 years of age, by age (2003)
- 4) Participation rate in non-formal job-related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bour force 25-to-64 years of age, by gender (2003)

## 6. 통합 데이터의 구성

통합데이터는 총 210개의 국가의 1950~2008년도 시계열로 구성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다음의 자료가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거시자료로는

Penn World Table Mark 6.2 version, Barro-Lee Schooling Data set, World Bank의 Deininger, Klaus and Squire, Lyn Income Inequality data base, OECD의 Society at a Glance의 자료 일부 사회통합 지표(각 년도의 통합), Barro-Lee의 Panel 자료(138개국의 최근 update 된 내용), 평생교육 참여율통계 각 년도 OECD Education at a Glance, 기타 미시 자료 활용한 평균 및 분포 통계로 WVS, ALL 등이 있다.

- 1) Penn World Tables, Mark 5.6: the Summer-Heston Data "The Penn World Table(Mark 5): An Expanded Set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1950-198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91 variable list: Population in 000's, RGDPCh, --STLIV(Living Standard) each year. Based on 1985 intl. Prices
- 2) Barro-Lee Schooling Data Set: "International Measures of Schooling Years and Schooling Quality" AER, Papers and Proceedings, 86(2), pp. 218-223 and "Schooling Quality in a Cross-Section of Countries"(forthcoming, NBER Working Paper, 1997) 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Educational Attainment"(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1993) 363-394). How to estimate missing cells and mean years of schooling in is explained in 1993 JME article.
- 3) Deininger, Klaus and Squire, Lyn Income Inequality data base: "A New Data Set Measuring Income Inequality"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0, No. 3 : Use only "Accept"
- 4) OECD social indicator(Society at a Glance)
- 5) Data Set for a Panel of 138 Countries: Barro-Lee's Panel Data set "Sources of Economic Growth"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1994): Data are presented either

quinquennially for the years 1960-1985:or for averages of five yeears' sub-periods over 1960: 8 broad categories: The term X denotes average of a sub-period among the five year sub-periods (e.g. INV3 denotes average investment rate during 1970-1974)---in my data set: INV3 became INV75 by renaming INV3 INV75L : Look do-file c:\paper2\mado\reshape.txt

- (1) National Accounts of Income
- (2) Education
- (3) Population/Fertility
- (4) Government Expenditures
- (5) PPP deflators
- (6) Political Variables
- (7) Trade Polity and Others

6) We do not use the second category(Education) because the following Barro-Lee data set updates it:

이상의 자료를 각국의 나라별 code를 만들고 연도별로 정리하여 통합하였으며, 각 경우는 자료발표가 된 책자의 발행년도가 아닌 자료 채집된 연도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다음 두 개의 미시자료는 평균값을 구하여 통합하였다.

- (1) World Value Survey의 각 년도 자료의 다음 변수들의 평균지수와 확보

## &lt;표 7&gt; World Value Survey 변수

Political Engagement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
Civic Engagement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것이 아닌 공공성을 지닌 활동
Voter turnout	공공선거에서 투표참여
Interpersonal Trust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Institutional Trust	정부와 정당과 같은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
Tolerance	비대중적인 그룹에 대한 시민적 자유를 확대하는 willingness
Political knowledge	민주적 제도와 과정에 대한 지식

(2) 성인문해력의 불평등 지수 (IALS-International Adult Literacy 또는 ALL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의 평균분포 등 불평등 지수를 계산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각 자료가 확보된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Penn World Tables 6.2 Version

[http://pwt.econ.upenn.edu/php\\_site/pwt\\_index.php](http://pwt.econ.upenn.edu/php_site/pwt_index.php)

(2) Barro-Lee Schooling Data set

<http://www.cid.harvard.edu/ciddata/ciddata.html>

(3) Deininger, Klaus and Squire, Lyn Income Inequality database A new data set measuring Income Inequality

<http://econ.worldbank.org/WBSITE/EXTERNAL/EXTDEC/EXTRERESEARCH/0,,contentMDK:20699070~pagePK:64214825~piPK:64214943~theSitePK:469382,00.html>

(4) Society at a glance oecd indicator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4637\\_2671576\\_1\\_1\\_1\\_1,00.html](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4637_2671576_1_1_1_1,00.html)

(5) Data set for a panel of 138 countries Barro-Lee's

<http://www.cid.harvard.edu/ciddata/ciddata.html>

(6) Education at a Glance

[http://www.oecd.org/document/34/0,3343,en\\_\\_2649\\_39263238\\_35289570\\_1\\_1\\_1\\_1,00.html](http://www.oecd.org/document/34/0,3343,en__2649_39263238_35289570_1_1_1_1,00.html)

## 참고문헌

- 고병현(2005). 「사회통합 기제로서의 대안적 평생교육 방안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제11권 제1호, 145~173쪽.
- 교육인적자원부(2007).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8 - 2012)』.
-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 교육인적자원부·평생교육진흥원(2008). 『2008 평생교육백서』.
- 김승보·이주호(2007).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전략 - 파편화에서 통합화로」, 『평생학습사회만들기: 교육에서 학습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안국 외(2004). 『직업훈련 정책평가 계량경제모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태중(2007). 「교육열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교육혁신위원회
- 김태준(2006). 「성인학습과 사회적 자본 프로파일」, 『평생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73~94쪽.
- 민문홍(2009). 『유럽연합의 평생학습 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세일·김승보·박정수 편(2007). 『평생학습사회 만들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백성준·김승보·전재식 (2006). 『고등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변종임·고영상·고혜원·강창현·이희수·채재은(2007). 『사회통합을 위한 학습·노동·복지 연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아(2008). 「평생학습 참여의 사회적 자본 형성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평생교육연구』, 제14권 No.2, 117~146쪽.

- 이병희(2005).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김주섭·김태중·장수명·장원섭(2006).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임언·최동선·오은진(2005). 『한국의 성인직업기초 능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수명(2004).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 장수명(2007). 「인적자본론으로 본 평생교육」, 『Andragogy Today』, 제10권 제3호, 25~61쪽.
- 전도근(2004). 「평생교육사 양성교육의 효과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진환(2005). 「한국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 모색」,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3호 553-576쪽.
- 조순옥(2003). 「평생학습 참여가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2008). 2007 한국의 사회지표.
- 최상덕·김승보 외(2007). 『평생학습사회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혁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천세영·한승희(2006).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의 의미와 대학의 위상전환」, 『평생교육학연구』, 제12권 제1호.
- 평생교육진흥원(2008). 『해외평생교육 정책동향 시리즈-북미, 영국, 독일, 일본, 유럽연합』.
- 홍영란·김태준·현영섭·소진광·이승희(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Balatti, J., & Falk, I.(2002). "Socioeconomic Contributions of Adult Learning to community",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52 No.4.

- Campbell, David E.(2006). "What is Education's impact on civic and social engagement?",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Social Outcomes of Learning, held at the Danish University of Education (Copenhagen), on 22-24 March.
- Cohn, E., & Addison J. T.(1998). "The Economic Returns to Lifelong Learning in OECD Countries", *Education Economics*, Vol.6 No.3.
- Council of Europe(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Belgium,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Renouf Pub Co Ltd.
- Durkheim, E.(1977). *The Evolution of Educational Thought*, London, RKP.
- Falk, I., Balatti, J., and Golding, B(2000). "Building Communities: ACE, Lifelong Learning and Social Capital."
- Feinstein L.(2002). "Quantitative Estimates of the Social Benefits of Learning", *Wider Benefits of Learning Research Report*, No.6.
- Feinstein, L. and C. Hammond(2004). "The Contribution of Adult Learning to Health and Social Capital", *Oxford Review of Education*, Vol.30 No.2, pp. 199~221.
- Field, J.(2003). "Civic engagement and lifelong learning: Survey findings on social capital and attitudes towards learning",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Vol.35 No.2.
- Field, John(2009). 'The Future of Adult Learning and Social Cohesion in Scotland' Holyrood Conference on The Future of Adult Learning in Scotland: A demand-led skills strategy?, Edinburgh 18 March 2009.
- Fuller, B. and Robinson, R.(eds)(1992).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Education*, New York: Praeger

Granovetter, M.(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8 No.6, pp. 1360~1380.

Green, A., and Preston, J.(2001). "Education and Social Cohesion: Recentring the Debate",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Vol.76 No.3&4, pp. 247~284.

Green, A., Preston, J., and Sabates, R.(2003a). "Education, Equity and Social Cohesion: A Distributional Mode", *Wider Benefits of Learning Research Report* No.7, Center for Research on the Wider Benefits of Learning,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Green, A., Preston, J., and Sabates, R.(2003b). "Education, Equality and Social Cohesion: A Distributional Approach", *Compare* Vol.33 No.4.

Hansmann, Henry(1980). "The Rationale for Exempting Nonprofit Organizations from Corporate Income Taxation," *The Yale Law Journal* 91, pp. 55~100.

Jansen, T., Chioncel, N., and Dekkers, H.(2006). "Social cohesion and integration: learning active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27 No.2.

Jenkins, A., Vignoles, A., Wolf A., and Galindo-rueda F.(2003). "The Determinants and labour market effects of lifelong learning", *Applied Economics*, Vol.35.

Kaestle, C. F.(1983). *Pillars of the Republic: Common Schools and American Society*. Toronto, Hill and Wang, pp. 1780-1860.

Kilpatrick, S., Bell, R., and Falk, I.(1999). "The role of group learning in build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ol.15 No.1.

Kilpatrick, S., Field, J., and Falk, I.(2003). "Social Capital: an analytical tool for exploring lifelong lear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29 No.3.

Martin, I.(2003). "Adult education, lifelong learning and citizenship: some ifs and but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22 No.6.

McMahon W. W.(1998).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the Social Benefits of Lifelong Learning", *Education Economics*, London, Vol.6 No.3, pp. 309~345.

\_\_\_\_\_. "The Impact of Human Capital on Non-Market Outcomes and Feedbacks on Economic Development"

Milner, H.(2002). *Civic Literacy: How Informed Citizens Make Democracy Work*,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Hanover, NH.

Newton, K and Norris, P.(2000).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in Pharr, S. J. & Putnam, R. D.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Nie, N., Junn, J. and Barry, K.(1996).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ECD(2003)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_\_\_\_\_(2004)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_\_\_\_\_(2005)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_\_\_\_\_(2006).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_\_\_\_\_(2007). *Education at a Glance*.

\_\_\_\_\_(2009) 『Society at a Glance』 Paris, OECD.

- Plewis I. & Preston, J.(2001). *Evaluating the Benefits of Lifelong learning: A Framework*,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 Plewis Ian and John Preston(2001), *Evaluating the Benefits of Lifelong Learning*, Wider Benefits of Learning Research Report No.2, Center for Research on the Wider Benefits of Learning,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Putnam, R.(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uller, T., Bynner, J., Green A., and etc.(2001). *Modelling and Measuring the Wider Benefits of Learning: A Synthesis*,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 World Bank(1996). *Priorities and strategies for education: A World Bank Review*, Pergamon press, Vol.16 No.3.
- World Bank(2003). *Lifelong learning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Challenges for developing countries*. TechKnowLogia.

▣ 저자 약력

- 김미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김승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장수명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
-------------------

· 발행연월일	2009년 11월 29일 인쇄 2009년 11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권 대 봉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5-1 홈페이지: <a href="http://www.krivet.re.kr">http://www.krivet.re.kr</a>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인 쇄 처	크리홍보(주) (02)737-5377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089-3 9337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값 7,000원>